

2022 추계 사학과 정기답사



답사지역 : 전라북도 일대
일시: 9. 29. ~ 10. 1.
인솔교수 : 이기훈, 하문식

연세대학교 사학과

목 차

I 군산

전북 지방의 식민지 지주제	4	소설 『탁류』와 식민지 시대 투기자본	35
군산 지역 개관	8	군산 일본식 근대 건축	40
군산 교통	13	군산 지역 일본인들의 생활·문화	45
군산 문학	19	재 조선 일본인들의 실태	49
군산 종교	23	3·1운동의 초기 확산	52
군산의 개항과 도시건설	28	군산의 만세운동	55
군산의 미곡수출과 도시팽창	32	일본인 지주와 농장경영	58

II 고창

고창 지역 개관	61	신재효와 판소리	67
고창읍성	64	인촌 김성수 고택	70

III 부안

부안 지역 개관	73	내소사(來蘇寺)	76
----------------	----	----------------	----

IV 정읍

정읍 지역 개관	80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91
고부 지역 개관	84	고부 지역 유적지	94
만석보	87		

| 답 사 일 정 표 |

9월 29일 목요일 - 1일차		
시간	장소	지역
07:30 ~ 08:00	학교(남문 앞 대운동장 집결)	서울
11:00 ~ 11:30	채만식 문학관	군산
11:40 ~ 12:20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12:40 ~ 13:45	조별 점심 식사(식사 후 자유시간 포함)	
14:00 ~ 16:00	부잔교, 구 조선은행, 구 일본18은행, 구 군산세관(조별 활동)	
16:00 ~ 17:30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조별 활동)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0:10	숙소 이동	고창

9월 30일 금요일 - 2일차		
시간	장소	지역
07:30 ~ 09:00	기상, 아침 식사, 숙소 출발	고창
09:40 ~ 09:55	백산성	부안
10:10 ~ 10:20	전봉준 선생 고택	정읍
10:25 ~ 10:35	말목장터	
10:40 ~ 10:55	만석보터	
11:05 ~ 12:05	황토현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안
12:45 ~ 13:35	점심식사	
13:35 ~ 14:55	내소사	
15:25 ~ 15:45	고부관아터	고창
16:15 ~ 16:35	인촌 김성수 선생 생가	
17:05 ~ 18:05	저녁식사	
18:05 ~ 18:30	숙소 이동	
19:30 ~ 21:30	레크리에이션	

10월 1일 토요일 - 3일차		
시간	장소	지역
07:30 ~ 09:00	기상, 아침 식사, 숙소 출발	고창
09:30 ~ 10:30	고창읍성(모양성)	
10:30 ~ 11:10	판소리박물관	
11:20 ~ 12:20	점심 식사	군산
13:20 ~ 13:40	시마타니 금고	
13:50 ~ 14:50	이영춘 가옥	
15:10 ~ 15:30	임피 폐역사	서울
18:00 ~ 19:00	학교 도착 및 해산	

전북 지방의 식민지 지주제

18 조해창, 20 하민식

1. 식민지 지주제 개괄

식민지 지주제는 일제강점기 한국과 한국 농촌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사회구조적 형태였다. 이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이전인 구한말부터 그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였으나, 당시 일본인들은 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이 시기 일본인 대지주들은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면 단순한 소작경영으로도 높은 소작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¹⁾

이러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식민지 지주제는, 기업형 경영형태인 농장주-지배인-주임-소작농의 형태와 전근대적 경영형태가 잔존한 지주-지배인-사임(舍音: 마름)-소작농민의 형태로 구분된다. 일본 제국은 제도적으로 지주의 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었으며, 경제적 목표와 함께 식민지적 지배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여 식민지배 정책과 식민지 지주제가 상부(相符)하도록 하였다. 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주 의존도는 낮아졌으며, 조선의 일본인 지주들 또한 비농업 분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와 경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²⁾

193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지주제가 일본 금융자본에 종속된 형태를 띠게 되면서, 농업 관련 기업은 일본 제국의 유관 정책을 수행하는 대리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³⁾ 일본 정부는 신탁경영제를 도입하고 조선신탁을 설립하여 지주제를 유지하고 농업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전시체제에 들어선 후에는 부재지주들의 토지를 강제로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반도의 농촌 사회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형 농장 형태로 재편성하고자 하였다.⁴⁾ 이와 같이 일본 제국의 권력과 밀접하게 연계된 식민지 지주제는 식민 권력이 붕괴되면 곧바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⁵⁾

2. 전라북도와 식민지 지주제

1) 崔宇中, 2009,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의 농장경영 - 이토(伊藤)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2쪽.

2) 최원규, 2021,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 혜안, 242~243쪽.

3) 최원규, 2021, 위의 책, 229~230쪽.

4) 최원규, 2021, 위의 책, 241쪽.

5) 최원규, 2021, 위의 책, 243쪽.

전북 지역은 구한말부터 많은 일본인들이 농장을 건설하고 경영한 지역⁶⁾으로, 1905년까지는 일본인 대지주들이 대한제국의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사적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였다.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허용되자 한일 양국의 법적, 관습적 차이를 이용하여 토지를 다량으로 매입하였다.⁷⁾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점부터 일본인 대지주들이 전북 지방으로 많이 진출하였고, 대부분 1910년 이전에 충분한 토지를 차지하고 농업 경영을 개시하였다.⁸⁾

이들 일본인 대지주들은 개간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전북의 군전 지역, 정부와 민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절수사여지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관습적 경작권, 개간권이나 소유권을 무시하여 빠르게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대한 농장을 건설하였다. 일본 영사관은 이들이 가능한 한 일본인 간의 경쟁을 피하고 특정 위치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⁹⁾

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지역의 농지는 일본인 소유지의 비중이 65%를 넘었고, 서수면 전역의 농지 중 일본인 소유지의 비율은 1914년에는 37%였으며 점차 증가하여 1938년에는 54%에 달하였다.¹⁰⁾ 일본인 대지주들은 대개 1910년 이전에 영역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는 자산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일본인 중소지주들은 토지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14년 이후 점차 소유 토지를 확대하여 대지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지주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다량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중소지주들은 대지주의 관리원으로 들어와 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량을 늘리거나, 일본에 거주하며 매입과 경영을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인 지주들의 인원수와 소유 농지 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지주는 정체되고 중소지주는 증가하였으나 일본에 거주하는 지주는 감소하였다.¹¹⁾

일본인 지주의 경영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주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조선 현지에 거주하는 일본인 지주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이다.¹²⁾ 대지주는 지배인을 고용하고 기업형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본인 대지주들 중에서는 본래 일본에서도 지주였던 이들도 있었으나 산업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인 경우도 많았다. 일본 내 자본가가 토지에 투자한 경우, 농업 경영에 집중한 경우와 본업을 다른 산업에 두고 부수적으로 지주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군산에 세워진 불이흥업(不二興業)은 대표적인 전자의 예시로, 다른 분야에 거의 투자하지 않고 지주 경영에 집중하였다.¹³⁾

전북 지역 주요 농장의 지주들은 농장을 기업형으로 운영하였는데, 경영 책임을 맡는 지배인은 영농 전문가뿐만 아니라 군인, 법과대학 졸업자 등 다양했다. 일본인 지주들은 경영권이 불완전한 지역에서는 전통적 방식인 사음(舍音: 마름, 소작관리인)을 활용하여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에서 유래가 오래된 사음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조선의 관습이나 실정에 무지하거나 조선인 소작인과 원활한 소통이 힘든 일본인 지주에게 사음은 필수적인 존재였다. 사음은 식민지 지주

6) 허원영, 2022, 「서평: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지주제 - 최원규,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 (서울, 해안, 2021)」, 『歷史學報』 253, 585~586쪽.

7) 최원규, 2021, 앞의 책, 184~185쪽.

8) 최원규, 2021, 위의 책, 184쪽.

9) 최원규, 2021, 위의 책, 185쪽.

10) 최원규, 2021, 위의 책, 185~187쪽.

11) 최원규, 2021, 위의 책, 190~191쪽.

12) 최원규, 2021, 위의 책, 191쪽.

13) 최원규, 2021, 위의 책, 191~199쪽.

제의 한 구성요소이자 중간자로, 식민 권력의 가해자적 성격과 피해자적 성격을 모두 지닌 존재였다.¹⁴⁾

한편 위탁경영이 이루어진 농지도 적지 않았다. 위탁경영은 전형적인 자본가적 경영형태로 지대를 받는 토지소유주, 이윤을 얻는 경영자, 소작료를 보수로 받는 노동자(소작농)로 이루어진 3분할제 경영 형태였다.¹⁵⁾ 위탁경영은 계약에 따라 지대와 이윤을 정하였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확이 필수적이었고, 충분한 이득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주가 농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직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토지소유주, 즉 수탁지주들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쌀값, 경영 방식, 은행 금리 등의 시장 경제적 요소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형 운영을 중시하였다.¹⁶⁾ 1930년 전후 식민지 조선의 농업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지주를 희생시켜 이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31년 조선신탁업령을 공포하고 1932년 전국의 신탁회사를 합쳐 조선신탁을 설립하였다. 지주제가 식민지 배에 용이하다고 생각한 일본 제국은 국가적 대책을 통해 기업형 농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식민지 지주제를 유지시키고자 한 것이다.¹⁷⁾ 전시체제에 들어선 후 일본 제국은 부재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위탁시키는 등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전 영역을 장악하여 전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근대적 토지소유권과 식민지 지주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만경강 유역의 개간지에서 수리조합이 건설되는 등 근대적 경영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일반적인 농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주의 경영권을 강화하였다. 일본 민법에 따라 사적 소유권이 절대권으로 인정되었고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임대차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소작농에게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물권적 권리를 부정하였다. 농사 개량 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품종 개량, 시비 등의 생산 과정 또한 지주가 장악하게 되었고, 산미증식계획 시기의 수리조합¹⁸⁾ 건설과 경지정리사업은 소작농의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작농은 개별 경작지에서 행사할 수 있던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노동자가 되었으며, 기업형 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¹⁹⁾

지주는 소작계약서를 통해 소작농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고, 소작농을 조직화하여 동원과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외곽 조직을 만들었다. 소작농이 지주의 지시에 반할 경우 소작권의 박탈도 가능하였다. 지주는 소작농에게 논밭 외에 거주지도 제공하였는데, 이는 소작농의 거주 권리를 지주에게 예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²⁰⁾

이러한 배경 하에 성립된 식민지 지주제는 자연히 고율의 소작료 등의 사회적 문제를 불러왔다. 일본인 대지주들이 공동 경영하던 농업 회사인 이엽사의 소작료율은 6~8할에 달했는데, 현 군산시 서수면에서 1927년 옥구농민조합 서수지부를 중심으로 이엽사농장 소작쟁의가 일어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²¹⁾

군산 지역의 일본인 대지주들은 투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마모토 리헤이와 불이흥업 등은 지주 경영에 집중하고 투자도 주로 농업 관련 분야에 행했지만, 일본 내지에 기반이 있는 이들은

14) 하지연, 2014, 「일제하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북농장의 '숨흡'제 운영과 성격」, 『이화사학연구』 49, 119~120쪽.

15) 최원규, 2021, 앞의 책, 199쪽.

16) 최원규, 2021, 위의 책, 200~202쪽.

17) 최원규, 2021, 위의 책, 203~205쪽.

18) 식민지배 하에서 근대적 수리조합의 건설은 조선인 지주와 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松本武祝, 2015,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と河川水利利用秩序の改編 - 参禮伊藤農場の事例 -」, 『韓日關係史研究』 51, 214~220쪽.

19) 최원규, 2021, 앞의 책, 214~217쪽; 허원영, 2022, 앞의 글, 585~586쪽.

20) 최원규, 2021, 위의 책, 218~219쪽.

21) 최은진, 2021, 「1920년대 후반 전북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학연구』 142, 118~157쪽.

조선에서는 지주 경영을 주로 하되 일본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였다. 조선과 일본을 구분하지 않고 산업자본을 농업자본에 투자하고, 이를 다시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지주 경영보다 산업 투자의 비중이 더 큰 자본가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농업 관련 분야에 주로 투자한 이들도 있었으나, 농업과 무관한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한 이들도 많았다.²²⁾

참고문헌

- ❖ 최원규, 2005, 「일제시기 일본인 지주의 토지 확대와 소유 변동의 추이 - 전북 옥구군 서수면 사례 -」, 『東方學志』 130
- ❖ 崔宇中, 2009,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의 농장경영 - 이토(伊藤)농장 사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 하지연, 2014, 「일제하 불이흥업주식회사 전북농장의 '숨흡'제 운영과 성격」, 『이화사학연구』 49
- ❖ 松本武祝, 2015,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と河川水利用秩序の改編 -參禮伊藤農場の事例-」, 『韓日關係史研究』 51
- ❖ 최은진, 2021, 「1920년대 후반 전북 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의 전개과정과 성격」, 『사학연구』 142
- ❖ 최원규, 2021,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 혜안
- ❖ 허원영, 2022, 「서평: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지주제 - 최원규, 『일제시기 한국의 일본인 사회 - 도시민·지주·일본인 농촌』 (서울, 혜안, 2021)」, 『歷史學報』 253

22) 최원규, 2021, 앞의 책, 220~223쪽.

군산 지역 개관

21 고우빈, 21 송제승

1. 군산의 자연·지리

전라북도 군산시는 동쪽은 익산시, 서쪽은 황해, 남쪽은 만경강(萬頃江)을 경계로 김제시, 북쪽은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5°57' ~ 126°54', 북위 35°43' ~ 36°07' 에 위치한다. 서해안의 광활한 연안지역은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군산군도이며, 16개의 유인도(有人島)와 18개의 무인도(無人島)를 이루고 있다.²³⁾ 면적은 395.82km²이고, 인구는 27만 8398명(2015년)이다.

군산은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평야지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퇴적층이 두꺼운 충적평야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북동부 일부 지역, 차령산맥의 말단부, 남쪽에는 100~200m의 낮은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군산시의 북쪽과 남쪽 경계를 따라 각각 금강과 만경강이 서류하여 황해로 흘러들며, 이 두 강의 하구에는 넓은 간석지가 잘 발달해 있다. 이들 간석지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간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군장간척사업과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 중으로 해안선이 황해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기후는 남부서안형 기후구에 속하며, 바다의 영향으로 겨울에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온난습윤하다. 연평균기온 13°C, 1월 평균기온 -1.5°C, 8월 평균기온 25°C이며, 연강수량은 1,200mm이다.²⁴⁾



그림 2 군산시 도로명 안내도

23) 남정근, 2000, 「집중조명: 전북 군산시: 군산시의 전래문화와 새 천년 문화의 탄생」, 『지방포럼』 5권0호, 68쪽.

24) 김일기·이영화, 2009, 「군산시(群山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B0%EC%82%B0&ridx=1&tot=108> (2022.09.18. 00:50).

2. 군산의 인문·역사

1) 역사와 연혁

(1) 선사시대

바다와 평야가 함께 하였던 군산은 근현대까지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군산의 구석기유적은 2002년 군산 내흥동 군산-장항에서 발견된 내흥동 유적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석기는 몸돌, 격지, 밀개, 여러면석기 등이 있는데 이는 본 유적이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후기 구석기시대 이전의 자연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²⁵⁾

이후 군산의 신석기시대에는 대체적으로 하천이나 해안가 주위에서 유적과 유물들이 주로 발견되었다. 금강과 만경강의 관문인 군산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군산군도와 그 주변 도서 지역에서 30여 개의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가장 밀집된 곳으로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²⁶⁾

(2) 삼국시대

군산지역은 본래 마한(馬韓)의 영토였으며 54개의 소국 중 군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⁷⁾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마한은 백제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는데 군산 지역과 관련된 곳으로 나타나는 백제시대의 지명은 시산군(屎山郡)과 마서량현(馬西良縣)과 부부리현(夫夫里縣) 등이 있다. 삼국 시대의 군산은 백제 부흥군과 나당 연합군의 싸움인 660년의 백강 전투와 663년의 백촌강 전투,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군의 싸움인 676년의 기벌포 싸움처럼 당나라와 한반도 사이의 전투가 잦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이 통일된 이후 경덕왕 시기에 시산군은 임피군(臨陂郡)으로, 그 관할 지역으로 마서량현을 옥구현(沃溝縣)으로, 부부리현은 회미현(滄尾縣)으로 지명이 개정되었으며 위 모든 지역은 임피군에 영속되었다.²⁸⁾

(3)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이루어진 군산의 행정 구역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개정이 되었다. 1018년(현종 9년)에 임피군이 임피현으로 강등되어 현령이 설치되었으며 옥구, 회미, 부운(富潤), 만경(萬頃) 등의 현을 속현으로 거느렸다. 여기서 임피현은 오늘날 군산시 임피면에 해당하고 당시 임피현은 옥구현과 회미현의 상위 행정 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임피에는 조창이 설치된 서해안의 요충지였는데 조세인 세곡을 수도 개성으로 운반하는 조운을 원활

25) 광장근, 2016, 『군산내흥동유적(群山內興洞遺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5. 20:34).

26) 광장근, 2014,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 제45호, 7~8쪽.

27) 광장근, 2014, 위의 논문, 12쪽.

28) 김일기·이영화, 2009, 앞의 자료.

하게 하고자 남도의 해안과 강가에 총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임피의 조종포(朝宗浦)에 설치된 진성창(鎭成倉)이다. 그렇기에 진성창이 위치한 군산에는 세곡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조운 창고를 설치되고 서해 중부지역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고려 말기 왜구의 대규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1308년(우왕 8년)에 최무선 장군이 진포해전에서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선 5백 척을 무찔렀기에 군산은 우리나라 전투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옥구현이 임피현의 속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피현과 함께 옥구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옥구현과 임피현은 전라우도(全羅右道)에 속해 있었고 1397년(태조 6년)에 군산도(群山島)의 진(鎭)을 이 곳으로 옮기고 병마사를 파견하였으며 1423년(세종 5년)에는 수군만호가 주둔하는 군산포영(群山浦營)을 두고, 병마사를 첨절제사로 바꾸었다.²⁹⁾

1512년(중종 7년)에는 용안 득성창을 대신할 새로운 조창인 군산창(群山倉)이 운영이 되기 시작하였다. 군산창은 군산 인근 7읍인 옥구, 만경, 함열, 김제, 금구, 전주, 남원의 세곡이 모여 바다를 통해 경창에 수송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금강 하구에 금강 수계의 유일한 조창이 되면서 전주와 남원, 금산을 포함한 20개의 고을의 조세를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할 정도로 거대해졌다.³⁰⁾

양난이 끝나고 조선 후기에는 군산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갔다. 당시 명·청나라의 어선, 상선이 불법적으로 오는 황당선(荒唐船)이나 서양의 이양선이 서해에 주로 출몰하고 해랑적(海狼賊)의 침범을 막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군산 지역의 해방(海防)을 담당하던 고군산진의 중요성도 커져갔다. 조선 후기의 고군산진은 조선 전 수군 진영을 통틀어서 최대의 군선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조치로 생각된다.³¹⁾

(5) 근대·일제 강점기

1895년 23부제의 실시로 전주부의 관할 하에 옥구군과 임피군으로 구분되고 1896년 13도제 아래에서 옥구군은 4등군으로서 전라북도 소속이 되었다. 이후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군산항의 개항과 옥구부로의 승격이 이루어지고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된다. 이후 옥구군으로의 개편과 옥구부의 승격이 다시 되었다가 1906년 군산부와 군산군 이사청의 설치로 옥구부는 군산부에 편입되었다.

개항 이후 군산에는 일본인 지주와 상공업자의 침투가 이루어졌다. 1912년 호남선철도와 이어 군산~익산간 철도가 개통되어 김제·만경 평야를 비롯한 전라도지방의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이를 보여준다.³²⁾ 그러나 군산 내에서도 이런 일본의 압박에 벗어나고자 경제·사회 운동을 주도하였고 1920년대에는 군산교육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교육후원단체를 통해 군산청년야학, 계화여학교 등 여러 교육 시설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한 교육 운동의 지원에 큰 힘을 주었다.

29)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30) 최완기, 1995, 『군산창(群山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5. 22:24).

31) 김종수, 2010, 『군산도와 고군산진의 역사』, 『전북사학』 제45호, 전북사학회, 158쪽

32) 김일기·이영화, 2009, 앞의 자료.

(6) 현대

1949년에 군산부가 시로 승격되고 군산시와 옥구군으로 다시 나뉘게 되었다. 한국 전쟁 시기였던 1950년 7월 18일에 공산군에게 함락되었으나, 9월 29일에 수복되었다. 군산은 전후 복구사업의 실시와 근대화 정책으로 발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옥구군은 1973년 7월 1일에 일부가 군산시에 편입되었고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에 의해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가 되었다.³³⁾

2) 문화

군산시는 1899년 개항과 함께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각국 공동조계지의 격자형 가로망체계를 근간으로 형성된 일제강점기 개항도시의 원형과 (구)조선은행, 대한통운창고, 군산세관, 부잔교 등의 시설 및 다양한 유형의 일식 주택이 잘 간직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근대역사문화자원은 일제의 수탈이라는 그늘에 가려 방치됨으로써 지역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주택의 경우 해방 이후 적산가옥으로 취급되어 가치가 폄하되었다.³⁴⁾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인 군산국악원은 1966년에 설립되었고, 1970년부터 개최된 군산예술제는 시·화전·미술전·사진전·무용의 밤·국악잔치·음악회 등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인 문화활동을 펴고 있다.³⁵⁾

군산항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많은 일본인 상인들이 거주하여, 이들의 재력 덕에 1902년 전북 최초로 주간지 『군산신보(群山新報)』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1928년 『군산일보』라는 이름의 일간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속적으로 간행되다가, 1941년 일제의 전시언론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전북시보(全北時報)』에 통합되었다.³⁶⁾

군산 지역의 민속놀이로는 회현지방의 기(旗)맞이놀이를 들 수 있다. 이 놀이는 정월 15일과 2월 사이에 날을 잡아서 행하나,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가 낡아서 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마을이 있을 때에만 행한다.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풍어를 위한 용왕제를, 내륙 지방에서는 농신제·산신제·당산제 등을 지내는데, 대표적인 동제로는 나포면 나포리 영신당제(靈神堂祭)를 꼽을 수 있다.³⁷⁾

참고문헌

- ❖ 남정근, 2000, 「집중조명: 전북 군산시; 군산시의 전래문화와 새 천년 문화의 탄생」, 지방포럼 5권 0호
- ❖ 최완기, 1995, 『군산창(群山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일기·이영화, 2009, 『군산시(群山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종수, 2010, 『군산도와 고군산진의 역사』, 『전북사학』 제45호

33)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34) 심경미, 2010,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시」, 『도시계획』 제3권 제1호, 33쪽.

35) 김일기·이영화, 2009, 앞의 자료.

36)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37) 김일기·이영화, 2009, 위의 자료.

- ❖ 곽장근, 2014,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 제45호
- ❖ 곽장근, 2016, 『군산내흥동유적(群山內興洞遺蹟)』,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구희진, 2018, 『1920년대 초 군산사회와 교육운동』, 『전북사학』 제54호
- ❖ 강유나, 2020, 『군산 지역의 고대 사회』,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 심경미, 2010,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시」, 『도시계획家』 제3권 제1호

1. 개항 이전 군산의 교통과 발전

교통이란 사람이나 재화(정보를 포함하는)의 수송과 전달 등 장소적 이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와 체계를 통칭한다.³⁸⁾ 교통의 발달은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에 의해 이뤄지고, 이는 지역 내부의 순환, 지역 간 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지역의 교통을 중심으로, 그 도시 혹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그 지역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도시를 살펴보고자 할 때, ‘군산’은 좋은 예시이다.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만경강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은 서해안과 접하며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갖는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 특성은 군산 지역의 성장의 큰 요인이 된다.

개항 이전 군산은 대외 무역의 실질적 관문, 조창 기반의 물류기지, 군산진과 군산창 기반의 군사 및 상업 중심지였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은 금강 중류에 위치했고, 금강 하류에 위치했던 군산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다. 금강은 웅진에서 외부로 뚫린 유일한 뱃길이었고, 군산은 그런 금강의 입구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산은 당시 고대사회의 실질적 관문이자 중국, 왜 등 사신들의 대기장소 역할을 맡았다.

고려시대에는 군산지역(당시 임피현)에 조창이 설치되었다. 고려의 군현제 시스템 아래에서 농민에 대한 조세와 공부(貢賦), 요역(徭役)의 부과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국가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조세를 징수하고 저장 및 운반 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가 바로 조창이다. ³⁹⁾군산에는 금강과 서해안 경계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12조창(漕倉) 중 호서,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진성창이 설치되었다. 진성창은 세곡을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수송하며 서해 중부와 개성을 잇는 물류기지 역할을 맡았다.⁴⁰⁾

세종 초에 이르러 군산진이 선유도에서 현재 영화동 수덕산 기슭의 군산진성(일명 노인성)으로 이전하며, 군산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다. 조선시기도 군산의 조창(군산창)은 조세수납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선 조운(漕運) 체계를 살펴야하는데, 조운은 쌀로 세금을 대납하던 조선 시대 일정 지역의 세금인 쌀을 바닷가의 조운 창고에 모아 두었다가 세곡선을 이용하여 한양으로 운반하는 과정이다. 군산창은 중종 7년(1512년)에 정식 설치되어, 18세기에 이르면 전주, 태인, 금구, 임실, 진안, 장수, 옥구 7개 읍의 전북지역의 미곡을 군산창에 모아 실어가는 칠읍해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⁴¹⁾

38) 방동인·음성직, 1995, 「교통(交通)」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5%90%ED%86%B5&ridx=0&tot=707> (2022.09.17. 19:30).

39) 문동신, 2007,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 문화체육과, 135쪽.

40) 최완기, 1995, 「조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13%EC%A1%B0%EC%B0%BD&ridx=0&tot=4858> (2022.09.17. 19:00). 고려 초기에는 60개 포구가 조창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현종 연간(1009~1031)에 60개 포구에 분산되어 있던 조창의 기능이 12조창으로 집중, 문종 연간(1046~1083)에 13조창제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

군산창의 변창으로 항구 주변에는 여러 주막과 객주, 여각,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군산에 쌀을 보내는 칠읍에 포함된 고창 중에 군산에서 수백리 떨어진 장수 진안 임실 등의 고창은 험한 산지에 자리하고 있어 쌀을 직접 가져오지 못하고 운송상의 편리함 때문에 각 고을의 관리가 현금으로 세금을 가져와 군산에서 쌀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경향의 장사꾼들이 군산창의 관원들과 결탁해 쌀을 선매해놓고 곡물가격을 조작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운과 조창은 당시 세금 운송의 기능을 넘어 개경 혹은 한양과의 직항로가 열리는 수상 운송의 기능과 여러 정보, 문화 등이 들어오고 이를 인근 각지로 퍼뜨리게 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2. 개항 이후 군산의 변화

금강 하구의 포구로 오랜 기간 기능해오던 군산은 개화기의 도래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 인해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가 개항했지만 일본은 더 나아가 광대한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효과적으로 일본으로 반출하고자 했고,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은 좋은 장소였다. 그렇게 당시에는 옥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군산은 1899년에 조선에서 7번째로 개항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미곡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 일본은 군산을 계획도시로 성장시켰다⁴¹⁾. 이 시기 군산의 인구는 일본인 비율이 30%에 달했을 정도였고, 도심 곳곳에는 쌀과 관련된 농사조합·곡물시장·미곡신탁주식회사·세관 등이 자리하였다⁴²⁾.

조계지로 기능하던 개항장이 외딴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배후지의 존재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군산 역시 일본의 주도 아래 호남의 여타 내륙 지역과 연결되어 갔다. 1913년 개항장 중심으로 부(府)제의 실시와 함께 항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 부설이 한반도에서 진행되었는데⁴³⁾, 군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12년에는 호남선 철도가 논산의 강경에서 이리(현재의 익산)까지 개통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호남선의 지선 역할을 하는 군산선이 1914년에 이리~군산 구간을 개통하였다⁴⁴⁾.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사람과 물류가 군산항에 집중될 수 있었고, 이는 군산 지역의 전통적 중심인 옥구가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군산항과 호남 지역의 전통적 중심지였던 전주를 연결하는 ‘전군도로’가 1908년 한국 최초의 아스팔트 포장 신작도로 건설된 것 역시 군산이 갖고 있는 개항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이었다⁴⁵⁾. 그 결과 1932년 군산의 인구는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기존의 농업 종사 인구 이외에도 상업과 공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등, 도시로서 발전을 이어나가게 된다.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일제는 항구와 조계지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군산을 계획도시로 설계해 나가게 된다. 한반도의 농산물과 공업 원자재를 반출하고 일본의 공산품을 반입하기 위한 교역도시로서의 기능이 주를 이루었고,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었기에 기능이나 경관적 측면에서도 이중성이 나타나게 된다.⁴⁶⁾ 그 결과 군산항 주변 평지를 중심으로

41) 진용선, 2017,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15쪽

42) 양은정·박소현, 2017, 「군산시 원도심에 관한 계획방식의 변화와 특성」, 『한국도시계획학회지』 제18권 제5호, 11쪽.

43) 김민영, 2021, 「군산 개항 120년(1899-2019), 주요 관련 자료와 활용 방향」, 『한국도시연구』, 33(3), 1~16쪽.

44) 김종현, 2006, 「20세기 초 철도부설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9(4), 379~387쪽.

45) 심승희, 2021, 「장항선의 군산으로 변신 중입니다」, 『국토』, 70~81쪽.

46) 심승희, 2021, 위의 논문, 72쪽.

동서방향 5개의 가로와 남북방향 9개의 가로로 구획된 격자형 거류지에 택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군산의 해관장(海關長)이 사실상 통치하던 전관거류지와 달리 한인은 별도로 조계 영역을 벗어나 한인정(韓人町)으로 지칭하는 거주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개항장 조계 내 거주하던 일부 한인들은 강제 이주가 시행되기도 했다⁴⁸⁾. 조선인들은 평지의 원도심이 아닌 오늘날의 선양동·개복동 등 주변부의 구릉지에 거주해야만 했다⁴⁹⁾. 일제가 1938년 발표한 ‘군산시가지계획’에 따르면 항구 인근의 영화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행정기능을 집중시켜 조계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도시계획의 결과물로서 형성된 오늘날의 군산 역시 그 연구 가치가 높다.

3.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군산의 주요 시설물

1) 해망굴

일본이 군산 도심에 남긴 대표적 토건 유산으로는 해망굴을 뽑을 수 있다. 해망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1926년에 일제가 축조한 터널로 군산 시내에 위치한 월명산 자락을 관통한다. 이 터널은 항구가



그림 3 군산 해망굴/
국가문화유산포탈

위치해 수산업의 중심지였던 해망동과 과거 군산의 중심지였던 중앙로를 연결한다. 일제강점기 시대 중앙로에는 군산신사, 신사광장, 공회당, 안국사(현재의 흥천사) 등이 위치해 있어 종교적 장소성의 측면에서 이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여러 도시 정비 공사가 진행되었고, 해망굴 역시 후술할 1926년의 제3차 축항공사 과정에서 항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임피역사

임피면 술산리에 위치한 임피역사는 1936년 경 군산선의 철도 역사로 건립된 건물로 2005년 11월 11일 등록문화재 208호로 등록되었다. 일제강점기 군산선은 1912년에 시작된 이래로, 호남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중요 교통 통로로 사용되었다. 군산선은 주요 농장이 있는 곳에 역을 만들고, 군산 내항의 깊숙한 곳까지 철도를 놓아 항구와 철로를 연결했다. 임피역은 인근 가와사키 농장과 조선인 장영규가 운영하던 농장의 쌀들을 군산 내항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옮기고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⁵¹⁾ 실제로 군산선의 화물목록을 보았을 때, 1910년부터 1935년까지의 화물의 81%, 그 중 1926년의 경우는 전체 화물의 98.3%가 쌀이었다고 한다.⁵²⁾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지어진 철도역사 건물들의 규모와 건축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임피역은 그

47)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2), 183~184쪽.

48) 박성신, 2018, 위의 논문, 189~190쪽.

49) 군산시사편찬위원회, 2000, 『군산시사』, 428쪽.

50) 최진성, 2021, 「근대이행기 군산 원도심의 종교적 장소성」, 『기전문화연구』, 42(2), 75~105쪽.

51) 문화재청, 2012,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전라권」, 전라도 닷컴, 63~64쪽.

52) 문화재청, 2012, 위의 책, 64쪽.

중 192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단순화된 양식을 갖는다. 벽체의 구성을 단순화시키고 건물 정면의 삼각형 박공면 만을 두드러지게 계획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제적으로 손쉽게 축조할 수 있는 단순화된 양식이다.⁵³⁾ 이런 양식이 반영되어 임피역의 벽체는 목조로 만들었고, 외벽에는 페인트로 마감했으며, 지붕에는 슬레이트를 얹었다. 임피역은 당시 농촌지역 소규모 간이역사의 전형적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며, 원형 또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에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군산내항(부잔교)

군산의 개항이 결정된 것은 1898년 5월 26일이었다. 국가의 재정이 어렵다는 중추원의 의견과, 항구를 열기보다는 스스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업을 진흥시키며, 자국의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독립신문의 사설 등 반대 공론에도, 군산은 의정부의 다수결을 통해 개항이 결정되었다.⁵⁴⁾ 고종은 당시 청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서구 열강이 곧 조선까지 오리라 생각했고, 그 대비로 침략에 앞서 개항장의 숫자를 늘리고 각국 조계지를 만들어 열강들 사이의 견제와 세력균형을 취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⁵⁵⁾ 하지만 당시 이미 밀무역을 행하고 있던 일본의 끊임없는 개항 요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1899년 5월, 군산이 각국 조계지로 개항된 이후, 밀려드는 화물선으로 인해 군산항의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당시 항만 운영 주체였던 각국 거류지회에서 조선 정부에 건의하며 제 1차 축항공사(1905~1910)가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총 4차까지의 군산항 축항공사가 진행되었고, 군산내항은 근대적 항구로 나아갔다. 제 3차 축항 기념행사(1926)에는 사이토 마사코 총독이 참석하여, ‘쌀의 군산’이라고 감탄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군산의 장미동(藏美洞)이라는 이름도 쌀이 쌓여있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제 3차, 4차 축항공사 동안 부잔교(뜯다리 부두)가 설치되었다. 부잔교는 항시 대형선박의 접안을 위해 건설되었고, 뜯다리와 부유식 함체로 구성된다. 3차 때 3기, 4차 때 1기가 설치되었고 당시 군산항에는 이를 통해 1933년에 920척의 선박이 출입했으며, 3천 톤급의 기선 6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었다.⁵⁶⁾ 현재는 일부가 멸실되어 제 3차 축항공사 때 설치되었던 3기의 일부가 현존하고 있다. 부잔교는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항으로써 군산항의 특수성과 근대 항만의 보편성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19호로 등록되었다⁵⁷⁾.



그림 4 군산 뜯다리 부두 / 투데이 군산



그림 5 임피역사 / 동아일보

53) 문동신, 2007, 앞의 책, 59~61쪽.

54) 진용선, 2017,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3쪽.

55) 진용선, 2017, 위의 논문, 12~14쪽.

56) 문동신, 2007 앞의 책, 64~65쪽.

57) 송석기, 2022, 「군산 내항의 초기 형성 과정 연구 - 축항 공사 관련 지도 및 도면 자료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4(4), 47~54쪽.

4. 광복 이후 군산의 변화와 현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향하는 조선의 창구 역할로 번성했던 군산의 입지는 해방 이후 다시 변화하게 된다. 일제에 의해 계획도시로 발전해 번성했던 군산의 입지는 광복 이후 일본인들의 유출로 쇠락하고 만 것이다⁵⁸⁾. 구도심에 해당하고 행정,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던 영화동 일대의 공동화에 이어,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 시설 조성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축선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서 발전의 중심에서 밀려난 군산은 21세기에 들어서서야 군산·장항 산업단지의 조성 및 새만금 방조제의 건설로 다시 기회를 잡은 상황이다.

군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군산의 교통망 또한 변화를 거듭했다. 일제강점기의 군산이 호남 각지의 미곡을 철도로 수송한 뒤 일본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던 ‘쌀의 도시’였다면⁵⁹⁾, 해방 이후의 군산은 더 이상 독자적 경제 권역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한 의존·연계성이 강화되었다.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2008년 장항선·군산선의 직결로 인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물론 군산이 표면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역의 영세한 산업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금강 유역으로 해수가 역류하여 농지에 염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뒤따르자 1990년 건설된 금강하굿둑은 안 그래도 철도의 등장으로 쇠퇴하고 있던 강경-군산 금강 내륙 수운에 치명타를 입혔다⁶⁰⁾. 또 군산에 대규모 공업 단지가 세워지고, 새만금방조제 건설 등 대규모로 간척 사업이 진행되어 가자 이는 군산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던 수산업의 쇠퇴를 불러왔다. 폐수의 유입과 갯벌·어장의 축소로 인해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이 날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⁶¹⁾. 이처럼 해방 이후 군산은 대외적 환경과 그에 연동된 교통망의 변화로 지역 경제·산업에 있어서 부침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군산의 지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 대내·대외 교통의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주요 변수 역할을 해왔다. 군산이라는 도시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군산이 어디와 연결되었는지 교통을 살펴본다면, 군산의 과거 유적뿐만 아니라 군산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훌륭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방동인, 음성직, 1995, 「교통(交通)」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최완기, 1995, 「조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한주성, 손승호, 1995, 「군산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종규, 2003, 『군산 답사 여행의 길잡이』, 나인.
- ❖ 박종현·이채성, 2004,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바탕으로 한 전통도시와 일제강점기의 신도시들 간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4(2)

58) 박종현·이채성, 2004,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바탕으로 한 전통도시와 일제강점기의 신도시들 간의 도시공간구조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4(2), 893~894쪽.

59) 최진성, 2021, 「근대이행기 군산 원도심의 종교적 장소성」, 『기전문화연구』, 42(2), 82~83쪽.

60) 이용상·정병현, 2021, 「강경의 철도부설과 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24(3), 303~312쪽.

61) 홍현표·김정봉·주문배·정명생·김대영, 2007, 「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40쪽.

- ❖ 문동신, 2007, 『근대 문화의 도시 군산-근대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 문화체육과
- ❖ 문화재청, 2012,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전라권』, 전라도 닷컴
- ❖ 진용선, 2017, 「일제강점기 식민지 유적을 활용한 군산 지역사 학습방안」 군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양은정·박소현, 2017, 「군산시 원도심에 관한 계획방식의 변화와 특성」,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5호
- ❖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内)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2)
- ❖ 최진성, 2021, 「근대이행기 군산 원도심의 종교적 장소성」, 『기전문화연구』, 42(2)
- ❖ 김민영, 2021, 「군산 개항 120년(1899-2019), 주요 관련 자료와 활용 방향」, 『한국도서연구』, 33(3)
- ❖ 송석기, 2022, 「군산 내항의 초기 형성 과정 연구 - 축항 공사 관련 지도 및 도면 자료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4(4)

1. 군산지역의 문학 활동

1) 해방 전후 군산지역의 문학 활동

군산은 해방 전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근대 매체가 발행된 곳이다. 1899년 5월 일제가 호남지방의 미국 수탈을 위해 군산항을 개방하면서, 각국공동거류지가 설정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했기 때문이다.⁶²⁾ 이에 따라 문예활동도 빠르게 일어났는데 문예운동에 가담한 청년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가 출범하고, 잡지가 발간되었다. 한 예로 군산 문우회(文友會)는 1923년 기관지 효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1920-30년 당시 군산에서 활동했던 문예 단체가 10여 곳에 이르렀다는 점은 해방 전 군산지역의 문화적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⁶³⁾

해방 후 군산에서는 신문이 연달아 창간되고, 이들 일간지가 지역문화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지역문화계는 활기를 띠었다. 특히 문단에서는 채만식, 이근영, 차칠선 화단에서는 하반영, 홍건직 등이 군산에 머무르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48년 김호연, 이병훈, 이병권 등 젊은 문학도들이 주축이 되어 군산문학인 협회를 결성하는데, 이 단체는 『군산민보』를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시화전, 백일장 공모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 문단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⁶⁴⁾

2) 토요동인회

전쟁이후 피난 문인과 향토 예술인들이 합쳐지면서 군산에는 새로운 문학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당시 피난문단의 거점인 개복동 비둘기다방과 시청 앞 전원다방에 모여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문학적 친분을 이어갔다. 군산 지역 문인들은 전주에서 발행한 신문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태백신문』의 신석정, 『전북일보』의 백양촌이 문예담당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 문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 기획란을 통해 이병훈, 김영협, 정연길, 송기원, 고은 등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한편 이 무렵 군산에서 송기원과 정운봉이 만나 문학동인회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는데 그것이 1953년 6월 토요동인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토요동인회는 1958년 9월까지 5년 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시화전 7회, 비평회 30회, 문학강연 1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병기와 신석정, 김수영 등을 초청하여 시문학 강연회를 가지는 등 전국 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주도하기도 하였다.⁶⁵⁾ 토요동인회는 모임을 주도하던 회원 일부가 타지로 떠나면서 해산되었으나, 당시 동인으로 활동한 신인들이(원형갑,

62) 손승호, 2010, 「군산항(群山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23:09).

63) 황태목, 2018,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군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양상 고찰 - <토요동인회>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32호, 309쪽.

64) 황태목, 2018, 위의 논문, 311쪽.

65) 황태목, 2018, 위의 논문, 318쪽.

고은, 이병훈, 김신웅 등) 중앙문단에 대거 등단하는 성과를 낳았다.

3) 군산 문인의 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항장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활발하게 이어진 지역문예단체의 영향으로 군산은 한국 현대문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이다. 이에 2017년 군산시는 예산 7억 원 가량을 들여 군산 문인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진포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새들공원 입구까지 약 250m 담벼락에 조성한 거리에는 소설가 채만식을 비롯한 고현, 김기경, 이병훈 등 군산 출신 문인 9명의 작품이 벽화와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인 군산 출신 작가로 알려진 채만식 이외에도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군산 출신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형물로 조성된 일부 공간은 동시에 시민 쉼터로도 운영되고 있다.



그림 6 문인의 거리 작품 / 투데이 군산



그림 7 군산 문인의 거리 / 투데이 군산

2. 채만식

1) 채만식의 생애

1902년 전라북도 옥구⁶⁶⁾ 출생의 채만식은 일제강점기 「탁류」, 「레디메이드 인생」, 「인형의 집을 나와서」 등을 저술한 소설가, 극작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채만식은 1924년 단편 「새길로」로 문단에 데뷔한 뒤 290여 편에 이르는 장편·단편소설과 희곡·평론·수필을 썼고, 특히 1930년대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당시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되어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농민의 궁핍,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 후의 혼란상 등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그 근저에 놓여 있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⁶⁷⁾ 그러나 채만식은 1942년 조선문인협회가 주관한 순국영령방문행사에 참석하고, 1943~1944년에 산문 소설을 통해 징병, 지원병을 선전, 선동했으며 친일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채만식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66) 본래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이었는데,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뒤 757년(경덕왕 16) 옥구현(沃溝縣)으로 개칭되었다. 1906년 옥구부로 승격하였다가 군산부가 창설됨에 따라 군산부에 편입되었다. 옥구군은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시 인구는 약 69,000명으로, 군산시와 통합되어 새로운 군산시가 되었다. 김창겸, 1998, 「옥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667> (2022.09.17. 20:39).

67) 이주형, 1995, 「채만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1%84%EB%A7%8C%EC%8B%9D&ridx=0&tot=14> (2022.09.17. 20:47).

제2조 제11·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7: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02~639)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⁶⁸⁾

2) 「탁류」 속 시대상과 군산

1937년 10월 12일부터 익년 5월 17일까지 198회에 걸쳐 발표된 연재소설 「탁류」는 저자의 설정에서와 같이 어떤 특정 시기의 습속이나 세태를 그린 소설이지만 「탁류」의 장소들은 숫자가 아닌 실제 이름이 사용되며, 사물의 재배치를 통한 장소화가 잘 묘사되어 있기에 일종의 지역소설이라 볼 수 있다.⁶⁹⁾ 따라서 「탁류」의 장소 요소들을 통해 배경으로서 금강과 군산의 식민 도시의 경제와 도시구조의 이중성의 의미와 장소에 종속된 조선인들의 삶의 생활상과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 「탁류」에서 묘사된 금강은 군산에 앞서 소설의 맨 처음에 제시되는 장소로 소설 전체를 주관하는 의미와 상징적 키워드인 ‘탁류’의 상징이다. 민족의 역사상인 맑은 금강의 흐름이 그 끝자락에서 혼탁해지는 뱀물의 탁류가 되어 있음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현실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금강은 일제의 식민도시 군산과 만나며 기존 조선의 장소성이 상실되고 일제의 식량기지의 출구인 이익과 수탈의 장소성으로 반전된다.⁷⁰⁾ 「탁류」의 대표적인 무대이자 장소인 군산은 항구 도시로 일제강점기에 급속히 발전한 근대 식민도시로 쌀의 소유를 통한 빈부격차, 두루마기와 양복, 위생과 불결, 가난과 부자 등 근대화되어가는 군산에서 혼재되고 혼종된 물결이 생활세계에 이미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⁷¹⁾ 개항과 동시에 군산은 일본인, 조선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민족과 지역이 분화되는 도시구조의 이중성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다. 쌀이 만들어낸 항구 도시 군산은 ‘쌀의 군산’으로 장소성을 갖지만 이러한 풍요로움이 오히려 군산으로 이주한 국외자들에게는 끼니 때우기가 힘들어 굶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궁핍의 군산’이라는 이중적인 장소성이 소설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⁷²⁾ 이와 같이 소설 「탁류」는 금강과 군산이라는 장소를 통해 암묵적으로 역사성과 당대의 혼탁성을 드러내면서 1930년대의 타락한 세태와 몰락하여 가는 계층의 운명을 극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주인공의 비극적 생애를 통해 민족의 역사적 운명과 당위를 암시하고 있다.⁷³⁾

3) 채만식 문학관

소설 「탁류」의 배경인 금강변에 위치하여 정박한 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채만식 문학관은 2001년 군산시가 채만식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문학관이다. 2층으로 이루어진 160여평 규모의 문학관은 전시실과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에서는 「배비장」의 육필원고, 사진자료, 편지, 졸업증명서 등과 채만식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전시되고 있고, 자료실에는 채만식에 관한 각종 논문과 채만식 발간도서가 비치되어 있다.⁷⁴⁾ 또한 2층의 50석 규모의

68) 이주형, 1995, 위의 자료.

69)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권 2호, 한국지리학회, 238쪽.

70) 박철웅, 2021, 위의 논문, 243쪽.

71) 박철웅, 2021, 위의 논문, 245쪽.

72) 박철웅, 2021, 위의 논문, 250-252쪽.

73) 이주형, 2001, 「탁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3%81%EB%A5%98&ridx=0&tot=4> (2022. 09. 17. 21:43).

74) 이병순, 2012, 「채만식문학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1%84%EB%A7%8C%EC%8B%9D%20%EB%AC%B8%ED>

영상세미나실에서는 오페라 탁류 및 채만식의 일대기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채만식 문학관 주변은 콩나물 고개를 상징하는 둔땀이 오솔길, 호남평야에서 걷어 들인 쌀을 실어오는 기찻길 등 시대를 형상하며 작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미두, 백릉, 청류 등의 문학광장이 마련되어 있다.⁷⁵⁾

참고문헌

- ❖ 손승호, 2010, 「군산항(群山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황태목, 2018, 「한국전쟁기와 1950년대 군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양상 고찰 - <토요동인회>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32호
- ❖ 정영욱, 2022.08.11., 「[군산을 걷다 #82] 새들공원과 군산문인의 거리」, 투데이군산
- ❖ 김창겸, 1998, 「옥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주형, 1995, 「채만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권 2호
- ❖ 이주형, 2001, 「탁류」, 한국민족대백과사전
- ❖ 이병순, 2012, 「채만식문학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5%99%EA%B4%80&ridx=1&tot=14 (2022.09.17. 20:17).

75) 이병순, 2012,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산 종교

21 남에서, 21 변에는

1. 기독교(Christian religion)

1) 천주교의 유입

천주교는 18세기 말부터 전북지역에 유입되고 전파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전에도 많은 교인들이 전 북지역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전라도 산간 지역에 이룬 교우촌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허용되자 천주교회와 교인들이 전라도 평야 지역으로 이주 및 확산되었다. 새롭게 개항된 전남의 목포는 교통과 통신에 유리하여 본당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기에 매력적인 공간이었기에 천주교 본당이 설치되었다.⁷⁶⁾ 하지만 똑 같이 개항된 전북 군산에는 천주교의 본당이 바로 건설되지는 않았다. 군산의 첫 천주교 본당은 1929년에 설립되었다. 이는 전북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히 많은 천주교도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군산 지역 선교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⁷⁷⁾

2) 개신교의 유입

개신교는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선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미국이었다. 특히 이들은 서구 의학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던 조선에서 의료와 교육을 통해 선교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자 했다.⁷⁸⁾ 다양한 개신교 교파가 선교를 위해 조선으로 오자 교파들은 갈등을 막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892년 미 감리회와 남장로회 사이에 맺어진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선교 지역을 나누었다. 1893년 장로교연합선교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회 간의 선교지역 분배가 논의되는데, 의 논의의 결과로서 남장로교 선교회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게 된다. 남장로교는 7명의 선교사를 남장로교의 선교지역인 전라도로 파견하여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1894년 선교사 레이놀즈는 미국에서 합류한 의사 아다머 드루와 함께 전라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부를 건설할 만한 곳을 사전에 둘러본 후, 군산에 선교부를 건립하기로 결정한다.⁷⁹⁾ 군산에 선교부가 개설된 것은 군산이 전주의 관문 역할과 주변 섬과 오갈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로를 통한 교통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일본 기독교 역시 20세기 초반 군산 및 목포에 진출하였다. 일본 이주민의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일본인 목사가 운영하는 전도교회가 1908년 8월 군산 신흥동에 세워진다. 한국인을 선교 대상으로 했

76) 최진성, 2007, 「장교의 장소성과 선교전략: 일제강점기 목포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9.

77) 권의석, 2021, 「호남 지역 외래 종교의 유입과 개항장의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24권 제 2호, 10쪽.

7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1, 『한국기독교의 역사1』, 기독교문사.

79)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11~12쪽.

80) 이재운 외 1명, 2014, 「군산선교부에 대한 연구」, 『역사와 실학』 제 55권, 역사실학회, 86~287쪽.

던 다른 서양 선교사들과 달리 일본 기독교는 재한 일본인을 우선적인 선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⁸¹⁾

현재 군산 지역의 개신교 교회 수는 약 600여개이며, 41개 교파가 다양한 모습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장 큰 교단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으로 150여 교회가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 군산에 개신교를 처음 전파한 선교사들이 미국 남장로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합동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는 개복 교회, 구암 교회, 드림 교회, 군산 중앙 교회 등이 있다.



그림 8 구암교회

3) 기독교와 3.1운동

군산은 한강 이남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남부지방에서는 5일부터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군산이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호남지역에서는 일본에 의한 농민의 착취가 타 지역보다 극심했다. 호남지역 농민들은 일제의 무단 통치와 수탈에 반발하여 생존권 수호 투쟁 차원에서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군산에서의 만세운동을 계기로 전북지역의 여러 곳에서 만세운동이 이루어졌기에 군산의 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⁸²⁾

군산 3.5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는 박연세,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김성은 등이 있다. 이들은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 구암교회 교인과 예수병원 직원들이었다. 영명학교와 예수병원은 당시 군산에서 활동하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곳이기에, 군산의 3.5운동은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3.1운동 계획은 종교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군산지역 역시 종교인과 학생들이 3.1운동을 이끌었다. 이처럼 종교계와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체가 된 것은 당시 일제에 의한 사회단체의 해산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로 다른 조직이 없었으며 독립 운동가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나갔기에 국내의 조직적인 힘은 종교단체와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81)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11~14쪽.

82) 김종수, 2015, 「호남지역의 3.1운동」, 『군사연구』 제139호, 125~126쪽.

다. 특히 개신교는 이미 전주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 군산의 영명학교 등을 설립한 상태였기에 그 학교들이 3.1운동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⁸³⁾

2. 불교



그림 9 금강사

사의 자리에 정식으로 사찰을 지었다. 전쟁 직후 1955년 사찰의 이름을 ‘동국사’라 바꾸기 전까지 동국사를 부르는 사찰의 옛 이름은 ‘금강사’였다.⁸⁵⁾ 일본인들은 개항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한국에 약 5백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였는데, 금강사는 그 중 현재 유일하게 사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체, 요사채, 종각 모두 완벽하게 남아 있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⁸⁶⁾

83)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3, 12~13쪽.

왕문이나 일주문이 없고,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사찰 앞마당에 바로 진입한다. 입구 양쪽에는 대리석 돌기둥이 서 있는데, 한 쪽에 ‘소화 9년(1934년) 6월 길상일’이라는 음각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앞마당 앞에는 금강사 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웅전이 있다. 일본의 해양성기후에 맞춘 형식으로, 비가 많이 내려도 고이지 않는 형태이다. 이는 에도시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사에는 한국 사찰에서 항상 마주할 수 있는 단청도 없다. 벽에 장식이나 문양, 벽화도 없다. 대웅전 뒤로는 사찰을 지을 때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대나무로 조성한 숲이 울창하다. 대웅전 옆의 범종각과 석조 불상도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승려와 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전통불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금강사

금강사의 1대 주지 내전불관의 주요 포교 대상은 군산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었다. 당시 금강사는 일본인 위주의 사찰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사찰 운영 방침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찰 운영 방침의 내용에는 군산에서 쌀을 수탈하는데 앞장선 일본인 신도들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것, 일본 천황에게 충성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교 활동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쌀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다.⁸⁸⁾

금강사의 2대 주지였던 나가오타 겐테이(長岡玄鼎)가 쓴 당시 명문에는 “우리들은 함께 일한 병합을 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평화의 아름다운 시대에 이르렀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이다”라고 적혀 있어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가 조선 합병을 위한 침략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⁹⁾

금강사의 3대 주지 아사노 테츠젠의 불교관은 일본 불교의 전통 불교관인 호국 불교관이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일제의 침략 정책을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침략 불교관이 자리했다. 그는 일왕의 종전 선언 역시 적극 지지하였다. 일제의 대외 정책이 침략 정책이라는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한 것이다. 자비와 평화를 실천해야 하는 불교 승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침략 정책을 칭찬하고, 일본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했으며, 침략 정책 정점에 있었던 일왕을 찬양했다. 아사노 테츠젠이 사망한 이듬해인 1981년에 조동종 승려들은 앞의 내용들이 담긴 시계집을 간행했다. 이는 조동종 승려 대다수가 해방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제의 침략 정책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⁰⁾

3.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東學)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종교이다. 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동학을 제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칭한 종교이다.⁹¹⁾

88) 김두현, 2015, 『군산 금강사(해방이후 동국사) 창립자 內田佛觀의 이력과 포교 활동』, 『일본불교문화연구』, 13호, 79~133쪽.

89) 강석훈, 2022.9.14.,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된다] 일본의 참회가 담긴 곳, 군산 동국사」,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220914580115>, (2022.09.18.16:17).

90) 김두현, 2021, 『군산 금강사 3대 주지 아사노 테츠젠(淺野哲禪) (1897~1980)의 사회·종교 활동과 시국 인식 - 굴곡여운 속 시계 분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호, 277~309쪽.

91) 김일기·이영화, 2009, 「천도교(天道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2%9C%EB%8F%84%EA%B5%90&ridx=0&tot=1325>

천도교는 기독교와 함께 전라북도 3.1 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제의 전라북도 지역 수탈은 군산의 개항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0년간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배는 1919년 3.1운동이 전라북도 전지역에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 지역은 1894년 농민전쟁의 본산지로 이후 천도교가 조직적으로 확대되었다.⁹²⁾

참고문헌

- ❖ 최진성, 2007, 「종교의 장소성과 선교전략: 일제강점기 목포를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19
- ❖ 권의석, 2021, 「호남 지역 외래 종교의 유입과 개항장의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24권 제 2호
- ❖ 이재운 외 1명, 2014, 「군산선교부에 대한 연구」, 『역사와 실학』 제 55권
- ❖ 김종수, 2015, 「호남지역의 3.1운동」, 『군사연구』 제139호
- ❖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3.
-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1, 『한국기독교의 역사1』, 기독교문사
- ❖ 김일기·이영화, 2009, 「금강사(金剛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두현, 2015, 『군산 금강사(해방이후 동국사) 창립자 內田佛觀의 이력과 포교 활동』, 『일본불교문화연구』 13호
- ❖ 강석훈, 2022.9.14.,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뵈다] 일본의 참회가 담긴 곳, 군산 동국사, 전북일보
- ❖ 김두현, 2021, 『군산 금강사 3대 주지 아사노 테츠젠(淺野哲禪) (1897~1980)의 사회·종교 활동과 시국 인식 - 굴곡여운 속 시계 분석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호
- ❖ 김일기·이영화, 2009, 「천도교(天道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57

(2022.09.18.16:17).

92)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제57호, 5~34쪽.

군산의 개항과 도시건설

중어중문 20 윤예인, 21 이재진

1. 군산의 개항

군산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조선 시대부터 연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면서 풍부한 쌀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⁹³⁾ 옛 군산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강경시장까지 금강을 왕래하던 상인들의 기류지이기도 했고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군산의 무역 잠재력과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 정부와 관세수입 증대를 원하는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얹혀 군산은 광무3년 1899년 5월 1일에 개항했다.⁹⁴⁾ 군산은 충청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금강 등과 연결된 하천으로 공주 및 전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미곡을 저장하는 군산창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⁹⁵⁾

군산의 개항기는 1899년 개항부터 조계가 철폐된 1914년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899-1903년 개항부터 러일전쟁 전까지 조계 형성기로, 「한국안내(韓國案內)」에서 다루는 시기이다. 제2기는 1904-1908년으로 전군가도(全群假道) 개통 등 도로 및 항만의 정비 시기이고, 제3기는 1909-1914년으로 철도의 개통 등 도시계획적으로 근대도시의 틀이 완성된 시기이다. 이후 군산은 1945년까지 근대도시로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고밀도화되었다.⁹⁶⁾

군산 개항의 특징은 개항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조약국이 일본이었다는 점과 군산 조계의 외국인 거주자 중 일본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개항 첫 해인 1899년 말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20가구, 77명이었으나 1903년에 이르러서는 1200명을 넘었고,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1910년 말이면 3400명을 넘어서게 된다. 군산 개항장에 일본인의 진출이 활발했던 것은 기타 외국인의 유입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교역국 중 하나인 청 상인의 교역활동이 청일전쟁 이후 한동안 침체되었기 때문이다.⁹⁷⁾ 개항 이후 쌀의 집산과 일본 상품의 거래 또한 군산지역 내 일본인 수의 증가를 야기했다. 군산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으로 인해 군산에는 이미 일제 침략 초기인 1900년대 초부터 대규모 일본인 농장과 대단위 간척농장이 만들어져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군산의 평야 토지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지배를 강화하고 쌀 수탈에 앞장섰다. 또한, 원활한 농업 수탈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확충하고 수리관개시설 및 철도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군산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이 새로이 조성되고 정비되었다.⁹⁸⁾ 본인의 농지와 토지 침탈, 쌀의 대외 유출 심화, 일제에 의한 유통권 변화 등으로 인해 조선 상인은 몰락했고 조선 농민들은 고통받았다. 일본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군산은 일본인과 조선인, 제국주의 신민과 식민지인이라는 분할된 사회 공간 속에서 구획, 조직, 통제되

93) 권의석, 2021, 「19세기 후반 호남 개항장 설정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관계」, 『역사와 세계』 제59집.

94)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권2호, 188쪽.

95)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278쪽.

96) 박성신, 2018, 앞의 논문, 188~189쪽.

97) 권의석, 2021, 앞의 논문, 283~284쪽.

98) 김민영, 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제8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춘계학술대회』, 8쪽.

었다. 1912년 호남선과 만나는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한국 전체의 쌀 수출량 20% 이상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국의 병참기지화 이후 군산과 이리를 잇는 군산선이 군산역에서 군산항까지 이어지면서 항구와 철도의 교역장소인 군산의 선창은 날로 번잡해졌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군산은 전략적 수탈 정책으로 생성된 장소이자 농업 수탈의 기지로서 기능하며 일제의 통치기간 동안 개발과 수탈의 이중적 길을 걷게 되었다.⁹⁹⁾

수탈한 자원의 본국 수송을 목적으로 개항된 대표적인 도시인 군산은 이러한 개항을 바탕으로 근대적 도시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조계지가 설치된 군산은 전북, 충남 지역에서 수탈한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전진기지로 발전하였다.¹⁰⁰⁾

연도	수출량	연도	유출량
1899	8,191	1905	362,911
1900	74,812	1906	641,255
1901	259,011	1907	1,917,262
1902	311,124	1908	1,833,392
1903	842,192	1909	2,049,530
1904	417,330	1910	2,210,156

군산부의 연대별 미국 수출량¹⁰¹⁾

2. 도시건설



그림 10 군산항도

군산항이 쌀 반출항이 되어 식량공급기지로 기능할 무렵, 일제의 식민지공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인 한국을 식량이나 원료의 공급기지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공업화와 함께 추진되어 온 식민지 도시는 일제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고 개발되면서 착취의 전진기지 또는 대륙침략의 발판이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도시화는 식민지 착취를 위한 적합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 식민지 도시의 역할은 군산항에도 적용되었다.¹⁰²⁾

군산이 1899년 개항한 이후 각국 조계장정에 의해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됨으로써 군산은 식민지 근대도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군산은 개항과 동시에 감리서, 경무서, 재판소, 세관, 우체사, 천신사 등을 설치하였으며 일본 또한 군산에 목포 일본 우체국 군산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일본전관조계나 다를 바 없는 외국 영사관 또한 설치되었다.¹⁰³⁾ 군산이 언제부터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지는 이견이 있다. 하시아 히로시의 식민지 도시 유형 분류에 의하면 군산은 전형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형성된 도시’

99) 전영의, 2022, 「일제 강점기 개항장의 도시화 과정과 식민지 근대화의 이중성」,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6(3), 81쪽.

100) 류광남, 2002, 「근대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군산 도시조직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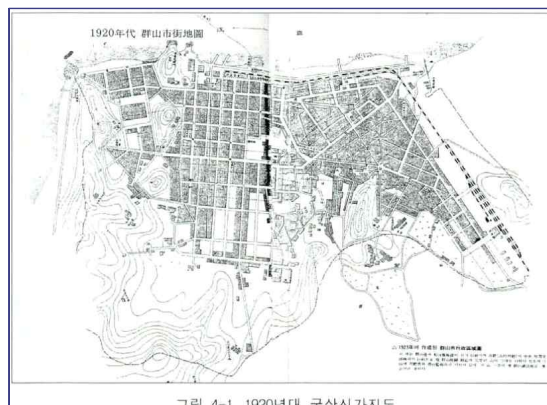
101) 류광남, 2002, 위의 논문, 11쪽.

102) 김민영, 2019, 앞의 논문, 8쪽.

103) 박종현, 2006,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군산은 개항 전부터 전라도 지역의 공미가 집결되던 활기찬 곳으로, 군산의 내적 발전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현물에 의한 세납제도가 폐지되고 금전 납부로 결정됨에 따라 군산이 조운의 기능을 상실하여 쇠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이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⁴⁾ 조계장정 1조에서 항구와 관련된 건설과 유지관리는 한국정부가 담당하고 조계 내 토지 정지, 도로 및 구거의 관리는 조약국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영구임차 형식의 각 국공동조계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류지 내 일본인이 주류를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거류민회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각종 건설과 개발을 추진하여 일본인 주도의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다. 군산의 근대도시화에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¹⁰⁵⁾

일제에 의해 1906년 한국대지도의 군산항도에는 당시 일본 영사관 부지와 기타 건물들의 위치가 그려져 있으며, 격자형의 도로와 일본인들의 주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면을 수직으로 1조통에서 9조통까지 배열되어 있다는 점, 영사관 및 경찰서 등 관청가를 중심으로 1조, 2조 등의 가로명이 붙었다는 점 등은 일본의 도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⁶⁾ 즉, 이는 군산 도시의 형성은 일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14년 군산은 시가지로 축소되는 변화를 겪는데, 이는 결국 군산이 근대적 도시로서 완전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게 하였다. 이후 군산에는 가로와 철도가 개설되고 항만 시설이 들어섰으며 호남선 및 군산선 철도의 개통으로 미곡 운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¹⁰⁷⁾



108)

그림 11 1920년대 군산 시가지도

1920년대 군산 시가지도를 통해 군산의 시가지가 동서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관리 역할을 한 근대적 통치기구와 시설의 경우 북정구와 본정통 일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전주통의 서쪽에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학교 등의 근대 교육 시설 또한 해당 지역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4) 이성호, 1998,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화연구』 1권0호, 183~184쪽.

105) 박성신, 2018, 앞의 논문, 189~195쪽.

106) 박종현, 위의 논문, 26쪽.

107) 박종현, 위의 논문, 26쪽.

108) 박종현, 위의 논문

참고문헌

- ❖ 이성호, 1998, 「식민지 근대도시의 형성과 공간 분화 -군산시의 사례」, 『쌀.삶.문명연구』 1권0호
- ❖ 류광남, 2002, 「근대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군산 도시조직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박종현, 2006, 「일제신도시 공간구조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內)」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권2호
- ❖ 김민영, 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제8회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춘계학술대회』
- ❖ 권의석, 2021, 「19세기 후반 호남 개항장 설정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관계」, 『역사와 세계』 제 59집
- ❖ 전영의, 2022, 「일제 강점기 개항장의 도시화 과정과 식민지 근대화의 이중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3)

군산의 미곡수출과 도시팽창

20 손상윤, 아동가족 18 전서립

군산은 1899년 일본에 의해 개항되어 독특한 식민지적 사회경제구조를 형성했던 지역이다. 쌀의 집산과 일본 상품의 거래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 결과 1934년 당시 인구가 36,959명에 이르는 큰 도시가 되었다. 이는 도청소재지인 전주보다 불과 700명 정도가 적은 숫자였다. 개항 이후 대한제국은 과거 행정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상업과 유통이 활발한 초기 산업구조의 수용이 가능한 근대도시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군산에서 생산된 쌀은 조선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타국의 이익을 위해 소비되었으며 군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만주에서 들어오는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으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해야만 했다. 군산은 개항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46년간, 일제가 자기 이익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다. 일제 지배 하의 군산은 일제의 토지점탈과 식민지 경영의 교두보로서 ‘일인도시’가 되어, 쌀의 집산과 수탈항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⁹⁾

1. 군산의 미곡수출

조선에서 쌀은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자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는 생활필수품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면서 미곡이 국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는데, 쌀의 수출로 조선의 재분배구조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890년 이후 쌀의 수출이 본격화되어 무역 전반을 좌우하게 되고, 갑오개혁 시기 전면적으로 실시된 조세금납화가 미곡의 상품화를 촉진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졌다.

개항 이후 군산미의 수출량은 러일전쟁 이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1910년대 말 기준 조선미 수출에서 군산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 정도이다. 군산미란 당시 통용되던 개념으로, 군산부내에서 생산된 쌀뿐만 아니라 김제, 익산, 옥구(임피) 등 배후지에서 생산되어 군산항으로 집결된 쌀 모두를 일컫는다.¹¹⁰⁾

군산이 미곡수출의 장이 된 배경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군산은 고려시대부터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평야의 미곡집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고려시대 992년(성종 11년)에 군산에는 조세·공물을 집산하는 전국의 12창 중 하나로 진성창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512년(중종 7년)에 군산창이 설치되어, 부근 지역의 관전세를 경창으로 수송하는 ‘칠읍경창’으로 일컬어졌다. 1652년(효종 3년) 대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군산에 호남청이 세워져 옥구·전주·금구 등 대동상납미를 집중 관리하게 되었다.¹¹¹⁾

군산이 이전부터 한국 제일의 곡창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해했다면, 근대 식민도시로서의

109) 김민영, 1996, 「1920, 30년대 군산(群山), 옥구지역(沃溝地域)의 식민지적 농업생산구조」, 지역개발연구 8(0), 237쪽.

110) 최은진, 2010,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42쪽.

군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산의 미곡 수출량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은 1890년대부터 쌀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미가가 계속 상승하였다. 그 해결을 위해 일본은 여타의 외국미보다 대용미로서 조선미 수입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군산미의 대일수출도 점차 증가하면서, 군산미가는 일본미가에 연동하여 동반 상승하였다. 일본미가의 변동은 군산미의 대일 수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1917년 이후 미곡가격 폭등으로 인한 일본 국내의 쌀폭동 해결하기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0년 산미증산계획을 세워 1935년까지 427,500정보의 토지를 개량하여 약 920만석의 미곡을 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익산, 군산, 옥구를 둘러싼 호남평야가 그 중심지가 되었다. 산미증산계획은 1929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 영향으로 미곡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일본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34년 5월 조선에서의 산미증산계획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39년의 조선의 대흥작과 1940년, 41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미곡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1940년 1월 「조선증미계획요강」이 다시 발표되어, 1945년 증산목표 수량은 583만석에 달하였다.¹¹²⁾

둘째, 군산미의 대일 수출량은 일본 내 군산미 소비 규모에 따라서만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재벌급의 미곡 수입상들에 의해서도 좌우되었다. 일본 정부가 대판·신포·동경 등 일본 대도시 내 대자본의 미곡 수입상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은 일본미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 무역상이 조선인 객주에게 의존하는 모양새였으나 점차 조선인 객주는 배제되었고, 일본인 상인은 직접 내륙지방을 거주하여 미곡을 수집하거나 지주 또는 농민에게 자금을 선대하여 미곡을 매입하였다. 러일전쟁 후 통감부기에는 일본인의 내륙 정주 상업의 발달, 일본 기선의 자유 항행, 철도 운송의 본격화에 따라 일본인 미곡상의 상권 지배력도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셋째, 삼정물산회사를 비롯하여 일본 대자본은 자국에서의 미곡 수입 및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선에 진출하여 조선미의 수출과 수집 모두를 장악해 갔다. 더욱이 동본합자회사 등 일본 대상인자본은 미곡 생산에까지 종사하였다. 군산항과 배후지는 일본인 ‘회사형 지주’의 농장이 대거 분포하며, 일본 대자본에 의한 미곡 생산, 수집, 수출 지배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곳이었다. 따라서 미곡 수출 거래상의 주도권은 국내의 미곡 수출상보다 일본의 미곡 수입상에게 있었다.

2. 군산의 도시팽창

청일전쟁 이후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군산항은 개항하기 전부터 조운의 중심지로서 군산창을 중심으로 미곡집산지였다. 개항이후 군산의 해안일대에 조계지를 설치하고 개항장을 관리하는 옥두감리서를 두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독점을 막기위하여 대한제국은 군산 조계지를 각국의 조계지로 정하였다. 1899년에서 1914년까지 존속되었던 조계지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가옥과 묘지는 철거되고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경매를 통해 거래되었다. 조계지는 조선시대 군산창과 군산진이 위치했던 군산내항 인근을 중심으로 동서 구릉지 사이의 평지에 격자형의 구조로 조성되었다. 군산진이 위치했던 자리에 일본 영사관을 두고 이곳을 중심으로 종으로는 1조통에서 9조통까지, 횡으로는 중심 간선도로에 본정통(현재의 해망로)이라는 일본도시의 가로명을 붙이며 도시를 형성해 갔

112) 강효숙, 2013, 「익산의 근대 식민도시 형성·발전에 관한 연구 - 철도, 도로, 산미증산계획을 중심으로-」,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과제 결과보고서.

다.¹¹³⁾ 이러한 조계지는 원형으로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본정통을 중심으로 관공서 및 은행, 회사 등,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형성되고 군산역 부근에는 정미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구가 형성되었지만 조계지 밖의 둔율동, 개북동의 산기슭에는 건설현장에서의 막노동과 군산항에 운바되어온 쌀의 하역작업을 했었던 조선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군산은 지배와 피지배, 개발과 미개발이라는 이중성을 가지며 확대되어 갔다.¹¹⁴⁾

군산개항 이후 일본은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설치하고 1906년 군산 이사청이 운영되며 군산에서 일본인들의 독점적 권력이 강화되었다. 개항초기 군산에는 행상이나 소매점과 같은 생계형 이주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후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농업경영자와 미곡상, 건축청부업자와 같은 사업투자형 이주가 주를 이뤘으며 1910년 강점이후 가족단위의 영구거주 역시 많아졌다. 또한 1930년대 군산부의 토지중 80퍼센트, 옥구지방의 농경지의 60퍼센트가 일본인 소유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지주들이 군산농사조합을 통해 대량으로 땅을 사드리고 간척사업을 통해 농장을 확대하기하면서 조선 농민들의 설자리가 사라져 갔고 대부분의 조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도시로 몰려갔고 토막집에서 살며 노동을 통해 생계를 잇는 빈민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군산은 토막민이 도시 면적비율로 보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¹¹⁵⁾ 이러한 이주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의 증가는 다양한 도시시설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1906년 옥구분과소(1908년 군산경찰서로 개칭), 1909년 금강쪽 해안을 매립하여 항만, 잔교 1912년 제 1수원지, 1913년 군산선 철도등 다양한 시설들이 일제강점기에 세워지게 된다.¹¹⁶⁾ 또한 수리조합을 통하여 군산에 저수지와 수리시설등을 정비하였다.

고려시대 때부터 미곡 유통의 중심지였던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일본의 쌀 부족문제, 호남 평야에서 나는 미곡, 그리고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유통에 편리한 지형이 합쳐져 군산은 일본의 주요 식민도시가 되었다. 1899년 군산에 개항이 이루어지고 군산 조계지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고 일본인 상인들이 군산인근에 토지를 구매하여 농장을 운영하며 일본에 유통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군산에는 군산내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철도와 항만과 같은 시설들이 세워지게 되었지만 일본인들의 토지 대량구매 때문에 도시로 몰려간 조선인들의 토막집들 역시 생겨나게 되는 이중적인 도시 확장이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 김민영, 1996, 「1920, 30년대 군산(群山), 옥구지역(沃溝地域)의 식민지적 농업생산구조」, 지역개발연구 8(0)
- ❖ 최은진, 2010, 「群山米의 대일 수출구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 ❖ 강효숙, 2013, 「익산의 근대 식민도시 형성·발전에 관한 연구 - 철도, 도로, 산미증산계획을 중심으로-」,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연구지원과제 결과보고서.
- ❖ 군산의 역사-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 ❖ 군산의 역사-군산시, <https://www.gunsan.go.kr/main/m348>.

113) 군산의 역사-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114) 군산의 역사-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115) 군산의 역사-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116) 군산시 군산의 역사, <https://www.gunsan.go.kr/main/m348>

소설 『탁류』와 식민지 시대 투기자본

20 박정원, 21 김예지

1. 소설 『탁류』

1) 작가 채만식

1902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출생한 채만식은 임피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제일와세다고등학교원을 거쳐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 등의 기자로 일했다. 1936년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창작 활동에 몰두했고, 1950년 이리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당시의 현실 반영과 비판에 집중하는데, 특히 일제 치하에서 궁핍한 농민의 삶, 지식인의 고뇌, 도시 하층민의 몰락, 광복 이후의 혼란 등을 그려냈다. 1940년 초반 이후로는 창작을 매개로 친일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광복 이후 자신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¹¹⁷⁾

2) 소설 개관

(1) 내용

채만식의 장편소설 『탁류』는 1937년 10월부터 1938년 5월까지 약 19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던 연재소설을 1939년 박문서관을 통해 출판한 작품이다. 초봉의 기구한 삶을 통해 당시의 현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태평천하』와 더불어 채만식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인물이 겪는 고난이 중심 서사이지만, 미두와 같은 당시 식민지 수탈을 보여주는 풍속과 연애관 등이 그려져 있다.

미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정 주사의 딸인 초봉과 계봉 중 초봉은 눈에 띄는 외모로 남성들의 눈길을 받는다. 가정 형편 때문에 약국 일을 하게 된 초봉에게 약국 주인인 박제호와 은행원이었던 고태수가 추근거리지만, 초봉은 젊은 의사인 승재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초봉은 결국 거짓 뒷배경을 믿은 부모의 주선으로 미두로 자산을 잃었던 태수와 사기결혼을 하게 된다. 이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초봉을 차지하려는 형보의 피로 인해 태수는 간통하던 여인의 정부에게 맞아 죽고, 같은 날 저녁 초봉은 형보에게 겁탈당한다. 무작정 서울로 향하던 초봉은 제호의 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초봉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딸을 낳아 송희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하지만 초봉에게 마음이 떠난 제호는 송희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형보에게 초봉과 아이를 넘긴다. 형보가 딸을 괴롭히자 형보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던 초봉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형보를 멧돌로 눌러 죽이지만, 계봉과 승재의 자수 권유에 결국은 자수를 결심한다.

117) 성주현, 2016, 「한국학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채만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1%84%EB%A7%8C%EC%8B%9D&ridx=0&tot=14>
(2022.09.18. 01:10).

(2) 평가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상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면모를 보임에도 『탁류』가 통속적인 대중소설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통속성과 함께 리얼리티를 갖춘 한국현대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비극적 운명 때문이다. 단순히 사랑으로 점철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낙관성이 사라진 비극적인 전개는 현실 반영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탁류』의 단행본 출간 직후 ‘재판 금지’ 조치를 내린 일제의 태도가 이를 입증한다. 그만큼 『탁류』가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탁류』는 식민지 현실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증언문학 또는 고발문학의 의미를¹¹⁸⁾ 갖기도 한다.

2. 당시(1930년대)의 상황

1) 세계

1930년 세계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대공황은 유럽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이뿐만 아니라 파시즘을 배경으로 한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출몰하며 1930년대 후반에는 세계대전이 또 다시 발발했다. 당시 조선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이 흐름에 편승하여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등 대외 확장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조선

일본의 대외 팽창 정책으로 조선 또한 영향을 받았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전시체제를 강화하였고,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폈다.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신사 참배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민족말살정책을 자행했다. 이 시기에는 항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그만큼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는 조선인의 수도 점점 증가했다.

3. 미두장

1) 개관

미두장은 『탁류』에서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정주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미두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미두장은 『탁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두(米豆)는 미두장의 준말로 현대의 선물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기 활동이다. 현재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의 쌀 가격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곡취인소 혹은 기미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¹¹⁹⁾ 미곡취인소, 즉 미두장에서 현물인 쌀 없이 3개월 단위의 매매 약속만으로 거래

118) 장미영, 2011, 「군산, 식민지 근대의 디스토피아 - 채만식 장편소설 『탁류』」, 『열린전북』, 제143호, 79~80쪽.

119)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249쪽.

되며 미두꾼은 미곡(米穀)의 시세 등락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¹²⁰⁾ 쌀의 시세가 한 석에 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두의 경우 10%의 가격인 30원만 담보 격으로 지불하면 되었기에 밀천이 없는 자작농들 또한 참여할 수 있었고, 이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선물거래 형식의 미두에 뛰어들게 된다. 1896년 일본인 가라이를 통한 인천미곡취인소 건립을 시작으로 조선에 미두가 뿌리내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두식 연거래의 매매 방식이 이전 군산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미두의 효시를 군산으로 보는 일각의 견해도 존재한다.¹²¹⁾ 인천미곡취인소를 설립하며 일본은 미곡 유통의 합리성과 표준화된 가격, 품질 개량 등을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실질적으로 미두는 일본으로의 쌀 반출 및 수탈에 큰 영향을 미쳤다.¹²²⁾

2) 미두와 군산

군산은 일본의 미곡 저장소로서 기능했다. 일본은 산지 국가로서 주식인 쌀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쌀 수입이 절실했다. 이에 군산 개항 이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군산의 도심 및 항구 주변 지역인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 일대를 중심으로 약 17만 평 이상을 조계지로 선정하였다.¹²³⁾ 이로 인해 군산 쌀의 상당수는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당시 군산항을 통해 반출된 미곡 수확량은 1926년 137만석, 1933년에는 179만석으로 증가했으며, 1934년에는 무려 200만석에나 이르렀다. 이는 매년 조선 전체 쌀 생산량의 20%가 넘는 규모였다.¹²⁴⁾ 미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합법적인 미곡 반출의 도구로 작용했다. 문제는 미두가 수많은 조선인들이 미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하바꾼으로 전락하는 등의 폐해를 낳았다는 점이다. 미곡취인소의 위치가 군산의 중심이며 이를 중심으로 미두중매점, 은행들이 모여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와 당시 군산에서의 미두 광풍을 엿볼 수 있다.¹²⁵⁾

3)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미두

미두는 단순한 투기 행위를 넘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기제였다. 앞서 언급했듯 미두는 미곡의 시세 등락으로 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였고, 미두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곡의 시세였다. 그러나 미곡의 시세는 오사카의 미곡 시세와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일본 현지 정보가 부족한(국제 정세 및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조선인에게는 이익이 남기 어려운 구조였다. 더욱이 일찍부터 중매점을 낀 선물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일본에 비해 미두 제도 자체가 늦게 도입된 조선으로서는 선물적 거래방식에 해박할 리 만무했다. 이에 조선인은 요행을 바라며 점이나 운괘 등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미두를 하기에 이른다. 이는 미두꾼 대부분을 ‘하바꾼(밀천도 없이 투기하는 사람들)’로 전락시킨다. 미곡취인소가 처음 세워졌던 인천 앞 축현역의 연못이 미두꾼들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웃지 못할 속설을 낳기도 한다.¹²⁶⁾ 당시 미두는 신문에 사회적 문제로서

120) 장미영, 앞의 논문, 81쪽.

121) 유봉희, 2008, 「채만식 『탁류』 연구 - 미두를 중심으로」, 83쪽

122) 유봉희, 2008, 위의 논문, 84쪽.

123) 박철웅, 2021, 앞의 논문, 246쪽.

124) 「群山개항100년 - 식민도시 群山」, 『전북일보』, 1988.3.16.(이대규, 1999, 「탁류(濁流)>의 도시 공간 연구(1)」, 『현대소설연구』, 제1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82쪽에서 재인용.)

125) 미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 거래처이다.

126) 박철웅, 2021, 앞의 논문, 250쪽.

오르내렸다. 1925년 동아일보에서는 미두로 재산을 잃고 자살하는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으며 횡령한 돈으로 미두를 하다 검거된 사건을 보도하는 등 노름으로 변질된 미두의 위험성을 연일 보도했다.¹²⁷⁾ 미두는 조선에게 이와 같은 폐해를 낳았으나 일제 당국으로서는 조선인들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미두 밀전을 마련하므로 쌀과 토지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¹²⁸⁾ 지배 위치에 놓인 일본이 이식시킨 제도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조선은 토지와 자본 모두를 점차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4) 미두장의 쇠락

1920~1930년대 조선에 광풍을 일으켰던 미두장은 『탁류』가 연재되던 1937년 즈음 서서히 열기를 잃기 시작했다. 미두 투기 열풍은 반복창¹²⁹⁾으로 대표되는, 미두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되던 1920년대에 가장 강했으며 1930년대에도 진행되다 1937년을 기점으로 점차 쇠락한다. 그 후 1939년, 일본이 미두를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매매상품’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통제물자’로 규정하여 자유판매를 금지하면서 미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¹³⁰⁾

3. 『탁류』가 미두장을 바라보는 방식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全州通)이니 본정통(本町通)이니 해안통(海岸通)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웅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仲買店)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¹³¹⁾

소설의 초입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미두장을 군산의 심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곧 미두장이 군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미두장 근처에는 수많은 대로와 그 대로에 들어선 중매점들이 있다. 일제의 식민 수탈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미두장이 다양한 호응 기관들과 함께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가 이미 식민지적인 모습에 점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도 또 달라 ‘명일(明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고 수두룩해서 이곳에도 많이 있다. 정주사(鄭主事)도 갈데없이 그런 사람이다.¹³²⁾

127) “米豆장이의 末路. 돈이 떨어져서 목매여 죽어”, <동아일보>, 1925.1.5.(류경동, 2020, 『세태의 재현 혹은 교환 구조의 안과 밖 -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1집 제1호, 116쪽에서 재인용.)

128) 변화영, 2004,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집 제1호, 역사문화학회, 318쪽.

129) 미두로 400원이라는 전재산을 1000배 이상 늘린 인물로 ‘미두왕’이라고 불렸다. 강화부 아전의 아들로 일본인 주인이 경영하는 미두취인소에 하루 시세를 전해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경제지식을 쌓고, 5년만에 미두시장에 등장했다. 그 이후 승승장구하다 1922년부터 예측했던 미두 시세가 벗어가며 2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고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30) 유봉희, 2008, 앞의 논문, 85쪽.

131) 채만식, 2009, 『탁류』, 지혜의숲, 9쪽.

132) 채만식, 2003, 앞의 책, 8쪽.

소설에서는 미두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일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이는 미두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정주사의 처량한 신세에서 알 수 있다. 대로변에서 망신을 당한 후 '죽지만 앓을 테라면은 시방 그대로 두루마기를 둘러쓰고 풍덩 물로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해보고 싶은¹³³⁾' 생각을 하는 장면은 미두에 빠진 정주사의 처량한 신세를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은 그저 또 다른 의미 없는 하루일 뿐이다. 미두는 노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에, 미두꾼들은 정주사처럼 “죽어버리면 고만이지”를 읊조리는 허무주의적인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다.¹³⁴⁾ 작가는 미두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잃은 것을 표현하며 미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두장은 소설 속 갈등의 가장 크고 원초적인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두에서 비롯되는 정주사, 태수, 초봉의 굴곡진 삶 그리고 미두로 인해 갖은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곧 이 시기 식민지 지배 논리로 인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 민중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참고문헌

- ❖ 이대규, 1999, 「탁류 (濁流)> 의 도시 공간 연구 (1)」, 『현대소설연구』, 제10호
- ❖ 변화영, 2004, 「소설 『탁류』에 나타난 군산의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집 제1호
- ❖ 유봉희, 2008, 「채만식 『탁류』 연구 - 미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 장미영, 2011, 「군산, 식민지 근대의 디스토피아 - 채만식 장편소설 『탁류』」, 『열린전북』, 제143호.
- ❖ 박철웅, 2021,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 ❖ 류경동, 2020, 「세태의 재현 혹은 교환 구조의 안과 밖 -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1집 제1호
- ❖ 채만식, 2009, 『탁류』, 지혜의숲
- ❖ 성주현, 2016, 「채만식」, 한국학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3) 채만식, 2003, 앞의 책, 26-27쪽.

134) 변화영, 2004, 앞의 논문, 319쪽.

군산 일본식 근대 건축

UD 경제 19 김유진, 21 손승우

1. 군산 근대 건축물의 형성과정

군산은 1899년 5월1일 군산항 개항에 따라 현재의 월명동과 영화동에 설치된 조계지를 통해 일본제 국주의에 의해 성장하게 된 도시이다.¹³⁵⁾ 군산에서 일본인은 1914년 4,742명으로 군산 전체 인구의 47.1%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광복 전후까지 군산의 근대건축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¹³⁶⁾ 군산지역의 근대건축물의 형성과정은 개항기를 기점으로 전개된다. 군산항이 개항됨에 따라 조계지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목적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¹³⁷⁾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그리고 종교시설도 건립되었다.¹³⁸⁾ 개항 직후의 단계에서는 조계지 지역의 개발이 막 시작된 시기였기에 본격적인 개발의 준비단계에 불과했으나 현재까지도 군산시 구도심의 가로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격자형의 가로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¹³⁹⁾ 이후 1906년부터 1925년을 군산항 및 도시기반 건설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주요 건물들이 거류지를 중심으로 건립되었고 재판소와 군산역 등 일부 관공서만이 거류지 외곽에 위치하였다.¹⁴⁰⁾ 이 시기에 거류지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거류지 북쪽을 중심으로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1945년까지는 군산항 및 도시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다.¹⁴¹⁾ 거류지의 북쪽이 여전히 도시의 중심으로써 활약하였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시가지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류지의 남서쪽 또한 중심적인 시가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는 일본인들의 중규모 이상의 주택이 지어졌으며 상업적인 업무시설이 준비했다.

2. 군산 일본식 근대 건축물의 특징

군산항의 개항 이후, 군산의 건축양식은 서구와 특히, 일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역, 상공회의소, 미곡상 조합 등은 중앙에 현관을 돌출시키고 외벽은 목재 비늘판벽으로 마감하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은 일식 목조 건축물 형식을 가지고 있다.¹⁴²⁾ 일본의 건축양식은 군산의 주거양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대 주거 건축물의 유형은 크게 근대한옥과 외래주택으로 나누어진다.¹⁴³⁾ 근대한옥은 전통주택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고, 외래주택으로서 일식주택은 일제강점기

135)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역사문화학회, 128쪽.

136)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28쪽.

137)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7쪽.

138)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7쪽.

139)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8쪽.

140)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38쪽.

141)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41쪽.

142)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43쪽.

143) 김종성·배진아, 2019, 「군산 근대 민간 건축의 배치 및 평면 유형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44쪽.

때 한반도에 건설된 일본의 재래주택의 형식이 반영되었다.¹⁴⁴⁾ 이러한 일식주택은 주거용도만으로 지어진 경우와 상업적인 점포로써의 특성을 겸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¹⁴⁵⁾ 일반적인 주거의 용도로 지어진 전자의 경우, 단독 주택과 여러 채의 주택이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나가야(長屋)라는 형태로 구분된다.¹⁴⁶⁾ 단독주택은 다른 유형의 건축물과 달리 담장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¹⁴⁷⁾ 단독주택의 구조와 외관의 행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거주자의 신분과 취향 등이 설계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가야의 경우, 서민용 연립주택으로 약 2~4채 주택이 이어진 일자형의 구조이다.¹⁴⁸⁾ 나가야는 후면에 뒤뜰(裏庭)을 두는데 이 뒤뜰은 반대편의 나가야 뒤뜰과 만나 하나의 면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⁴⁹⁾ 나가야의 형식으로 주거전용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상가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이 도로를 기준으로 세로형으로 배치되며, 이러한 세로형 배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¹⁵⁰⁾ 나가야의 기본적인 구성은 전반부의 주공간과 후반부의 마당 및 서비스공간을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의 주공간은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상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상가가 현관을 겸하기도 한다.¹⁵¹⁾

일반적인 주거용도뿐만 아니라 점포로써의 활용도 가능했던 건축물 양식인 마찌야(町屋)는 도로변에서는 점포의 역할을 하지만 후면에서는 주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1층은 점포이지만 2층은 주거인 형태를 띤다.¹⁵²⁾ 마찌야 건축의 배치는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접건물과 벽을 공유하지 않고 건물 안에 마당 또는 부속건물을 배치하고 있다.¹⁵³⁾

3. 답사 건축물

군산의 근대 건축물 중 이번 답사에서 둘러볼 건축물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18은행 군산지점, 구 군산세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시마타니 금고, 이영춘 가옥, 구 임피역사이다. 그중 첫째 날에는 군산 근대거리에 있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일본18은행, 구 군산세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를 둘러볼 예정이고, 마지막 날에는 군산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시마타니 금고, 이영춘 가옥, 임피 폐역사를 둘러볼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분량 관계로 몇 개의 건축물만 선별하여 설명할 것이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시설로서 1922년 건립되었는데, 이곳의 주요 업무는 군산항을 통해 반출되는 쌀 수익금을 예치하고 농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일이었다. 이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은 4층 높이의 2층 건물로서, 정면에 돌출된 현관, 그리고 양쪽에 각각 5개의 평아치와 1개씩의 반원형 아치를 두었다. 한편, 광복 이후인 1953년 한일은행에서 이

144) 김종성·배진아, 2019, 위의 논문, 44쪽.

145)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5쪽.

146) 송석기, 2004, 위의 논문, 145쪽.

147) 배진아·김종성·김현숙, 2018, 「군산 근대 주거 건축물의 특징과 근대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에 의한 변화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10쪽.

148)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5쪽.

149) 배진아·김종성·김현숙, 2018, 앞의 논문, 13쪽.

150) 김종성·배진아, 2019, 앞의 논문, 49쪽.

151) 김종성·배진아, 2019, 위의 논문, 49쪽.

152)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45쪽.

153) 김종성·배진아, 2019, 앞의 논문, 48쪽.

건물을 인수하여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⁵⁴⁾ 이후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 이 건물은 1981년부터 예식장으로, 1982년부터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1990년 화재가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되다 보수를 거쳐 2013년부터는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 일본18은행 군산지점 역시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를 위해 설치된 대표적인 금융시설로서, 1914년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본관과 2층의 부속건물 2동(사무실, 창고), 총 3개의 동으로 지어졌으며, 이러한 건립 당시의 건물 구성은 현재에도 대부분 보존되어 있다.¹⁵⁵⁾ 이 건물을 사용하였던 일본18은행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사를 두고 있던 일본 지방은행으로, 조선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곡물을 반출하고 토지를 강매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890년 인천에 처음 문을 열었고, 1907년 조선에서는 일곱 번째로 군산에 지점을 건립하였다. 구 일본18은행 군산지점은 광복 이후 대한통운 지점 건물로 사용되었으며¹⁵⁶⁾, 2008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보수를 거쳐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 군산세관은 1908년 군산항에 지어진 건물로서, 건립 당시 감시계 청사, 감시 망루, 창고 등 다양한 부속 건물들과 함께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이 남아 있다.¹⁵⁷⁾ 구 군산세관 본관은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로서,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방으로 경사진 지붕인 우진각 지붕과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박공 지붕이 혼합된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¹⁵⁸⁾ 이 건물은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하여 현재도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 히로쓰 게이사부로(廣津繼伊三郎) 지은 일본식 2층 목조 가옥으로, 일명 ‘히로쓰 가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ㄱ’자 모양으로 붙은 건물이 두 채 있고, 두 건물 사이에 꾸며놓은 일본식 정원에는 큼직한 석등이 있다.¹⁵⁹⁾ 또한 뒷마당에는 우물, 화장실 등이 있다. 본체의 벽체는 심벽에 목재 비늘판벽과 회벽으로 마감하였고, 지붕은 박공지붕과 합각지붕(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어 마감하였다. 한편, 건물 내부에는 복도를 중심으로 온돌방,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이 존재하고, 온돌방 옆에는 외부와 접하는 복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2칸이 있는데, 벽장과 장식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군산의 대표적인 일본식 근대 주택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¹⁶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농촌 수탈상 역시 엿볼 수 있다.

동국사는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승려 우치다(內田佛觀)가 1909년 군산의 외국인 거주지에 세운 포교소인 금강선사(금강사)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우치다는 1913년 군산 지역 대농장주였던 구마모토(熊

154)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舊 朝鮮銀行 群山支店)」,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3:11).

155) 송석기, 2004, 앞의 논문, 134쪽.

156)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舊 日本第十八銀行 群山支店)」,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3:09).

157) 「구 군산세관 본관 (舊 群山稅關 本館)」,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28).

158) 홍승재, 1998, 「구군산세관본관(舊群山稅關本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22:28).

159)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群山 新興洞 日本式 家屋)」,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42).

160) 「(제183호)군산신흥동일본식가옥(구 히로쓰가옥)」, 군산시 문화관광, <https://www.gunsan.go.kr/tour/> (2022.09.18. 23:05).

本利平)와 미야자키(宮岐佳太郎) 등 29명의 신도에게 시주를 받아 지금의 자리에 대웅전과 요사를 신축하였다.¹⁶¹⁾ 금강선사는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군정에 몰수되었다 불하되어 사찰 기능을 재개하였고, 1955년에는 불교 전북 중무원에서 이를 인수하여 우리나라(海東國)의 절이라는 의미에서 ‘동국사’로 개칭하였다.¹⁶²⁾ 동국사 대웅전은 건축 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와 지은 것이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사찰과 달리 승려들의 거처인 요사(寮舍)와 복도로 연결되어 있으며¹⁶³⁾, 전형적인 일본 에도 시대 건축 양식인 정방형 단층 팔작 지붕 홑처마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⁶⁴⁾ 동국사는 2003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사찰 내 석가 삼존불상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영춘 가옥은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지역에서 대농장을 경영하였던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의 별장으로 1920년경 지어졌다. 이 건물은 외부형태에 있어서는 유럽 형식을 따르는 단층 목조 주택이며, 그 내부는 일본식 주택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에 더해 서구식 주택의 응접실과 한국식 주택의 온돌방을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¹⁶⁵⁾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남쪽에 커다란 다다미방이 있고, 북쪽에는 식당으로 사용된 온돌방이 있으며, 복도 끝에는 작은 홀이 있어 부엌과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다.¹⁶⁶⁾ 한편, 광복 후에는 구마모토 농장의 진료소장을 지냈던 이영춘(李永春, 1903~1980) 박사가 이 건물을 인수하여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이영춘 박사는 병원, 학교, 영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 국내 최초로 양호실을 만들고, 농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¹⁶⁷⁾

구 임피역은 일제 강점기 전라도의 농산물을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중요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¹⁶⁸⁾ 임피역사(驛舍)는 군산선의 역사 중 하나로 1912년 건립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역사는 1936년 다시 지어진 것이다. 기존의 역사를 개축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 후 신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임피역사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2동으로 구성된 목조 구조의 건축물로, 벽체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되어 있다. 맞배집 형태의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철도변 사무실에는 모임 지붕이 돌출되어 있다. 한편, 정면 출입구와 반대편 개찰구 위에는 직선으로 박공지붕과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서양식 건축구조를 기본으로 동아시아 전통 건축구조를 융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¹⁶⁹⁾ 구 임피역사는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0년 12월까지 철도역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철도 선로 이설과 함께 폐역되었다.

161) 문화재청, 2005, 『군산 동국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31쪽.

162) 이성수, 2020. 08. 20., 「근대불교자료를 찾아」 <1> 일제강점기 금산사 동영상」, 불교신문,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95> (2022. 09. 18. 22:59)

163) 문화재청, 2005, 위의 책, 55쪽.

164) 문화재청, 2005, 위의 책, 47쪽.

165) 「이영춘가옥(李永春家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22:28).

166) 「이영춘가옥(李永春家屋)」,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42).

167) 소진탁, 1997, 「이영춘(李永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22:28).

168) 「군산 구 임피역(群山 舊 臨陂驛)」,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8. 22:45).

169) 국가철도공단, 2021, 『한국의 철도역』, 938쪽.

참고문헌

- ❖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 배진아·김종성·김현숙, 2018, 「군산 근대 주거 건축물의 특징과 근대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에 의한 변화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 ❖ 김종성·배진아, 2019, 「군산 근대 민간 건축의 배치 및 평면 유형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 ❖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舊 朝鮮銀行 群山支店)」,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舊 日本第十八銀行 群山支店)」,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구 군산세관 본관 (舊 群山稅關 本館)」,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홍승재, 1998, 「구군산세관본관(舊群山稅關本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群山 新興洞 日本式 家屋)」,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제183호)군산신흥동일본식가옥(구 히로쓰가옥)」, 군산시 문화관광
- ❖ 문화재청, 2005, 『군산 동국사 대응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 ❖ 이성수, 2020. 08. 20., 「근대불교자료를 찾아」 <1> 일제강점기 금산사 동영상, 불교신문
- ❖ 「이영춘가옥(李永春家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영춘가옥(李永春家屋)」,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소진탁, 1997, 「이영춘(李永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군산 구 임피역 (群山 舊 臨陂驛)」,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국가철도공단, 2021, 『한국의 철도역』

군산 지역 일본인들의 생활·문화

21 박세연, 21 성혜원

수상교통이 유리하고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한 군산은 1899년 마산, 성진과 더불어 개항되었다. 이후 외국인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조계가 형성되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밀려들어 왔다.¹⁷⁰⁾ 쌀의 집산과 일본 상품의 거래로 증가하기 시작한 군산 일본인의 수는 1940년에는 약 1만 명에 근접하여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였다.¹⁷¹⁾ 이렇듯 군산에 유입된 일본인들은 조선인과는 이원화된 곳에 살며 호화롭고 도시적인 생활을 누렸다. 1905년부터 일본정부가 일본인에 대해 갖가지 편의 정책을 실시했고, 불평등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과 무관세권, 일본화폐유통권 등 일본상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조건 또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¹⁷²⁾ 또한 거류지에는 도로, 철도, 항로 등과 편의시설도 크게 확충되었다.¹⁷³⁾ 군산해관 주위에 새로 건설된 병원, 경찰서, 우체국은 조계지역 내 일본인 독점 시설이었다.¹⁷⁴⁾ 이렇듯 일본인의 이주는 도시화를 불러왔지만, 그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일본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변두리와 산비탈에 불량주택인 '토막'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도시빈민으로 살아간 반면, 일본인들은 군산의 주요 상가를 차지하고 고급주택을 짓고 살았다.¹⁷⁵⁾ 당시 군산은 일본인 중심의 변화가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로 구획되는 식민지적 이중도시 구조였다.¹⁷⁶⁾



그림 12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거류지 내 상류층 일본인들이 살았던 주택으로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당시 히로쓰 게이샤브로라는 일본인 지주의 집이었는데, 일식 다다미방과 도쿄노마, 일본식 정원 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¹⁷⁷⁾ 여기서 다다미는 “짚을 넣어서 만든 일본식 돛자리”로 짚을 엮는 데 쓰이는 골풀로 인해 특유의 향이 나며 일본 전통 주택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바닥재이다.¹⁷⁸⁾ 도쿄노마는 붙박이형 구조물로 다다미와 함께 대표적인 일본의 주택 내부 구조를 보여준다.¹⁷⁹⁾

170) 이원호·김용기·최종화·이종성, 2002,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권 4호, 96쪽.

171) 김민영, 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제8권, 7쪽.

172) 김민영, 2019, 위의 논문, 7쪽.

173) 김민영, 2019, 위의 논문, 7쪽.

174) 이원호·김용기·최종화·이종성, 2002, 앞의 논문, 97쪽.

175) 김민영, 2019, 앞의 논문, 7쪽.

176) 김민영, 2019, 위의 논문, 7쪽.

177) 송석기, 「군산 신흥동 가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871> (2022.09.16. 16:18).

178) 송석기, 「군산 신흥동 가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871> (2022.09.16. 16:18)

도코노마가 있는 방의 바닥에는 주로 꽃꽂이를 한 꽃을 담은 화병이 있고 벽에는 붓글씨를 걸어놓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화나 병풍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병풍과 다른 도코노마의 특징은 한국은 손님을 맞이할 때 방의 주인이 병풍의 앞에 앉아 손님을 맞는다면 일본은 방의 주인이 붓글씨를 마주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다미방과 도코노마가 있는 이러한 고급주택은 당시 지주로서 조선인을 부리던 일본인들의 호화로운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3 시마다니 금고

또 다른 일본인 농장주 시마다니 야소야의 금고를 통해서도 수탈로 부를 축적했던 군산 지역 일본인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시마다니는 조선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문화재 및 귀중품들을 모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콘크리트 창고를 지었다.¹⁸⁰⁾ 해당 창고는 1층에서 3층까지 하나의 구조물인 일체형이고, 내부의 각층은 나무 마루로 구분되어 있다.¹⁸¹⁾ 당시 이곳에는 시마다니 농장의 중요 서류와 현금, 한국의 고 미술품 다수가 소장되어 있었다.¹⁸²⁾

그래서 방법을 위해 외부로 통하는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철문까지 달아놓았다고 한다.¹⁸³⁾

일본인 이주에 따라 근대 도시 문화 또한 유입되었다. 우편국, 병원, 은행, 경찰서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여관과 공원도 생겨났다.¹⁸⁴⁾ 이후 개관한 명치좌, 군산좌, 희소관 등의 극장들 역시 일본인 이주에 동반된 근대 문화의 도입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희소관은 일본인 중심 상권이 형성된 도심 근처에 세워진 극장으로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¹⁸⁵⁾ 이곳은 특히 관객 정원이 700



그림 14 1920년대 희소관의 모습

명에 달했으며 일본 마키노 영화사의 작품을 상영하였는데, 이때 마키노 영화사는 1930년대 초반 일본 최초 발성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라고 한다.¹⁸⁶⁾ 또 희소관은 주요 고객인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의 전통 가무를 공연하거나 일본인 변사를 고용하여 일본인 대상 영화를 상영했다고 전해진다.¹⁸⁷⁾ 이때, 변사란 “스크린에 펼쳐지는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들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던 사람”으로 소리가 없던 그 당시의 영화를 해설해주는 사람을 가리킨다.¹⁸⁸⁾ 또한,

179) 송석기, 위의 자료.

180) 송석기,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 창고」,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search/GC05700669> (2022.09.16. 19:36)

181) 송석기, 위의 자료.

182) 송석기, 위의 자료.

183) 송석기, 위의 자료.

184) 위경혜, 「극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697> (2022.09.16. 19:36).

185) 위경혜, 위의 자료.

186) 위경혜, 위의 자료.

187) 위경혜, 위의 자료.

188) 위경혜, 위의 자료.

이곳에서는 조선인들을 위한 행사도 주최되었는데 여학원이나 유치원이 음악 가극 대회를 열거나 독창회 등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¹⁸⁹⁾ 이곳은 해방 후 조선인 극장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다가 남도 극장으로 이름이 바뀐 후 1971년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조하여 국도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는 등 여러 변천사를 겪었지만 현재는 폐관되었다.¹⁹⁰⁾

군산 부둣가와 시내에는 크고 작은 요릿집과 대폿집 또한 생겨났다. 1910년을 전후해서 주막이 서서히 사라지고, 음식점 간판이 들어섰다.¹⁹¹⁾ 또한 고급 안주가 차려 나오는 명월관, 취향관, 원료정 등의 요릿집도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일본인들도 출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¹⁹²⁾ 특히 명월관은 권번 출신 기생들이 손님을 맞았던 고급 요릿집으로 국악의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¹⁹³⁾ 이때, 권번이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기생들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주식회사 제도”로 일제강점기 시절 관기제도가 사라지자 기생들끼리 뭉쳐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다.¹⁹⁴⁾ 기생들의 교육과정 중에는 시조, 가곡, 판소리 등 국악이 있었고 그것을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불렀기에 오늘날 우리 음악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군산 거리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일본인 유흥업소인 ‘유곽’이 생겨났다.¹⁹⁵⁾ 한국의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진 이성당 역시 1906년 일본에서 건너온 히로세 야스타로에 의한 참쌀과자 전문점에서 출발했다.¹⁹⁶⁾ 여기서 팔던 크림빵과 커피, 돈가스, 오므라이스 등의 서양요리는 당시 식문화가 얼마나 근대화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¹⁹⁷⁾ 이렇듯 미국수탈을 목적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식민지 조선 내에 도시화된 삶을 들여왔고, 근대화 된 건물에 거주하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서구화된 식문화를 즐기는 등 근대화된 생활을 누렸다.

참고문헌

- ❖ 이원호·김용기·최종희·이종성, 2002, 「일제강점기 군산의 도시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권 4호
- ❖ 김민영, 2019, 「일제강점기 군산의 사회와 경제」,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학술대회』 제8권
- ❖ 송석기, 「군산 신흥동 가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 ❖ 송석기, 「군산 발산리 구 일본인 농장 창고」, 디지털군산문화대전.
- ❖ 위경혜, 「극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189) 위경혜, 위의 자료.

190) 위경혜, 위의 자료.

191) 조종안, 「식생활」,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929> (2022.09.16. 19:36).

192) 조종안, 위의 자료.

193) 조종안, 위의 자료.

1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권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0130&cid=46661&categoryId=46661> (2022.09.17. 22:30).

195) 김중규, 「유곽」,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1440> (2022.09.16. 19:36).

196) 조종안, 앞의 자료.

197) 조종안, 앞의 자료.

- ❖ 조종안, 「식생활」, 디지털군산문화대전.
- ❖ 조종안, 「문화, 예술」, 디지털군산문화대전.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권번)
- ❖ 김중규, 「유곽」, 디지털군산문화대전.

재 조선 일본인들의 실태

중문 21 황민지, 불문 19 한제경

1. 재 조선 일본인들의 유입 과정

개항기를 전후로 시작되었던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는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재 조선 일본인은 이 시기를 전후로 이주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거주하던 일본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방면을 장악하였던 재 조선 일본인들은 일본 거류민회를 조직해 총독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특히 조선에서의 박람회 및 공진회 개최에 적극적이었다. 대부분 상공업에 종사하였던 이들이 박람회를 이익 창출의 기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많은 아시아 국가를 침공해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일본 내부의 빈곤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들을 그곳으로 이민 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외로 넘어간 일본인들의 숫자만 2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하고 그중에서도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들의 수는 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 현지에서 가난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던 사람들로 식민지에서 한탕 해먹으려고 건너온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현지에 있을 때는 하층민이었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인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한다. 그 외에 제국주의에 협조하던 일본 대기업들의 회사원과 그 가족들도 조선으로 많이 넘어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반도로 넘어온 일본인들의 경우 1910년대까지는 거의 상인들과 대기업 사원, 공무원 그리고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반 농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많이 넘어왔다. 특히 일본이 본격적으로 만주를 침공하던 시절에는 일제가 자신들이 빼앗은 조선의 땅에 정착하는 자국민들에게는 무료나 헐값으로 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본국을 떠나 식민지로 정착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그 땅은 1911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및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었다. 이들 중 초기에 넘어온 일부는 조선에서 큰 상인이나 지주가 되어 많은 이득을 봤지만 1930년대에 넘어온 일본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이 조선으로 넘어올 시기에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와있던 일본인들끼리 대부분의 이권을 나눠 먹은 후였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이들은 소상공인 정도에 그치며 주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하고 일제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계속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무단으로 땅을 점거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의 땅이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신한공사 등의 기관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1950~60년대 일본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때 몰수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제가 식민 지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외에 일본인들이 급하게 한국을 떠나느라 남겨두고 간 것들은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의 경우 그냥 방치되거나 6.25 전쟁을 겪는 중에 대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해방 소식을 듣자 수

많은 일본인들이 당연히 일본으로 귀환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자력으로 일본에 복귀해야만 했다.

그나마 운 좋게 미군이 제공하는 송환선에 탄 사람들은 미군이 귀환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줬지만 그 와중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탈출하는 일본인들을 본 한국인들이 "그 재산들은 모두 우리를 착취해 얻은 것들인데 어딜 함부로 가져가느냐 그걸 다 가지고 가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라며 반발하자 미군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개인 재산은 최대 1000엔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재산도 일정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 톨의 재산이라도 더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 밀항선을 타고 귀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울분을 참지 못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집단폭행하거나 그 들의 돈을 뜯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일본인들이 탄 밀수선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해적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 있던 일본인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미군의 보호 아래 안전히 철수한 남한 지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소련군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 수천 명의 일본인이 영양실조나 감염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참다못해 38선을 넘어 탈출한 사람들도 귀환하는 과정에서 굶주림과 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¹⁹⁸⁾

2. 오산학교 설립자, 마스다미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주체는 조선총독부를 주축으로 한 식민지 관료, 정치집단, 군부 혹은 경찰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식민지는 식민지 지주 혹은 자본가를 통해 유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⁹⁹⁾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 상업 자본가 후지이 간타로는 “우리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물론 최대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용스러운 실업가가 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업가는 토지에 정착하여 군대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연전연승할 우리 군대를 신뢰하고 우리는 실업 방면에서 크게 활약하고 후방을 든든히 하여 일본 경제의 발전에 전력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나갈 길이다”라고 말했다.²⁰⁰⁾ 이처럼 일본의 자본가 중 일부는 이러한 생각 아래 한국으로 건너와 토지 침탈을 행하거나 소작제 농장을 경영했다. 더불어 일본인 농민의 이민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며 일본이 직면한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다.

1880년 일본 후쿠오카, 사업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마스다미 야스자에몬[枳富安左衛門] 역시 한국에서의 농장 경영을 목표로 삼았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마스다미는 제 12사단 경리 담당으로 출정해 인천항에 발을 디디며 재조선 일본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후 마스다미는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 봉월리에 땅 약 7백리 정도를 매입한 뒤 본격적으로 소작제 농장 경영을 시작했다.

198) 유성은·김태호, 2020.08.16., 「해방 다음날, 그들은 은행 달려갔다...조선의 일본인들 최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9910> (2022.09.25. 18:15).

199) 이규수, 2010, 「일본인 지주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枳富安左衛門)과 ‘선의(善意)’의 일본인론 재고」, 『아시아문화연구』 19, 161~184쪽.

200) 이규수, 2005,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267~310쪽.

이후 1910년 부인의 권유로 기독교를 믿게 된 마스다미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 교육기관을 설립해 교육사업을 펼치기로 한다. 마스다미는 1912년 11월 자신이 살고있던 김제와는 거리가 떨어진 고창 오산리에 사립 흥덕학교를 세웠다. 이어 1918년 오산 고등학당을 설립했고, 1919년에는 오산 보통학교를 건립했다. 1919년 4월에는 고등학당을 폐교한 뒤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이는 호남지방 최초의 사립 중등 교육 기관에 해당한다.²⁰¹⁾

1922년 재정난을 마주한 오산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학교를 존속하려는 고창군민의 노력으로 오산학교는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같은 해 6월에는 학교가 고창군으로 이전되었고, 학교의 이름도 고창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마스다미가 설립한 해당 학교는 고창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한 마스다미의 사연이 일본에까지 알려지자 일본은 그의 사연을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 이어 한국에서도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창고등학교의 전신인 학교를 설립하며 전북 고창에서 이름을 날린 재 조선 일본인 마스다미 야스자에몬은 ‘선의의 일본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수탈을 목적으로 한 식민지 지주라는 평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참고문헌

- ❖ 유성은·김태호, 2020.08.16., 「해방 다음날, 그들은 은행 달려갔다…조선의 일본인들 최후」, 중앙일보
- ❖ 이규수, 2010, 「일본인 지주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枳富安左衛門)과 ‘선의(善意)의 일본인’론 재고」, 『아시아문화연구』 19
- ❖ 이규수, 2005,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한국진출과 농장경영」. 『대동문화연구』 49
- ❖ 정성미, 「마스도미 야스자에몬」, 디지털군산문화대전

201) 정성미, 「마스도미 야스자에몬」,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gochang.grandculture.net/> (2022. 09.17. 02:56).

3·1운동의 초기 확산

18 강민형, 21 서유석

1. 전국에서의 3.1운동 초기 확산

천도교, 기독교 등 각 교단 지도자들은 1919년 1월 이래 경성과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준비하였고, 2월 중순부터는 천도교계와 기독교계가 합동하여 불교계와 학생들을 준비 활동에 끌어들이었다. 최남선이 기초하여 보성사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 등의 경로로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 전라북도 군산(옥구군) 일대에는 기독교계, 천도교계가 중심이 되어 2월 28일~3월 2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²⁰²⁾

3월 1일 오후 2시경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손병희, 이인환(이승훈), 한용운 등 29명이 경성 인사동 명월관 지점(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²⁰³⁾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에 다수 학생과 시민이 모이자 공원의 육각당에서 한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낭독, 배포하고 군중들이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²⁰⁴⁾ 종로 일대에 학생 3~4천 명이 모였으며 군중이 합류했다. 시위군중은 파고다 공원을 기점으로 시내 각지로 나뉘어 행진하며 해 질 무렵까지 만세 시위를 벌였다. 학생과 일반인들로 이루어진 시위군중은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질서 정연하게 행진했으며 난동행위는 없었다. 경찰서, 각국 영사관 앞에 멈춰 모자를 벗고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또한 영사관에 편지와 독립선언서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저녁 7시경 시내 각지를 일주하던 시위 운동이 잠잠해졌다.²⁰⁵⁾

평남, 평북 각지, 함남 원산 등에서도 같은 날 만세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한강 이북 각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며칠이 지난 3월 5일, 전라북도 옥구군(현재의 군산시) 개정면에서였다. 애초에 영명학교 교사 박연세 등이 계획한 바로는 군산 장날인 3월 6일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3월 5일 계획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²⁰⁶⁾ 이에 같은 날 오전 8시경 구암교회 교인, 예수병원 사무원, 그리고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군산경찰서로 행진하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²⁰⁷⁾ 이를 시작으로 만세 시위가 3월과 4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렇듯 초기의 3.1운동 계획은 종교계와 학생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제에 의해 사회단체가 해산당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었기에 국내에서 조직적인 힘은 종교단체와 학교뿐이었기 때문이다.²⁰⁸⁾

202) 이애숙, 「1월~2월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독립선언 준비」,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x_00000 (2022.09.18. 22:44).

203) 허영란, 「3월 1일 경성 명월관 지점(태화관)에서 독립 선언」,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a_00605 (2022.09.18. 22:46).

204) 허영란, 위의 자료.

205) 허영란, 「3월 1일 오후 경성 시내 가두 시위」,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a_00609 (2022.09.18. 22:49).

206) 전성현, 「3월 5일 전북 옥구군 개정면 만세시위」,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samil/IDS/DEMONS/a_00268 (2022.09.18. 22:51).

207)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권 3호, 49쪽.

2. 전북 지역에서의 3.1운동 초기 확산

1) 전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이루어졌다. 천도교는 이종 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넘겨받은 인종익을 필두로 전라북도 각지의 교구를 통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임실, 진안, 장수, 김제, 고산(현재의 완주군 동북부), 남원, 전주, 이리(현재의 익산시 시가지 지역) 등에 배포하였다. 기독교는 천도교 측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넘겨받아 각지의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를 통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때 비록 이갑성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김병수 등에 의해 영명 학교에서 등사한 독립선언서 등사본은 전술하였듯 3월 5일 발각되어 일제 경찰에게 압수당했고 관계자들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1919년 3월 5일, 간신히 체포를 면한 양기준, 유한동이 거사일을 하루 앞당겨 군산 옥구서 시위를 전개하자, 영명학교 교사의 연행에 반발한 학부모를 포함하여 1,000여 명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을 필두로 전북 지역에 본격적으로 만세 시위가 퍼지기 시작했다. 만세 시위는 3월 10일 익산, 3월 13일 전주, 3월 16일 정읍, 3월 19일 고창·장수, 3월 20일 김제의 순서대로 퍼져나갔으며, 4월 또한 1일 무주, 3일 남원·진안, 18일 부안의 순서대로 확산하였다. 이처럼 전북의 만세 시위는 3, 4월에 주로 확산하였으나, 5월을 기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3.1 운동이 종식된 후, 조선총독부는 「소요사건도별표(騷擾事件道別表)」, 「소요사건일별조표(騷擾事件日別調表)」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 전북 지역의 3.1 운동이 5곳에서 39회 일어났으며, 총 3,710명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언급된 지역의 수, 그리고 군산 옥구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보면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15 군산제일고등학교, 군산영명학교를 계승한 고등학교이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수.

208) 김은주, 2019, 위의 논문, 47쪽.

2) 배경

전북 지역에 3.1 운동이 확산하게 된 배경은 크게 일제의 무단 통치, 식민지 수탈,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 수호 투쟁으로 나눌 수 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0년대는 일제가 폭압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하던 시기로, 일제는 막강한 군사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억압 기구 설치, 식민지법 제정을 통해 한민족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일부 지역을 국유지로 포함함으로써 농민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조세 수탈 역시 강화하였다. 특히 전북 김제 등 호남 지역은 한반도 최대의 곡창 지대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통치 정책과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고, 식민지 수탈 역시 지속되자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 반대 투쟁, 삼림정책 반대 투쟁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양된 민족의식은 3.1 운동 당시 농민들이 앞서 시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 김종수, 2015, 「호남지역의 3·1운동」, 『군사연구』 제139호, 육군군사연구소.
- ❖ 김은주, 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권 3호
- ❖ 윤상원, 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제57호
-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군산의 만세운동

21 김연서, 21 김연우

1. 군산 만세운동의 전개

군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하며, 금강과 서해안이 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1899년 군산항의 개항 이후, 일제의 강점 하에 지리적 이점을 통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사업가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군산 주변 농촌에서 압출된 조선인까지 군산에 전입하게 되면서, 군산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이 빠르게 만들어졌다. 또한 군산의 일본인 농업경영자들은 넓은 평야에 웅본 농장, 불이 농장, 궁기 농장 등과 같은 대형 농장들은 설립하여 미곡과 토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²⁰⁹⁾ 따라서 군산은 “쌀의 군산”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막대한 미곡의 생산지가 되었고,²¹⁰⁾ 근대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과 대량의 미곡, 토지는 오로지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조선인들은 미곡 생산 등에 강제 징용되며 노동력까지 갈취당했다.

이처럼 군산은 개항 직후부터 수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며 지속적인 수탈을 당해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수탈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군산은 1919년 한강 이남과 전북 지역 만세운동의 발원지이자 항일운동의 역사가 매우 깊은 곳이기도 하다.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된 3.1 만세운동 이후, 군산에서 3.5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독립 만세운동으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학생 김병수가 기독교 교회 망을 통해 독립선언서 200장을 전달받아 자신의 모교인 기독교계 사립학교 영명학교의 교사에게 전달하며 시작된 운동이다.²¹¹⁾ 군산 지역의 만세운동은 영명학교, 예수병원, 구암교회 등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영명학교의 교사들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강 이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생각보다 적다. 특히나 군산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2만 5천여 명으로,²¹²⁾ 만세운동이 일어난 다른 지역보다 그 수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북은 만세운동 이전부터 동학 농민운동을 비롯한 의병운동이 빈번히 일어난 지역으로, 일제의 탄압을 지속해서 받고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니만큼 조선인의 시위 참여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적다고 하여 군산 만세운동의 의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군산 만세운동은 인근 옥구와 임피 등의 지역에 만세운동을 확산시켜 전북 지역의 만세운동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호남지역으로의

20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87133&cid=51946&categoryId=55026>,
(2022.09.16.).

210) 김태웅. 2009. 「日帝下 群山府에서 住民의 移動事情과 階層分化의 양상」, 한국민족문화, (35), 3-56, 5쪽

211) 김혜진, 2014,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쪽

212) 김혜진, 2014, 위의 논문, 20쪽

만세운동 확산의 시작점이자 민중 항일의식 제고의 기점이 되었기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군산 만세 운동의 상징물

1) 3.1독립운동기념비



그림 16 3.1 독립운동기념비

2004년에 국가보훈처로 지정되면서 세워진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군산구암동산 3.1운동은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애족의 순교 순국 정신이 드높게 깃들인 한강 이남의 호남 최초의 독립 만세운동으로 이곳 구암동산과 군산구암교회는 그 발원지로서 우리 군산의 자랑스런 민족 역사 유적지입니다.”

1919년 2월 26일 세브란스의전 유학 중이던 영명학교 출신 학생 김병수의 독립선언문 반입과 연락으로 주동자 박연세 장로를 비롯한 구암교인 및 영명학교, 멜본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예수병원 직원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 기숙사와 다락방에서 독립선언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감췄다.

군산에서 3월 5일에 일어난 3·5 만세운동은 호남지방 최초로 일어난 봉기로 이후 전북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군산의 자긍심을 세우고, 선열들이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 및 후세까지 역사 현장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군산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군산 3.5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구암동산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²¹³⁾

2) 군산 3.1운동 기념관



그림 17 3.1운동기념관

군산 지역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군산 지역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의 애국정신을 전승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 시설이다.

군산 3.1만세운동의 모습이 디오라마 형태로 전시되어 있어 당시 독립 만세 운동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3·1운동 당시 군산영명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익산 역전에서 개최된 익산군민대회에서 일본 경찰에게 팔을 잃은 문용기 선생의 혈의(血衣)가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 독립군이 사용했던 총기류가 전시되어 있으며 유물 복제 10여 점을 포함해 60여 점의 전시물과 3·1운동 관련 사진 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²¹⁴⁾

213) 김혜진, 2014, 위의 논문, 30~31쪽.

214) 박영민·이경원, 2019,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 :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 3.1운동 역사의 현장」, 『국방저널』, 82~83쪽.

전라북도 3.1운동과 관련된 유일한 기념관으로 선교사인 전킨(W. M. Junkin, 한국 이름: 전위렴)이 1885년 군산에 정착하여, 1888년 구암교회와 구암예수병원을 세운 곳이다. 1903년에는 영명학교를 설립하여 복음, 의학, 신문학, 교육 등 근대교육사업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이다.²¹⁵⁾

3) 군옥삼일운동기념비·만세상



그림 18 군옥삼일운동만세상

1986년 11월에 군산3.1운동기념비건설위원회가 군산시 월명동 월명공원 안에 건립하였다. 군산삼일운동기념비와 만세상이 있는 안내문의 건립 취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기념비는 1986년 12월 3일 군산3.1운동기념비건설위원회에서 군산3.1운동의 태동인 군산 구암동에 선인들의 애국심과 크나큰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 이곳 푸른 숲이 기상을 상징하는 이 자리에 당국의 보조금과 시내 각급 학생을 비롯한 시민의 충정 어린 성금을 모아 이비를 세우니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기에 지극하고 온갖 것을 다 바친 선인들의 슬기와 용맹이 우뚝 솟아 보인다.”

군산 3.1운동은 1919년 3월 6일 장날을 기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 그리고 예수병원 직원들이 주동이 되어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그 전날까지 영명학교 숙직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만든 독립선언문 3천 5백 장과 태극기 5백 장을 나누어 들고 휘두르며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이밖에 군산 보통학교 학생 수백 명이 합세, 애국시위 군중은 삼시간에 5백 명으로 늘어 독립 만세 소리는 시 전역에 메아리쳤으며, 30일 밤에는 시민 1천여 명이 횃불 시위를 벌였다.²¹⁶⁾

참고문헌

- ❖ 김혜진, 2014, 「전라북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박영민·이경원, 2019,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상지 :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 3.1운동 역사의 현장」, 『국방저널』

215) 김혜진, 2014, 앞의 논문, 31~32쪽.

216) 김혜진, 2014, 위의 논문, 32~33쪽.

일본인 지주와 농장경영

19 박재혁, 17 고영우

1. 전북 일본인 농장경영

전라북도도 과거부터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하였다. 조선대 왕조 재정에 큰 역할을 했던 풍요한 곡창 지대인 전북 지역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본토의 부족한 식량 생산을 충당하는 곡물 생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으로의 수탈의 많은 부분이 일본인 지주에 의한 농장경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그 정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아직 토지조사사업이 시작하기 전인 1910년에는 전국적으로 일본인 농장경영자의 경지 소유 비율은 3%가 채 되지 못하였고, 전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경지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이 7.5%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전북은 전체 경지 중 일본인 농장경영자가 소유한 비율이 20% 가까이 되었다.²¹⁷⁾ 1931년에도 전라북도도 일본인 지주 소유 비율에 있어서 바로 아래의 전라남도보다 10%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대한제국이 완전히 일제에 병합된 것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의 일이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한반도를 자국 내의 문제인 초과인구의 배출과 미국 공급 부족 관련 문제를 해결할 곳로 여기고, 관련한 정책적 논의를 해왔다.²¹⁸⁾ 그러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우리나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장을 세워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장려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지가는 일본보다 상당히 저렴했고, 미국의 유출과 일본 상품의 수입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었기에 일본의 자본가와 지주들은 그러한 정책 구상에 호응해 한국의 토지 집적 및 경영을 확대해나갔다. 전라북도도 예로부터 이어져 온 풍부한 곡창지대와 1899년 일본에 의해 개항된 군산항의 연결성으로 인해 일본인 지주들이 미국을 생산하고 일본 본토로 넘겨 수익을 내는, 주요 수탈 지역 중 하나였다. 군산항의 총 이출입은 산미 증식 계획²¹⁹⁾이 한창이던 1920년대 중후반 600만 원을 넘겼고, 1908년의 28만 원에서 20배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일본 본토로의 이출의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또한 1921년 이후 그러한 이출의 97%는 미국이었다.

2. 일본인 지주의 유입 배경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894년 시작되어 1895년 종결된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청으로부터 완전히 넘겨받으면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1900년 당시 일본은 그 이전 19세기 중반 3,200

217) 소순열, 2021,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9호, 국립완주 문화재연구소, 28쪽.

218) 이규수, 2015,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 —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 『사림』 54, 수선사학회, 171-172쪽.

219)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되었다.

만이었던 인구가 4,1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었고,²²⁰⁾ 이로 인해 주식인 쌀의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쌀의 수요가 일본 내의 공급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1899년 군산항의 개항은 전북 지역의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쌀의 수요 문제 및 이동 편의성의 향상 외에도,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일본인 지주들 개인의 입장에서 이곳에 올 많은 경제적 유인이 생겨났다. 우선 토지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 조선의 토지 수익률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3배가량 높았지만, 지가도 1/10에서 1/3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²²¹⁾ 또한 1904년 군산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경영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군산농사조합으로 인해 조선에서 더욱 안전하게 농장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²²²⁾ 동진평야에 농장경영을 처음 시작한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가 1903년 2월에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²²³⁾ 군산농사조합은 일본인 지주들의 유입 초기부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점차 여건이 형성됨과 함께 일본 당국의 정책 아래 전북에서는 농사짓기가 가능한 평야의 1/3에 해당하는 2만 정보²²⁴⁾가 일본인 지주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²²⁵⁾ 그런데 그러한 일본인들의 토지 점유 과정에서 그들은 소유권에 대한 법제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이전에 조선과 대한제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조약들, 일본과 다른 토지 관련 국내의 법령과 관행들이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 과정에서 충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장권(導掌權)²²⁶⁾과 도지권(賭地權)²²⁷⁾ 등 토지에 대한 물권으로서의 수조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많은 수의 농민들이 한국의 관행대로 갖고 있던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일본인 지주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법제적 권리를 얻게 된다.

3. 일본인 지주의 경영방식

일본인 지주들의 대내적 농장 경영방식은 보통 소작제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상위에 지주를 중심으로 주임 - 사무원 - 사음 - 소작인 순의 조직적인 형태로 토지를 관리 및 경영하였다. 지주는 평소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보(日報)와 월보(月報)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편지로 농장을 운영하다가 중요한 사안이 생길 경우에만 한국으로 넘어왔다. 실질적인 예산편성, 결산 등 농장 단위의 업무들은 주임을 통해 이뤄졌고, 파종, 이앙, 시비, 추수 등 영농과정은 사무원이 관리하였다. 소작지와 소작인에 대한 세세한 관리는 그 아래 있는 사음의 역할이었고, 소작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조치에 따라 농사

220) 鬼頭宏 카토 히로시 지음·최혜주·손병규 옮김, 2009, 『인구로 읽는 일본사』, 어문학사.

221) 소순열, 2005,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 -몇 가지 지주 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권, 한국농업사학회, 108쪽.

222) 소순열, 2005, 위의 논문, 109쪽.

2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2」,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6호, 전주국립박물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97쪽.

224) 1정보는 3,000평으로 이 당시 일본인 지주들이 6천만 평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225)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사회와역사』, 2권, 한국사회사학회, 20쪽.

226) 조선 후기 궁방전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업무를 청부받은 도장이 가진 수세 상납 권리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가 가능했으며 정상적인 토지의 도장권의 경우 벼슬을 얻은 것과 같이 여겨졌다. 한희숙, 1995, 「도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03:10).

227) 조선 후기 농민들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성립시켜 나가면서 획득한 소작지에서의 부분소유권, 신용하 1995, 「도지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03:15).

를 지었다.

일본인 지주들의 대내적인 농장 경영방식은 대부분 소작제로 이루어졌지만, 대외적으로는 토지 구입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농장들인 이토 조베에(伊藤長兵衛)의 이등농장(伊藤農場)과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가 그 예시이다. 이등농장은 이토 조베에가 와타나베 타메키치(渡辺爲吉)와 함께 각각 4만 엔과 1만 엔을 출자하여 세워졌다.²²⁸⁾ 이들은 수해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산시켰고 수리시설²²⁹⁾이 좋아 안정성이 높은 토지들을 매입하였다.²³⁰⁾ 자기자본을 통해 구매하였기 때문에 땅을 천천히 볼 수 있었고, 좋은 입지의 땅들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고율의 소작료를 수취하였다.

그에 반해 후지이 간타로는 테라다 고이치(寺田洪一), 다카다 요시마루(高田義丸) 등의 자본가들에게 5만원을 차입 받아 전북농장을 시작하였다.²³¹⁾ 그는 타인의 자본으로 시작하여 이토 조베에와는 다르게 짧은 기간에 넓은 토지를 사들여야 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좋지 않은 천수답이나 미간지와 같은 저수량지(低收量地)를 위주로 구입하였다.²³²⁾ 이러한 그의 불량한 토지 확보는 그가 1909년 한국에서는 최초의 수리조합인 임익수리조합(臨益水利組合)의 조합장을 지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그는 임익수리조합을 통해 배수로 등의 수리를 위한 대형공사들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공사대금을 위해 소작료를 높게 책정하여 받았다.

정리하면 전북을 중심으로 나타난 일본인 지주들의 농장경영방식은 대내적으로는 비슷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토지구입 방식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토지에 들어간 총대금을 충당하고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높은 소작료를 수취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참고문헌

- ❖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사회와역사』, 2권
- ❖ 소순열, 2005, 「일제하 조선에서의 일본인 지주경영의 전개와 구조 -몇 가지 지주 경영 사례를 통하여」, 『농업사연구』, 4권
- ❖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울아카데미
- ❖ 최우중, 2009, 「일제강점기 이등가(伊藤家)의 토지소유와 지주경영」, 『농업사연구』, 8권
- ❖ 이규수, 2015,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 -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 『사람』 54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2」,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6호
- ❖ 소순열, 2021,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9호

228) 최우중, 2009, 「일제강점기 이등가(伊藤家)의 토지소유와 지주경영」, 『농업사연구』, 8권, 한국농업사학회, 63쪽.

229)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도수·배수하는 시설.

230) 최우중, 2009, 위의 논문, 65쪽.

231)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2」,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6호, 전주국립박물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117쪽.

2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위의 논문, 118쪽.

고창 지역 개관

18 이에진, 21 미즈키

1. 고창의 역사·연혁

고창은 전라북도 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의 고창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무장, 흥덕, 고창 3개 군으로 분리가 되어있던 것이 고창으로 통합하고 군청 소재지를 고창에 둠으로서 이루어진 군이다.²³³⁾

고창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군산조개더미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유적이 하천·해안의 연안에서 발견되었던 점²³⁴⁾으로 보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한시대의 고창은 마한의 영토인 모로비리국(牟婁卑離國)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모량부리현(牟良夫里縣)·송미지현(松彌知縣)·상로현(上老縣)·상칠현(上漆縣)에 속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각각 고창현·무송현(茂松縣)·장사현(長沙縣)·상질현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고창지방의 경우에는 당시의 장사현과 무송현이 나무족 영광군에 속해있는 것으로도 입증되었듯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고려시대부터 전라남도 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조선시대에는 해군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시되어 많은 성과 봉수대가 축조되었다.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고창현은 군으로 승격되어 전라북도에 편입되었고, 1906년 주변 지역이었던 무장군은 전라북도에 편입되고 흥덕현도 부안군(富安郡)으로 개칭되었다. 이처럼 앞서 언급했듯이 세 지역은 하나로 통합되어 고창군이 되었으며 193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14개의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55년에는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현재는 1개의 읍과 13개의 면으로 유지되고 있다.²³⁵⁾

233) 김봉곤, 2014,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3, 3쪽.

234) 장보웅·이영화, 2009, 「고창군高敞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3%A0%EC%B0%BD&ridx=0&tot=117>
(2022.09.16. 22:00).

235) 장보웅·이영화, 2009, 위의 글.

2. 고창의 지리적 특징



그림 19 고창 지도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창은 동경126°26' ~126°46' , 북위 35°17' ~35°34' 에 위치하며 면적은 607.72km²이고, 인구는 6만 46명(2015년 기준)이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13개 면, 563개 행정리(189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릉지가 넓고 충적지가 좁은 특징으로 인해 하천은 대체로 짧고 수량도 적은 편이며, 충적평야는 하천 유역에 좁게 형성되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창은 동경126°26' ~126°46' , 북위 35°17' ~35°34' 에 위치하며 면적은 607.72km²이고, 인구는 6만 46명(2015년 기준)이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13개 면, 563개 행정리(189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릉지가 넓고 충적지가 좁은 특징으로 인해 하천은 대체로 짧고 수량도 적은 편이며, 충적평야는 하천 유역에 좁게 형성되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3. 고창의 유적·유물



그림 20 고창 고인돌 (한국 거석문화의 상징을 보다)

고인돌은 큰 돌로 만든 무덤이며, 고인돌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이다. 한반도에는 기원전500년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밀집지역이며, 약1,764m 범위에 442기의 고인돌이 군집한다.²³⁸⁾

고인돌에는 다리가 긴 돌기둥에 돌을 올려 테이بل 모양으로 돌을 짠 '북방식'과 짧은 돌기둥에 돌을 얹은 바둑판 모양으로 돌을 짠 '남방식' 두 종류가 있다. 고인돌을 축조한 기술은 현대

고인돌에는 다리가 긴 돌기둥에 돌을 올려 테이블 모양으로 돌을 짠 '북방식'과 짧은 돌기둥에 돌을 얹은 바둑판 모양으로 돌을 짠 '남방식' 두 종류가 있다. 고인돌을 축조한 기술은 현대

고창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도 있다. 백제 위덕왕 24년에 검단선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주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279호인 금동지장보살좌상, 보물 제280호인 지장보살좌상, 보물 제290호인 대웅전, 보물 제1200호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등이 있다.²⁴⁰⁾

236) 장보웅·이영화, 2009, 위의 글.

237) 김낙중, 2017, 「고대 고창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6, 2쪽.

238)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18~19쪽.

239) 이영문, 2001, 위의 책, 192쪽.

240) 장보웅·이영화, 2009, 앞의 글.

4. 고창의 문화·예술

고창농악은 전라도 고창, 영광 등지의 해안 주변을 끼고 형성된 농악의 하나이며, 여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고창농악은 고창지역 무악(巫樂)과도 관련을 맺으면서 변천해 온 것으로 지정 당시엔 영광농악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다. 1985년에는 고창농악단이 창단되어서 옛 고창농악을 전수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6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고창동리국악당 및 고창농악전수관을 중심으로 2014년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²⁴¹⁾



그림 21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

또한, 고창은 조선의 전통 민속 예능인 판소리도 유명하다. 18세기경부터 서민들의 오락으로 각지의 축제와 광장에서 공연되었으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는 많은 명인들이 나와 전성기를 맞았다. 판소리가 태어난 배경에는 한반도 남부에 많은 무당에 의한 제사에 있어서 무악의 반주와 함께 불리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²⁴²⁾

참고문헌

- ❖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 ❖ 이정철, 2004, 『Dolmary relics of prehistoric age』, 백마출판사
- ❖ 장보웅·이영화, 2009, 「고창군(高敞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봉곤, 2014,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3
- ❖ 김낙중, 2017, 「고대 고창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6
- ❖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21, 『고창을 이야기하다』, 기억

241)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21, 『고창을 이야기하다』, 기억, 32쪽.

242) 고창군 문화관광해설사, 2021, 위의 책, 88쪽.

고창읍성

17 이수길, 경제 20 채송은

1. 읍성이란 무엇인가?

읍성이란 지방의 관부(官府)와 민거(民居)를 둘러싸 싸는 성을 말한다. 읍(邑)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성으로 둘러싸인 취락’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나, 이 중에서도 종묘와 왕궁이 있는 도성(都城)과 구별되는 것이 읍성이다.

삼국시대에는 산성과 읍성이 따로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이 시기에 지방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읍성이 산성과 같이 위치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는 주요 지방도시에 읍성이 축조되었으며 이 시기에 존재했던 규모가 작은 읍성들은 조선왕조로 이어졌다. 특히 세종 때부터는 바다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읍성이 새로이 축조되거나 개축되었다.

읍성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으나, 1910년 일본에 의하여 읍성 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들이 철거되었다. 현존하는 읍성으로는 정조 때 축조된 화성(華城)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모양성이라 불리는 고창읍성, 동래읍성 등이 남아있다.

읍성은 행정구역의 등급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부(府)·목(牧)·군(郡)·현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읍성의 크기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나, 주민의 수효가 읍성의 크기에 관계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³⁾

2. 고창읍성



그림 22 성벽에서 바라본 고창읍성 정문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인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축조되었으며, 1965년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전라북도 서남쪽에 위치한 고창은 예로부터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잘되어 사람들이 거주하기 적합한 장소였다. 고창에서는 각종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졌고 또 그 수확량 또한 많았는데 이를 노린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 방어를 위하여 고창읍성이 축조되었다.

고창읍성은 주변의 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바깥쪽에 성을 쌓은 뒤 읍성을 설치하여 성문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 고

243) 차용길, 1996, 「읍성(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8D%EC%84%B1&ridx=0&tot=88>
(2022.09.17. 20:18).

창 주민들은 성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생활하였으며 오직 관아만이 성 내부에 위치하였다. 유사시에 주민들은 성 안으로 피신하여 생활하였다. 고창읍성의 축성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약 5만 평에 달하는 면적에 총 22동에 달하는 관아 건물과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우물, 그리고 연못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관아 건물의 대부분은 손실되었다.²⁴⁴⁾

성의 둘레는 약 1.7km, 높이는 4~6m로 현재는 동·서·북문과 동헌, 내아, 객사 등이 남아 있다. 축성 당시에는 관아 건물 22동과 연못, 수구문 등이 있었지만 병화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1976년부터 성문과 성벽을 비롯한 일부 건물이 복원되었다.



그림 23 고창읍성

3. 고창읍성의 역사와 답성놀이

사적 제145호인 고창읍성은 백제 시기 고창을 ‘모량부리현(牟良夫里縣)’ 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비롯해 모양성(牟陽城)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다. 나주진관, 장성의 입암산성 등과 더불어 호남내륙을 방어하는 요충지로, 단종 원년(1453)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때 완성되었다고도 하나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다.

1872년경에 편찬된 「고창현읍지」에는 고창읍성에 대해 "읍성을 둘로 쌓았는데, 둘레는 3,080척이고, 높이는 12척이다. 읍성 안에 못 2개소와 샘 4개소가 있다"고 하였다.²⁴⁵⁾ 고창읍성은 성곽 둘레가 1,684m, 높이는 4~6m, 면적은 5만 172평으로, 북문인 공북루와 동문인 등양루, 서문인 진서루 등의 성문 3곳이 있으며 각 성문은 웅성시설을 갖추고 있다. 6개소의 치성으로 해자 등방과 공격을 위한 국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고창읍성은 다른 읍성과 달리 남문이 없고 오히려 북문이 정문 역할을 한다. 고창은 동쪽과 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은 지역이므로, 진산(鎭山)인 반등산(半登山)을 둘러싸고 쌓은 읍성도 자연히 평지에 가까운 북쪽에 정문을 내게 되었다. 고창읍성 내부는 다른 읍성들처럼 평지가 아니라, 야산과 좁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지형은 아니었다. 읍성에는 관아 시설물만 형성되었을

12) 차용걸, 1995, 「고창읍성(高敞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8D%EC%84%B1&ridx=0&tot=88>
(2022.09.17. 20:56).

245) 허경진, 2001, 『한국의 읍성』, 대원사, 96쪽.

뿐 민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성 밖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유사시에만 성안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²⁴⁶⁾

고창읍성에는 22개의 관아건축물과 4개의 샘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고창읍성에는 객사, 동헌, 내아, 책실, 작청, 관청, 옥사, 장청, 향청, 성황사, 풍화류, 팔각정의 12개의 시설과 연못 1곳이 복원되었다.²⁴⁷⁾



그림 24 고창읍성의 답성놀이

고창읍성만이 가지는 독특한 놀이로 ‘답성놀이’가 있다. 답성놀이는 윤년 윤달, 특히 3월 윤달에 부녀자들이 성곽 위에 올라가 산성(山城)의 능선을 따라 밟으며 열을 지어 도는 풍속으로 성돌기, 성밟기라고도 한다.²⁴⁸⁾ 성을 둘 때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세 번 돌아야 하며 성입구에 그 돌을 쌓아 두도록 했는데 이는 돌을 머리에 이면서 체중을 가중시켜 성을 더욱 다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뜻은

이 성곽의 축성 배경이 외침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석전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예지로 머리에 인 돌을 성안에 놓고 가도록 했을 것이다. 여성들의 성벽 밟기 풍습은 한 해의 재앙과 징벌을 쫓고 복을 비는 의식의 하나로 좋은 민속자료가 되고 있다.²⁴⁹⁾ 고창군에서는 답성민속을 기리기 위해 음력 9월 9일 중앙절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고창모양성제와 함께 답성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차용걸, 1995, 「고창읍성(高敞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차용걸, 1996, 「읍성(邑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박영순, 2009, 「고창읍성(高敞邑城)과 무장읍성(茂長邑城)」, 『국토』 328
- ❖ 배영일, 2011, 「내소사 쾌불 : 보물 제1268호」, 국립중앙박물관
- ❖ 허경진, 2014, 「한국의 읍성」, 대원사
- ❖ 이종명, 2017, 「고창읍성」, 『私學』 147

246) 허경진, 위의 책, 98쪽.

247) 고창군, 2000, 『고창읍성 관아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5~16쪽.

248) 송화섭, 「답성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3565> (2022.09.17. 23:50).

249) 고창모양성제, <http://www.moyangseong.co.kr>.

신재효와 판소리

21 손채연, 정치외교 17 전유진

1. 생애 및 가문

신재효(申在孝)는 1812년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신광흡(申光洽)은 경기도 고양 출신으로 고창에서 관약방(官藥房)을 운영하여 부를 쌓았다. 그를 바탕으로 35세 이후에 이방이 될 수 있었고 후에는 호장(戶長) 자리에 올랐다.²⁵⁰⁾ 그는 1884년에 사망했다.

1) 신재효와 조선 후기 향리 사회

중요한 사료인 집안의 고문서에 의하면 그의 선조들은 한양에서 하급 무임으로서 잡과-중인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으나 실패하였고 이는 그의 아버지 신광흡이 고창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집안은 수백 년 동안 한 지역에서 호장이나 이방을 독점해온 전통적인 19세기의 향리 가문도 아닌 타 지인이었다. 신재효의 조부 신한빈 대까지 그의 선조는 150년 동안 한양에서 하급 무임을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개인보다는 씨족을 바탕으로 지위를 규정하던 19세기 조선 사회 특성상 관직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²⁵¹⁾ 신광흡은 경주인(京主人) 자격으로 고창에 기부함으로써 그곳으로 이거하려는 발판을 삼으려 했다.²⁵²⁾ 그의 아버지 신한빈이 (신재효 조부) 축적한 부는 도움이 됐고 또 신재효의 관직 진출에는 신광흡이 마련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현실, 괴리감, 판소리

1862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 힘들게 진입한 이서사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자신이 포함된 이서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직면하는 동시에 그의 아버지의 기부를 통해 하층민들에게 얻은 덕망이 상반되는 상황은 하층민들의 향리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재효로 하여금 향리사회에서 벗어나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향리 지식인들이 많이 채택한 방식인 한양의 중앙정치 별열들의 문객이 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만의 방식으로 꿈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가사를 통하여 권력을 풍자하거나 좌절을 표현했다. 또한 그와 가까웠던 향리에 의하면 그는 스스로의 호를 ‘호장’(戶長) 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노래로 회롱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19세기 사회에 대한 허탈감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²⁵³⁾

250) 강현영, 1995, 「신재효(申在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C%9E%AC%ED%9A%A8&ridx=0&tot=15>
(2022.09.17.).

251) 이훈상, 2005,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고문서연구』 26, 255쪽.

252) 이훈상, 2005, 위의 논문, 349쪽; 352~353쪽.

253) 이훈상, 2005, 위의 논문, 280~281쪽.

2. 신재효의 판소리 활동

1) 신재효의 판소리 활동 배경

판소리 세계와 신재효 사이의 접합점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가 향리의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소리 및 판소리 창자와 접촉하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고창 판아의 각종 잔치에는 고창현에 소속된 예능인들과 관기(官妓) 등이 가무와 연주를 담당하였겠지만, 특별한 연회의 경우에는 판소리 창자들을 초청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 터이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소리 세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을 것이다.

또한 예술 사회학적 측면에서 신재효의 삶과 판소리 세계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신분은 중인층에 속하지만 재산을 축적한 요호부민(饒戶富民)들이 등장하여 왕족을 비롯하여 양반사대부들이 향유하던 문화를 향수하려는 욕구를 분출하게 된다. 왕족과 양반사대부들이 판소리 공연의 감상층에 등장한 시기에 요호부민을 비롯한 지방향리 출신들이 판소리 감상층으로 등장한 점도 이러한 흐름에 속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조선에 생겨 / 장승덕에 못 생기고
활 잘 쏘아 평통할까 / 글 잘 한다 과거할까.

마지막으로 신재효 개인적 삶에서 그가 판소리를 애호하게 되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자서가(自敍歌)로 명명된 위의 노래에서 그는 조선조 사회의 신분제의 질곡 속에서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도 이를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한탄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대로부터 모은 재산의 토대 위에서 그는 판소리 창자를 후원하면서 판소리 문화를 향유하였다.²⁵⁴⁾

2) 신재효의 활동내역

신재효는 판소리를 즐기며 광대를 모아 판소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는 진채선(陳彩仙) 등의 여자 광대를 길러내어 판소리의 공연 주체인 창자를 여성 예능인에게로 넓혔다. 또한 「춘향가」를 남창과 동창으로 구분하여 어린 광대가 수련할 수 있는 대본을 마련하기도 하여 판소리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그는 「광대가」를 지어서 판소리의 이론을 수립하였는데, 인물·사설·득음(得音)·너름새라는 4대 법례를 마련하였다. 만년에는 「춘향가」·「심청가」·「박타령」·「토별가」·「적벽가」·「변강쇠가」의 판소리 여섯 마당을 골라서 사설을 개작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게 하고, 상층 취향의 문투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래서 하층의 발랄한 현실 인식이 약화하기도 하였으나, 아전으로서 지닌 비판적 의식이 부각된다.²⁵⁵⁾

254) 서종문, 2019, 「신재효 시대와 고창 지방의 판소리 문화」, 『판소리연구』 47, 10~12쪽.

255) 강한영, 1995, 「신재효(申在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C%9E%AC%ED%9A%A8&ridx=0&tot=15>
(2022.09.18.).

3) 신재효의 작품세계

우리 청으로 가십시오. 내 집으로 가십시오. 색주가로 가십시오.
삼백 냥 드릴게 좌수 시켜주오. 천 냥 낼게 이방 시켜주오.

<심청가>에서 사또와 대면하고 나온 심봉사에게 관속들이 몰려들어 청탁하는 대목이다. 관청이나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색주가’로 가자는 하는 모양은 영락없는 성 접대의 모습이며, 특히 좌수보다 이방의 자리가 훨씬 고액임을 보아 이방이 당대 이권을 쥐고 있던 핵심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재효는 이러한 관속들의 모습과 양반관리들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그려내었다. 세도아전과 간물출패는 신재효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관의 부정적 모습으로, 이들의 행태는 여러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향촌사회에서 이들의 권력이 막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재효는 관과 민에 대하여 비판과 동시에 옹호하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다. 관리의 횡포와 권력의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이본에서처럼 직설적인 부정을 하지는 않았다. 특히 아전에 대한 시각은 세도아전의 경우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으나, 일반적인 아전들은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민에 대한 시각 역시 양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춘향이나 방자, 월매, 심청, 흥보 등의 세속적이고 계산적이며 게으른 성격 등을 묘사하면서도 그들이 피지배층으로서 누리는 현실과 승리하는 결말을 통해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즉 신재효가 보여주는 계층 의식은 어느 한 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냉정하고 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⁶⁾

4. 신재효와 관련된 장소

185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고택은 현재 고창군 고창읍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고창판소리 박물관과 고창생활문화센터의 판소리 전수관을 옆에 두고 있다. 그의 고택은 일제 때부터 1979년까지 고창경찰서의 관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붕이 함석으로 개조되고 건물 내부의 구조가 개조되었다. 또 집 뒤편에는 있던 연못 자리는 메워지고 고창경찰서가 들어섰다. 현재에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다시 개조되었다.²⁵⁷⁾

참고문헌

- ❖ 강한영, 1995, 『신재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일진, 1995, 「고창신재효고택(高敎申在孝古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훈상, 2005, 「19세기 전라도 고창의 향리세계와 신재효」, 『고문서연구』 26
- ❖ 최혜진, 2012, 「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관(官), 민(民)의식과 사회적 지향」, 『韓國言語文學』 8
- ❖ 서종문, 2019, 「신재효 시대와 고창 지방의 판소리 문화」, 『판소리연구』 47

256) 최혜진, 2012, 「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관(官), 민(民)의식과 사회적 지향」, 『韓國言語文學』 82, 267~272쪽; 290~292쪽.

257) 김일진, 1995, 「고창신재효고택(高敎申在孝古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B%A0%EC%9E%AC%ED%9A%A8&ridx=1&tot=15>
(2022.09.17.).

인촌 김성수 고택

사회 21 김영아, 교육 17 김동찬

1. 인촌 김성수 고택의 건축과 구조

인촌선생생가(仁村先生生家)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이었던 인촌 김성수(1891~1955)와 수당 김연수가 태어난 곳으로 전라북도 시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47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큰집 안채는 1861년, 사랑채는 1879년, 작은집 안채는 1881년, 사랑채는 1903년에 건립되었지만, 1907년 봄, 화적떼의 영향으로 부안군으로 이사한 뒤, 1977년도에 이르러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남북으로 긴 장방형 대지 위에 큰집과 작은집이 앞뒤로 나란히 북향해있다.²⁵⁸⁾ 큰집에는 안채, 사랑채, 곳간채, 안 문간채, 바깥 문간채, 솥을대문과 작은 집으로 드나드는 문 등이 있으며 작은집은 큰집에 비해 곳간채만 없을 뿐 건물 자체의 규모나 치장, 사용된 부재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²⁵⁹⁾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집의 안채는 북향한 팔작지붕의 홀처마의 一자형 집이다.²⁶⁰⁾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민가와 같이 큰집 안채는 우측에서부터 건넌방, 대청, 큰방, 부엌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둥은 대부분 방주(方柱)를 사용하였고 굵기는 200mm 내외이고 높이는 2,700mm이다.²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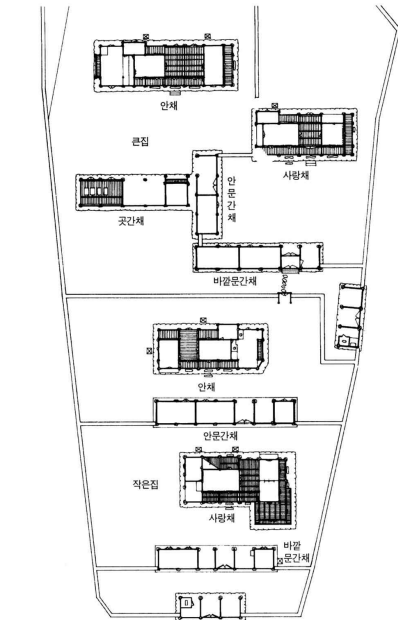


그림 25 인촌선생생가 배치도

사랑채는 안채 동쪽에 문간채들과 함께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一자형 팔작집이며 칸살은 좌측부터 큰방·대청·건넌방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면과 측면에 모두 뒷마루가 있으며 큰방 뒤에는 조그만 골방을 덧달아 내었다. 전면의 뒷마루는 폭이 1069mm이고, 측면의 뒷마루는 폭이 1060mm인데, 칸사이에 디딤돌이 하나씩 놓여있다. 이와 같이 큰방 뒤쪽에 골방이나 도장방을 만든 것은 이집의 공통된 특징이다. 큰방의 전면과 대청마루 쪽으로는 2분합문의 세살문²⁶²⁾이 나 있고, 후면에는 골방, 후면으로 통하는 외작문이 나 있다. 대청의 전면 출입문은 4짝의 세살문이고 후면에는 2분합문을 두고 있다.²⁶³⁾

258) 홍승재, 1998, 「인촌선생생가(仁村先生生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7106> (2022.09.15. 23:32).

259) 문화재연구소, 1994, 『民家調査報告書：全南 全北篇』, 78~79쪽.

260) 一자형, 즉 직렬형은 안채와 부속채를 나란히 배치한 형식이다. 이형식은 안채와 사랑채를 영역적으로 분리하여 담장으로 막아놓고 조그마한 협문으로 상호 통하게 하며 각기 다른 출입구를 두고 있다. 천득염, 2010, 「호남지방의 전통주거에 나타난 건축적 의미」, 『호남학(구 호남문화연구)』 48, 387~388쪽 참고.

261) 문화재연구소, 1994, 위의 책, 80쪽.

262) 상중하에 띠 모양으로 가로 살을 댄 문.

263) 문화재연구소, 1994, 위의 책, 80쪽.

작은집은 큰집과는 달리 각 건물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一자집이며 북향하고 있으며, 우측에서부터 부엌 2칸 규모의 큰방·대청·건넌방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큰집과 거의 유사하지만, 대청의 규모가 1칸이고 건넌방 뒤쪽에 도장방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기둥은 북측 전면 툇마루에만 원주(圓柱)를 세웠고, 나머지는 방주를 세웠다.

그러나 사랑채는 ㄱ자집²⁶⁴⁾의 곱은자집으로 전면에 돌출한 누마루까지 갖추고 있어 큰집보다도 더 격식을 갖추었다. 다른 건물들처럼 북향하고 있으며, 우측부터 건넌방과 옷방, 그 앞의 누마루, 대청, 2칸 규모의 큰방, 그리고 부엌과 골방으로 이루어져있다. 옷방과 건넌방 중앙에는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청으로 통하는 문은 없다. 북측 전면에는 세살문을 달았고, 누마루의 삼면에는 낮은 난간을 설치하였다.²⁶⁵⁾ 북측 전면의 툇마루의 폭은 1254mm이고, 서측 누(樓)의 툇마루 폭은 575mm이다. 기둥은 방주와 원주를 구분없이 사용하였는데, 방주의 한변은 195mm이고, 원주의 직경은 210mm정도이다.

2. 인촌 김성수의 생애와 평가

김성수는 1891년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인촌리에서 김경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장남으로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1908년에는 도쿄로 유학을 떠나는 등 신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²⁶⁶⁾ 1914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이 인수한 중앙학교의 교장직으로 잠시 재직한 뒤, 동아일보의 사장이 되어 경영 일선에 나섰다.²⁶⁷⁾ 당시 조선총독부가 통제하는 조선의 언론 환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인이 운영하는 언론지로서, 동아일보가 지닌 사회적 의미는 매우 컸고 1922년 김성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족주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²⁶⁸⁾ 이 시기 그의 정치적 성향은 분명하지 않았으나 친일 폭력 조직의 협박으로 인해 서서히 민족 개량주의, 실력양성주의와 같은 타협적 노선을 걷게 된다. 이는 일제의 조선 통치를 인정하되 조선인의 자치를 요구하는 주장으로, 김성수는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932년부터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한 김성수는 점차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시작한다. 그가 운영한 동아일보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어용 기관지로 전락했고 일본군 후원 활동에 동원되었다.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1942년 이후 김성수는 완전한 친일파로 전향해 내선일체 찬양글 및 학도병 권유문을 배포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²⁶⁹⁾ 하지만 이와 같은 친일 행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이승만과 함께 반공운동을 주도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²⁷⁰⁾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는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에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승만

264) ㄱ자형, 즉 직교형은 안채에 직각방향으로 부속채가 직접 연결되거나 약간의 공간을 두고 꺾여 있는 모습이다. 천득염, 2010, 위의 논문, 387쪽.

265) 홍승재, 1998, 앞의 문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7106> (2022.09.25. 17:17).

266) 백완기, 2008, 「김성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건국을 추구하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40쪽.

267) 백완기, 2012, 『인촌 김성수의 삶: 인간자본의 표상』, 나담, 69~71쪽.

268) 백완기, 위의 책, 73~78쪽.

269) 장신, 2009,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275~277쪽.

270) 이현희, 2008, 「대한민국의 건국과 인촌 김성수의 기여도」, 『경주사학』 28, 45~48쪽.

정권에 반대하는 호헌동지회를 결성해 범야당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으나, 건강 악화로 1955년 사망했다.²⁷¹⁾ 한국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시행되었고 1962년 대한민국 공로훈장 복장까지 추서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의 수많은 친일 행위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서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친일인사로 기재된 것은 물론이고 공로훈장 서훈마저 취소되었다.²⁷²⁾

구한 말 부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제 강점기 35년을 전부 겪고 6.25전쟁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한 김성수의 생애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한번에 보여주는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다. 그는 생애 초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점차 완전한 독립이 아닌 일제하에서의 자치를 주장했으며 독립의 꿈이 요원해진 193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변절하여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에 나섰다. 하지만 조선이 남북으로 갈라져 냉전의 최전방 분쟁 지역이 되자, 김성수는 자신의 친일 행적을 뒤로하고 재빠르게 미국과 협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6.25 전쟁 와중에는 부통령을 맡는 등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절정에 달하였다. 이후 사망 직전까지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를 저지했던 그의 활동은 4.19 혁명의 간접적인 배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류사에서는 완전한 선의 인물도, 악의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촌 김성수라는 인물 역시 선악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날 때 그를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문화재연구소, 1994, 『氏家調査報告書：全南 全北篇』
- ❖ 홍승재, 1998, 「인촌선생생가(仁村先生生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현희, 2008, 「대한민국의 건국과 인촌 김성수의 기여도」, 『경주사학』 28
- ❖ 백완기, 2008, 「김성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건국을 추구하다」, 『한국사 시민강좌』 43
- ❖ 장신, 2009,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 ❖ 천득염, 2010, 「호남지방의 전통주거에 나타난 건축적 의미」, 『호남학(구 호남문화연구)』 48
- ❖ 백완기, 2012, 『인촌 김성수의 삶: 인간자본의 표상』, 나담

271) 백완기, 앞의 논문, 49쪽.

272) 이현희, 앞의 논문, 38쪽.

부안 지역 개관

18 최승현, 신학 20 김주윤

1. 부안과 고려청자

1)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로 만든 형태 위에 철분이 1~3% 정도 들어 있는 장석질 유약을 입혀 1,250~1,300℃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로서, 이때 유약의 색은 초록이 섞인 푸른색으로 비취색과 비슷하고 투명에 가까우며 태토(胎土)의 색은 흐린 회색이기 때문에, 청자의 색은 회색이 바탕이 된 녹청색이 되며, 고려사람들은 이를 비색(翡色)이라 말하였다. 청자의 태토와 유약은 청자를 만든 나라, 만든 시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고, 굽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²⁷³⁾

2) 고려 시대의 부안 유천리

고려 시대의 보안현은 과거 백제의 혼랑매현(欣良買縣)이었는데, 신라 때는 희안(喜安)으로 이름이 바뀌어 고부군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 때는 희안에서 보안으로 이름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이 지방은 해안선을 긴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염창산성(廉倉山城)을 비롯한 13개의 크고 작은 성과 계화도 봉수대·격포리 봉수대, 그리고 진(鎭)과 포(浦)가 많이 존재한다. 또, 제안포(濟安浦)에는 고려 시대의 조창 중 하나인 안흥창(安興倉)이 있어, 전라도 지방의 세미를 경창까지 운송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한다.²⁷⁴⁾

3) 유천리 요지의 발견과 위치

부안군의 보안면에는 유천리 요지라는 고려청자의 산지로 유명한 유적이 존재한다. 요지는 도자기, 기와 등을 만들어 굽던 가마와 공방지 등 흔적이 남아있는 터로, 부안 유천리 요지는 1929년 노모리켄(野守健)에 의해 조사되었다. 유천리 요지는 굴포만 바닷가 앞의 넓은 들판에 있는 가마터로, 부안 유천리에는 약 37개소의 청자 가마터가 분포하며 이를 7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1, 2구역은 8개소의 가마터가 있으며 오늘날에는 논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3구역은 부안 고려청자 요지 유적 중 핵심이 되는 곳으로 12호 일대를 발굴하여 고급의 청자와 가마1기, 고려 시대 건물터 등이 조사되는 등 여러 유물과 유구가 발견되었다. 또한, 6·7구역도 발굴을 통해 총 7기의 가마가 조사되었으

273) 정양모, 1996, 「청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20:22).

274) 노도양·이영화, 2009, 「부안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20:25).

며, 굴뚝으로 구성된 반 지하식의 진흙 가마에서 고려청자가 구워졌음을 알 수 있다.²⁷⁵⁾

4) 요지의 발굴과 의의

요지 유적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대체로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전반의 것들이며, 조금 더 이른 시기의 청자도 약간 발견되고 있다. 그중 가장 우수한 도자기 조각이 나오는 곳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12호 가마터 일대이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청자 조각들은 최상급 고려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청자 외에도 백자·진사백자 종류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도자기의 형태는 접시·완·발·매병·병·탁잔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높이 1m 이상의 매병은 크기나 무늬, 그리고 제작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고려도자기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또한 ‘효문(孝文)’·‘조청(照淸)’이라는 글씨가 적혀있어, 고려 도자기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 해준다.²⁷⁶⁾

이러한 유천리 요지 유적의 의의를 살펴보면, 이 유적은 우수한 재료와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고려 왕실과 귀족층이 사용하는 최상급 도자기를 생산했던 장소로, 고려 도자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유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부안: 항일 의병 운동

1) 부안 지역 의병 활동 개관

전라북도 부안 지역과 관련한 항일 의병 운동은 주로 후기 의병 운동 기간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시기의 의병 운동은 1905년의 을사늑약의 체결 이후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뜻을 세우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적이나 친일 성향의 집안만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지방의 유력가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독특하다.²⁷⁷⁾ 일례로, 전라북도 부안 출신 의병들은 주로 ‘이성화(李成化) 의진(義陣)²⁷⁸⁾’, ‘김영진(金泳鎭) 의진’, ‘유장열(柳章烈) 의진’에서 활동했는데, 이성화 의진의 경우 군자금을 마련하면서 지방의 유력가나 친일적인 집안을 습격하였고, 소수의 휘하와 함께 지도, 위도(鰐島), 식도(食道), 비력도 등을 돌면서 군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군자금 마련 방식은 다른 의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²⁷⁹⁾

2) 박경석 의병

이어서 부안 출신 의병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박경석(朴景錫)은 부안군 소산면 신울포리에 거주하던 농민으로 1909년 2월에서 4월까지 유장열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09년 8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부안 출신의 의병으로 활약한 박경석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의병인 박경석(朴京石)은 부안군 소산면 울포에 살며 주막을 경영하다가, 1909년에 유장열 휘하에

275) 「부안 유천리 요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6. 20:29).

276) 「부안 유천리 요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2022.09.16. 20:29).

277) 임혜영, 2021, 「항일 의병 운동」,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022.09.16. 20:32)

278)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각각의 의병부대를 의진이라고 한다.

279) 임혜영, 2021, 앞의 자료, 향토문화전자대전.

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박경석은 다른 박경석과 마찬가지로 1909년 8월에 일본 수색대에 체포되며 의병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다.²⁸⁰⁾

3) 김병선 의병

김병선은 지금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388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상서면 청림리에 사는 진사 박필환의 문하에서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가 의병 운동에 뜻을 보이고 동참하자, 김병선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의병 운동에 뛰어들었다. 김병선은 변산에서 활동하던 함평 출신 김조락과 함께 만주로 갈 것을 모의하였고, 1918~1919년쯤 김병선, 박필환, 김조락은 함께 만주로 탈출했다.

부안에서 만주로 떠난 이후, 김병선은 1920년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의 사령관 홍범도(洪範圖)의 부대에 들어가 활동하였는데, 1920년 10월 일제의 간도 출병이 있자 김병선은 국내 정세를 확인하기 위해 함경남도에 진입하여 풍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었다.²⁸¹⁾

4) 부안 지역 의병 활동 의의

박경석과 김병선 이외에도, 정관용, 이경선, 이거석, 진상구, 채복만 등등의 부안 출신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의병 투쟁에 나섰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⁸²⁾ 호남지역은 동학농민운동의 후폭풍으로 많은 농민이 일본에 살해되어 의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가 적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다는 목적 아래 목숨을 내걸고 항일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²⁸³⁾ 부안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대체로 후기 의병 운동에 참여하며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였고, 을사늑약(1905)에 이어 한일 병합 조약(1910)으로 한·일이 병합된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의군부 창설 및 만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 정양모, 1996, 「청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노도양, 이영화, 2009, 「부안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부안군지편찬위원회, 2015, 『부안군지』, 부안문화원
- ❖ 임혜영, 2021, 「항일 의병 운동」, 향토문화전자대전
- ❖ 정재철, 2021, 「김병선」, 향토문화전자대전
- ❖ 「부안 유천리 요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80) 임혜영, 2021, 위의 자료, 향토문화전자대전.

281) 정재철, 2021, 「김병선」, 향토문화전자대전.

282) 부안군지편찬위원회, 2015, 『부안군지』, 부안문화원, 570쪽.

283) 부안군지편찬위원회, 2015, 위의 책, 567~568쪽.

내소사(來蘇寺)

18 빈경원, 21 위소이

1. 소개

내소사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에 소재한 백제의 사찰로, 633년(무왕 34) 승려 혜구(惠丘)가 창건하였다.²⁸⁴⁾ 창건 당시 명칭은 ‘소래사(蘇來寺)’였으나, 내소사로 명칭이 변화했다. 이에 대하여 소정방(蘇定方)이 방문하여 군중재(軍中財)를 시주한 것을 기념하여 내소사로 바꾸었다는 설이 있지만,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²⁸⁵⁾ 이외에도 조선 말기부터 내소사로 불렸다는 추측이 있다.²⁸⁶⁾ 임진왜란 중 화재로 인해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이후 1633년(인조 11)에 청민(淸旻)이 절을 중건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웅보전(大雄寶殿)을 지었고, 1640년에는 (인조 18)에 청영(淸映)이 설선당(說禪堂)과 요사를 추가로 건립했다.²⁸⁷⁾ 그 뒤로도 1983년 일주문 건립, 1985년 대웅보전 중수, 1986년 천왕문 건립과 설선당 보수 등 여러 차례의 중·개축을 거쳤다.²⁸⁸⁾

내소사의 중요문화재 및 당우(堂宇)에는 1963년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이 있다.²⁸⁹⁾ 이외에도 보물 제277호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동종, 보물 제278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蓮華經), 1997년 보물로 지정된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이 있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1986년 설선당과 요사, 보종각(寶鐘閣), 봉래루(蓬萊樓), 삼층석탑이 있다.²⁹⁰⁾

‘백지묵서묘법연화경’은 1415년이라는 조성연대와 발원자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사경과 이 사경을 보호하고자 덮었던 포갑과 사경보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라 그 가치가 매우 높다.²⁹¹⁾ 사경보 또한 자수 솜씨가 정교하며 아름다운데, 조선 초기까지의 자수품은 안 남아있어, 이는 국내 유일의 작품으로 추정된다.²⁹²⁾

이와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내소사에 대한 기록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내소사의 역사를 정리한 사료가 한국전쟁 중 화재로 소실되어 그 체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되었다.²⁹³⁾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 문집에 내소사에 대한 단편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지상의 『재변산소래사』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다.²⁹⁴⁾

284) 김위석, 1996, 「내소사(來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5:23).

285) 김위석,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6) 조춘용, 1997, 「내소사일원(來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5:25).

287) 김위석,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8) 김위석,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9) 조춘용, 1997,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0) 김위석,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1) 이분희, 2022.03.07., 「[사찰정보문화재 50選]<41>내소사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 (2022.09.17.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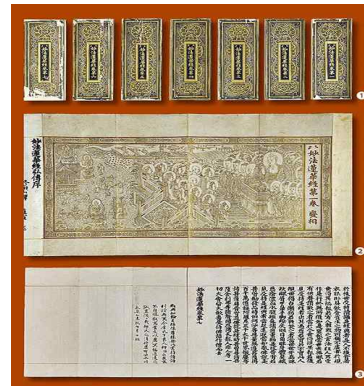
292) 이분희, 2022.03.07., 위의 자료, 불교신문.

293)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 정밀실측조사보고서/디딤건축사사무소 실측조사』, 문화재청, 39쪽.

294)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39쪽.



<그림26> 부안 내소사 일원



<그림27> 백지묵서묘법연화경

2. 내소사 대웅보전

대웅보전은 1633년(인조 11)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3년 보물 제291호로 지정되었다.²⁹⁵⁾ 내소사 대웅보전은 자연석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⁹⁶⁾ 막돌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세운 높은 기단 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圓柱)을 세웠다. 그 기둥 밑부분은 주춧돌을 평평하게 깎아 기둥의 밑둥에 맞추는 방식이 아닌, 주춧돌의 모양과 높이에 맞춰 기둥의 밑둥을 깎는 그랭이 수법을 쓴 것이 분명하게 관찰된다.²⁹⁷⁾ 이러한 점은 건물의 자연스러운미를 살리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 양식은 화려한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완주위봉사보광면전, 순천정혜사대웅전, 해남미광사대웅전 등 동시대인 17세기에 지어진 다른 불전들과 유사한 양식이다.²⁹⁸⁾ 그러나 평면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황금비율(1:1.62)에서 벗어난 1:1.414 비율은 두드러진 특이점이다.²⁹⁹⁾ 이렇듯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면에서 보이는 어칸과 좌우 협칸의 비를 4:3으로, 측면에서 보이는 비율을 3:2로 구성하여 합리적 공간 활용과 미적 조화를 모두 이루었다.³⁰⁰⁾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내소사 대웅보전의 매력은 '계획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둥의 양식도 자연스러움의미를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다. 각 우주(隅柱)³⁰¹⁾에 배흘림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평주(平柱)³⁰²⁾는 거의 민흘림 기둥으로 일부 평주는 굽어 있는 부재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한, 흰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굽어 있는 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별도 부재를 끼우고 반대쪽에는 굽어 있는 부분이 퍼질 수 있도록 홈을 파다.³⁰³⁾

내소사 대웅보전의 아름다움은 건물 정면의 꽃살문에서 극대화된다. 대웅보전의 정면 3칸은 모두 창

295) 주남철, 1995,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扶安來蘇寺大雄寶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5:37).

296) 주남철, 1995,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7) 주남철, 1995,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98)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앞의 자료, 85쪽.

299)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5쪽.

300)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5쪽.

301) 건물 외부의 각 모서리를 떠받드는 기둥.

302) 건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

303)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앞의 자료, 85쪽.

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칸에는 4분합의 문을 달고, 좌우의 협칸에는 2분합의 문을 달았다. 각 창호도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부는 솟을금강저꽃살문으로 짜고 하부는 2단의 궁판을 두었으며 중간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양의 꽃살문으로 장식했다.³⁰⁴⁾ 또한, 각 칸 중간 부분의 꽃살문 문양을 모두 다르게 새겼다. 좌협칸에는 국화문양, 어칸은 연꽃, 모란, 매화 등의 7가지 문양, 우협칸은 모란과 연꽃문양으로 장식했다.³⁰⁵⁾



<그림28> 내소사 대웅보전 정측면



<그림29>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창호

3.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내소사 설선당은 청민이 내소사를 중건할 당시인 1640년에 요사와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⁰⁶⁾ 설선당은 가운데에 작은 마당을 두고 4동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회(회)자형의 특이한 평면 배치를 보여주는데, 겹처마에 2익공(翼工)형식을 하고 있다.³⁰⁷⁾ 동쪽의 요사는 살림집 형식을 띄고 있는데, 설선당과 마찬가지로 맞배지붕의 형태를 띄고 있다.³⁰⁸⁾ 1층은 승방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중층 마루로서 각종 곡물과 생활 용구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⁰⁹⁾ 특히 설선당과 요사는 구부러진 나무를 그대로 가져와 기둥으로 삼아 자연과 인공적인 것들의 공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³¹⁰⁾



<그림30>부안 내소사 설선당 정면

304)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1쪽.

305)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위의 자료, 81쪽.

306) 천득엽, 1998, 「내소사설선당과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19:52).

307) 천득엽,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08) 천득엽,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09) 천득엽,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0) 천득엽, 1998,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문헌

- ❖ 주남철, 1995,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扶安來蘇寺大雄寶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위석, 1996, 「내소사(來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조준용, 1997, 「내소사일원(來蘇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천득염, 1998, 「내소사설선당과요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디딤건축사사무소, 2012,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 정밀실측조사보고서/디딤건축사사무소 실측조사』, 문화재청
- ❖ 이분희, 2022.03.07., 「[사찰성보문화재 50選]<41>내소사 백지묵서묘법연화경」, 불교신문

정읍 지역 개관

19 박준영, 19 임동하

1. 지리 및 자연



그림 31 정읍시 지도

정읍시는 전라북도 남서부의 도시 중 하나로 동쪽으로 임실군, 완주군, 서쪽으로 부안군, 고창군, 남쪽으로 순창군, 전남 장성군, 북쪽으로 김제와 접하고 있다. 인구는 105,590명(2022년 8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전라북도 시·군 중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가 많다. 면적은 693.07km²(2020년 12월 전라북도청 기준)로 전라북도 시·군 중 완주, 진안, 남원에 이어 4번째로 면적이 넓다. 행정구역은 1읍(신태인읍) 14면(북면, 입암면, 감곡면, 산내면, 산외면, 웅동면, 칠보면, 태인면, 고부면, 덕천면, 소성면, 영원면, 이평면, 정우면) 8동(내장상동, 농소동, 상교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장명동, 초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읍시 동남부에 노령산맥이 통과하며 산지를 이루며 내장산(內藏山, 763.5m) 등 높은 산들이 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구릉지와 평야 지대로 이 중 평야 지대는 김제평야의 일부를 이룬다. 앞에서 언급된 노령산맥 내장산의 정읍시의 유명한 산으로 내장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다. 단풍이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뤄 가을 단풍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내장산을 찾는다.³¹¹⁾

311) 조춘용·이영화, 2009, 「정읍시(井邑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4:21).

2. 지명 및 행정구역 변천사

1) 정읍군(1897년) 이전

『삼국사기』, 『고려사』에 따르면 정읍이라는 지명은 757년(경덕왕 16년) 신라 경덕왕이 백제의 영토였던 정촌(井村)현을 정읍(井邑)현으로 개칭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정읍현은 대산군(大山郡)의 영현(領縣)이었다가 고려 시대 때 고부(古阜)군의 속현이 되었다. 1598년(선조 22년) 정읍은 속현에서 현으로 승격하였고 초대 현감으로 후에 임진왜란의 영웅이 되는 이순신(李舜臣)이 부임하였다.³¹²⁾

2) 정읍군 승격 및 정읍, 태인(泰仁), 고부 통합

1897년 정읍현은 정읍군으로 승격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부군의 대부분과 태인군은 정읍군에 통합되었다는데, 고부군 중 정읍군에 통합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부안군에 통합되었다.³¹³⁾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볼 것은 고부군, 태인군은 정읍군보다 더 크고 1896년에 매겨진 행정구역 등급도 높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정읍군이 두 지역을 제치고 정읍군을 포함한 세 지역 통합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³¹⁴⁾ 그 이유는 1912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남선 정읍역의 존재 때문이었다. 정읍역의 개통으로 인한 철도교통 환경은 정읍군을 세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어, 세 지역 행정구역 통폐합을 불러일으켰다.³¹⁵⁾ 하지만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었다고 해서, 고부, 태인의 지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현재 정읍시 고부면, 태인면, 신태인읍 등으로 두 지역의 지명이 남아있다.

3) 정읍군 통합 이후

1930년 정읍군의 정읍면이 정주(井州)면으로 개칭된 후 이듬해 정주읍으로 승격하였다. 1933년, 용북면이 신태인(新泰仁)면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서 신태인이라는 지명은 정읍역과 같이 1912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신태인역 역명에서 따온 것이다.³¹⁶⁾ 이후 1940년 신태인면은 신태인읍으로 승격하였다. 1985년 정주읍은 정주시로 승격되어 정읍군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됐다. 1995년 도농통합 정책에 의해 정주시와 정읍군은 통합되어 정읍시가 되어 현재 정읍시의 형태가 되었다.³¹⁷⁾

312) 조춘용·이영화, 2009,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3) 조춘용, 이영화, 2009,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4) 조성욱, 2016,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이 역명과 지역 중심지 변동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6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5권 3호, 325쪽; 조성욱,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권 1호, 127~128쪽.

315) 조성욱, 2016, 위의 논문, 325쪽.

316) 조성욱, 2016, 위의 논문, 325쪽.

317) 조춘용·이영화, 2009,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정읍사

백제 시대에서 구전해온 민간전승 가요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이다. 원문은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조(時用鄉樂呈才條)에 『동동』, 『처용가』, 『정과정』 등의 고려가요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⁸⁾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쉴저재 너러신고요
어귀야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노코시라
어귀야네 가는 디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현대어 해석)
달아 높이 높이 돋으시어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치게 하시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진 곳을 디딜세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어느 것에다 놓고 계시는가
어기야차 나의 가는 곳에 저물세라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박병채 역)³¹⁹⁾
아으 다롱디리

현존하는 백제 당시의 문학, 예술 관계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읍사는 백제의 시와 노래가 지닌 개성을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이기에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³²⁰⁾

4. 정읍농악

농악은 농부들이 두레(마을의 공동 작업) 등을 시행할 때 치는 음악으로, 주로 췌과리, 징, 장구, 북 등과 같은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다. 정읍농악은 정읍 지역의 특색있는 농악이며, 세습무³²¹⁾ 집단에 의해 독자적인 예술성을 띄게 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지역의 민중 종교였던 보천교가 종교음악으로 채택하여 그 예술성을 더욱 끌어올렸으며, 이를 통해 정읍농악은 전국의 농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³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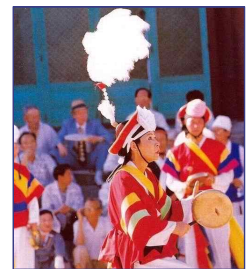


그림 32 정읍농악

318) 이종출, 1996, 「정읍사(井邑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20:08).

319) 박병채, 1968,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선명문화사(이종출, 1996, 「정읍사(井邑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2022.09.17. 20:27),에서 재인용).

320) 서철원, 2019,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국문학연구』, 40호, 7쪽.

321) 대대로 대를 이은 무당.

322) 이소라, 1999, 「정읍농악(井邑農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8. 02:16).

5. 무성서원

정읍 지역엔 여러 서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곳은 무성서원(武城書院)이다. 무성서원은 칠보면 무성리에 소재한 사원으로 최치원(崔致遠)과 신잠(申潛)의 사당이 합쳐진 것이다. 1696년(숙종 22년) 무성서원이라 사액 되었고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아래에서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³²³⁾ 이후 2019년 도산서원 등 8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그림 33 정읍 무성서원(井邑 武城書院)



그림 3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참고문헌

- ❖ 박완식, 1995,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종출, 1996, 「정읍사(井邑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소라, 1999, 「정읍농악(井邑農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조준용·이영화, 2009, 「정읍시(井邑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조성욱, 2012, 「행정구역명 설정 방법의 계층별 특성: 전라북도 시군명과 면명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권 1호
- ❖ 조성욱, 2016,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이 역명과 지역 중심지 변동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6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5권 3호
- ❖ 서철원, 2019,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국문학연구』, 40호

323) 박완식, 1995,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20:12).

고부 지역 개관

21 김서연, 21 김예림

1. 고부의 역사와 연혁

1) 삼한 시대~신라 시대

삼한 시대 마한의 54소국 중 하나인 고비리국이 현재 전라북도 고부면으로 추정된다.³²⁴⁾ 마한 연맹체의 일원으로 개별적 성장을 지속하던 고비리국은 이후 백제에 복속되었다.³²⁵⁾

'고부'라는 지명은 『삼국사기』에 "고부군은 본래 백제의 고사부리군(古沙夫里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현은 3개이다."라는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³²⁶⁾ 이처럼 백제 시대에 고부는 고사부리군이었으며, 5방 중 중방(中方)이 설치된 요지였다. 사비 시기 지방 통치체제였던 5방제 또는 방·군·성제에서 고부지역은 방성(方城)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관할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지방통치 기능을 수행했다.³²⁷⁾ 수도를 중심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사방성의 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의 중앙에 해당하는 고부지역에 중방성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⁸⁾

663년에는 당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고사주(古四州)로 개칭하고 평왜(平倭)·대산(帶山)·벽성(辟城)·좌찬(佐贊)·순모(淳牟)의 현을 관할했다. 통일신라 시대인 757년(경덕왕 16)에는 지명을 고부군으로 고쳤으며, 부령(扶寧)·희안(喜安)·상질(尙質) 등을 영현(領縣)으로 하였다.³²⁹⁾

2) 고려 시대

고려 시대에 와서는 태조 19년에 영주(瀛州)로 개칭되었으며, 951년(광종 2)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가 설치되었다. 이후 995년(성종 14)에 안남도호부가 낭주(朗州)로 이전되고 1019년(현종 10) 고부군으로 회복되었으며, 대산군(大山郡)과 정읍·인의(仁義)·부령·보안(保安)·상질·고창 등의 현을 임내로 관할 되었다. 충렬왕 때는 일시 수령이 폐지되고 영광군의 임내로 편입, 격하되었다가 곧 복구되었다.³³⁰⁾

3) 조선 시대~현대

조선 시대에는 1466년(세조 12), 고려 시대의 벼슬 지군사(知郡事)가 군수(郡守)로 바뀌었다. 임내 중 각 군·현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독립 고을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조선 초기에 직촌(直村)이 되었다. 이에 따라 1895년(고종 32)에 전주부 고부군, 1896년에 전라북도 고부군이 되었으며, 1906년 월

324) 김정학, 1995, 「점리비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23:56).

325) 김정학, 1995,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26) 『三國史記』 卷 第36 地理三 新羅, “古阜郡, 本百濟古眇校勒 053夫里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327) 김영심, 2019,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집, 7쪽.

328) 김영심, 2019, 위의 논문, 25쪽.

329) 최병운, 1996, 「고부(古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8:07).

330) 최병운,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지인 부안면이 흥덕군으로 관할이 옮겨졌다.³³¹⁾

이후 1914년, 남부면과 서부면을 중심으로 동부면·성포면·부안군·입상면과 건선면·흥덕군 일동면 등의 일부 동리를 합쳐 정읍군 고부면으로 하여 11개 동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영원면에 속했던 장문리와 소성면의 만수리를 편입하는 등 당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재의 고부면이 되었다.³³²⁾

2. 동학농민전쟁의 시발점이 된 고부 농민봉기(고부 민란)

전라도는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질을 가진 조선의 곡창지대였다. 이에 따라 궁방이나 관아에서 파견한 도장(導掌), 감관(監官)에 의한 조세 수탈과 탐학이 다른 지방보다 더 혹심했기에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져야 했다. 그중에서도 고부는 미곡의 집산지로서 전라도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고을 중의 하나였다.³³³⁾

1892년, 고부 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아무 이상 없었던 만석보를 새로 수축하기 위해 강제로 징발하고 남의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 잘라 쓰거나 농민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등 탐학 행위를 일삼았다. 농민들의 부담이 점점 극심해지던 1893년 11월에 사발통문이 돌아 민란이 폭발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갖추어졌다.³³⁴⁾

1894년 1월 8일 말목장터에 집결한 동학교도와 농민 수천 명은 전봉준을 대표로 추대하고 10일 새벽, 고부 관아를 습격함으로써 고부민란이 시작되었다. 농민군들은 만석보 설치 이후 거두어들이던 수세미 1,400석을 확보하고 원한의 대상이었던 만석보를 헐어버렸다.³³⁵⁾

고부민란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호남 동학 농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봉건·반외세 운동이 전봉준을 비롯한 호남의 동학 지방 접주들에 의해 뚜렷한 목표 아래 계획된 일이었으며,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³³⁶⁾

3. 고부지역 지리

삼한 시대부터 마한 고부는 지리적인 입지와 기능에 비추어 호남 중서부 일대 중심지로 전주 다음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리고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경계가 제대로 나뉘는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고부는 봉건주의에 대항하고 외세의 강압적인 침탈을 거부하는 진보주의의 본고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고부군이 정읍현보다 더 큰 고을이었으나, 지형상의 이유로 호남선 철도가 고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읍으로 가게 되었고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 때 철도 요충지로 성장하기 시작한 정읍에 고부가 병합되면서 현재 고부는 정읍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단, 이런 배경이 있었던 탓에 고부 쪽에도 작긴 하지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읍과는 별개로 부안, 고창 등지와 연결되는 버스 망을 가지고 있다.

331) 최병운,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32) 김기혁 외 14인, 2010, 「고부면」,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https://terms.naver.com/> (2022.09.16. 18:15).; 최병운, 1996, 위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33) 鄭診相, 2002,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310쪽.

334) 鄭診相, 2002, 위의 책, 311쪽.

335) 하우봉, 2017,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권 50호, 162쪽.

336) 김의환, 1995, 「고부민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7. 16:20).

참고문헌

- ❖ 『三國史記』
- ❖ 김의환, 1995, 「고부민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정학, 1995, 「점리비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최병운, 1995, 「고부(古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鄭診相, 2002,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 ❖ 김기혁 외 15인, 2010, 「고부면」,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 ❖ 하우봉, 2017,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권 50호
- ❖ 김영심, 2019,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33집

1. 19세기의 고부(古阜)

오늘날 고부는 정읍시에 딸린 면이지만, 갑오년, 즉, 1894년에는 정읍보다 더 세력이 컸던 곳이었다. 고부는 인근 지역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서 넓은 평야와 28개의 주변 촌락을 거느린 가장 번성한 고을이었다.³³⁷⁾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영농조건을 갖춰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방이었다는 점은 농민층 말고도 지방의 관리들에게도 매력적인 이야기였다. 이는 당시 조선 후기 부패한 지방사회의 면모와 연관이 있는데, 고부는 조선 후기 지방 관리들의 학정(虐政)과 탐학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중앙 관리들이 뒷돈과 권세를 동원하여 서로 부임하려고 노리던 ‘물 좋은’ 고장이었다고 한다.³³⁸⁾

2. 만석보(萬石洑)의 설립과 수탈

만석보지(萬石洑址)는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에 있는 만석보의 보 터로, 19세기 고부에서 벌어진 관리와 농민들 간의 갈등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보(洑)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 구조물이다.³³⁹⁾ 아무리 가물어도 이 보에서 물을 끌어쓰는 배들 평에는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만석보라고 불렸다.³⁴⁰⁾



그림 35 만석보 부근 지도

이 만석보가 19세기 말 관리와 농민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인 이유는 이 만석보가 조선 후기 탐관오리 중 한 명이었던 고부 군수 조병갑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1892년 5월에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오자마자 온갖 가렴주구를 일삼았는데, 그중 하나가 농민을 함부로 징발하고 남의 산에서 수백 년 묵은 소나무를 베어다 쓰면서 보를 쌓고는 물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³⁴¹⁾ 당시 정읍천에는 이미 농민들이 막아 놓은 보가 있었음에도 조병갑은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정읍천

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새로 보를 쌓게 하였다.³⁴²⁾ 보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저수량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홍수 때 범람하게 되어 상류 쪽의 논들이 침수되기 때문에 보의 높이가 매우 중요하다.³⁴³⁾ 그러나 새 만석보는 너무 높아서, 홍수가 지면 오히려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의 논

337)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전북 답사여행의 길잡이 1 전북』, 돌베개, 210쪽.

338)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10쪽.

339) 김영진, 1995, 「보(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2:02).

34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앞의 책, 돌베개, 238쪽.

341)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37~238쪽.

34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10~211쪽.

343) 조광환, 2012.01.06., 「정읍천과 동진강 만나는 지점에 있던 원래 만석보… 조병갑, 농민 동원 새 만석보

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졌다. 거기다 보를 쌓은 첫해에는 수세(水稅)를 물리지 않겠다는 조병갑은 약속을 어기고 좋은 논에서는 한 마지기당 두 말, 나쁜 논에서는 한 말씩 수세를 걷어 예동, 두전, 백산에 700여 석을 쌓아 놓았다.³⁴⁴⁾ 그 무렵 삼남 지방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보세를 감해달라고 관아로 간 농민들은 감면은커녕, 매를 맞고 나왔다.³⁴⁵⁾

이렇듯 만석보는 19세기 말 고부 군수인 조병갑의 학정과 탐학을 잘 보여준다. 만석보는 애초에 당시 고부의 상황에서 그렇게 필요한 시설도 아니었지만, 설립 과정에서 농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했고, 설립 이후에도 잘못 설계된 보의 높이로 몇몇 농민들의 논이 큰 피해를 보고, 수세를 물리며 수탈까지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만석보는 농민들에게 수탈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3. 만석보와 저항, 고부 봉기

만석보 설립으로 불합리할 정도의 조세를 거둔 조병갑은 더 나아가 부친의 선정비를 세운다며 천 량 이상의 돈을 거두었고, 또한, 대동미(大同米)를 민간에서 거둬들일 때 정백미(精白米)를 하등미(下等米)로 바꾸는 꼼수를 부려 차익금을 가로채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³⁴⁶⁾ 조병갑이 군수임에도 이처럼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 후기 군수의 직책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쥐고 흔들 수 있었던 자리여서였다.³⁴⁷⁾

조병갑의 끝없는 수탈에 견디지 못한 고부의 농민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1894년 1월 10일 민란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였다.³⁴⁸⁾ 1월 10일 새벽 마항장(馬項場)에는 조병갑의 횡포에 분노한 농민 천 명이 집결했으며, 그대로 관아를 습격하여 조병갑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죄인들을 풀어주었고, 관아의 무기고를 열어 그들 스스로 무장했으며, 조병갑의 옆에서 수탈을 도운 이서배(吏胥輩)들을 처벌하였다.³⁴⁹⁾ 이렇게 농민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했고, 이서배 무리를 처벌하였으나, 민란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조병갑은 전라 감영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했다.³⁵⁰⁾

조병갑이 달아나서 농민들은 그동안 조병갑에게 받았던 울분을 직접 풀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울분을 풀어내고자 했다. 바로 조병갑의 지시대로 설립한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를 때려 부숨으로써³⁵¹⁾, 농민들은 그 분함을 조금이나마 풀려 했다. 만석보를 부순 농민들은 백산으로 이동했고 점차 전쟁을 준비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중앙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안핵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조병갑과 다를 바 없이 농민들을 다루자, 전봉준은 격문을 띄우며, 전면전쟁에 돌입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다.³⁵²⁾ 조병갑이 수탈을 목적으로 세운 만석보가, 결과적으로는

쌓아」, 위클리서울,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39> (2022.09.16. 12:23).

34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앞의 책, 돌베개, 211쪽; 전영래, 1996, 「만석보지(萬石淤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1:45).

345)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위의 책, 돌베개, 238쪽.

346) 전라금석문연구회, 2006, 「정읍 만석보 유지비」, 탁본전시회 도록, 47쪽.

347) 안창남, 2017, 「만석보(萬石淤) 조세저항의 현대적 해석」, 『재정포럼』, 251권, 3쪽.

348) 김태웅·김대호, 2021, 『한국근대사를 꿰뚫는 질문29-고종 즉위부터 임시정부 수립까지』, 아르테, 101쪽.

349) 김의환, 1995, 「고부민란(古阜民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9.16. 16:34).

350) 김태웅·김대호, 2021, 앞의 책, 101쪽.

351) 전영래,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52) 김의환, 1995,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수탈의 상징인 만석보는 저항의 상징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조선 후기 최대 규모 농민 봉기의 불씨를 발화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그림 36 만석보 유지비

4. 이후의 만석보

만석보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끝이 났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수탈의 상징이자 저항의 상징이기도 했던 만석보는 역사에서 점차 잊히게 되었다. 다행히도 1960년대에 들어 우리 역사를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다시금 동학농민운동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주목의 결과로 동학군이 승리한 황토현 농민전쟁 전적지가 정비되었으며, 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지기도 했다.³⁵³⁾ 그리고 1973년에는 만석보 터에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만석보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 만석보 유지비가 건립되었으며, 1976년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³⁵⁴⁾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만석보는 그 원래 형태는 사라졌을지라도, 기념비 덕분에 한국인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만석보가 지닌 두 가지의 성격, 즉, 조선 후기 탐관오리 조병갑의 수탈성과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선 농민들의 저항성은 만석보 유지비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기억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 김영진, 1995, 「보(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의환, 1995, 「고부민란(古阜民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전영래, 1996, 「만석보지(萬石洑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9, 『전북 답사여행의 길잡이 1 전북』, 돌베개
- ❖ 전라금석문연구회, 2006, 「정읍 만석보 유지비」, 탁본전시회 도록

353) 김태웅·김대호, 2021, 앞의 책, 113쪽.

354) 전영래, 1996, 앞의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안창남, 2017, 「만석보(萬石洑) 조세저항의 현대적 해석」, 『재정포럼』 251권
- ❖ 김태웅·김대호, 2021, 『한국근대사를 꿰뚫는 질문29-고종 즉위부터 임시정부 수립까지』, 아르테
- ❖ 조광환, 2012.01.06., 「정읍천과 동진강 만나는 지점에 있던 원래 만석보… 조병갑, 농민 동원 새 만석보 쌓아」, 위클리서울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21 이충민, 18 전민준

1. 동학농민운동의 발단과 개요

동학은 1860(철종 11)년 4월,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시되었다. ‘시천주(侍天主)’ 신앙에 근거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을 내세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었던 동학³⁵⁵⁾은 원래 서민층에 널리 유포된 신앙 형태이었으나, 조정에 의해 사교로 여겨져 탄압받았다.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교조(敎祖)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은 이러한 상황에서 처형된 교조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고,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과정이 민중의 집단적 시위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동학에 탐관오리의 혁파, 외세 배척 등 정치적 요인이 끼어들며 종교의 사회운동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서민층의 반왕조적 사회개혁 운동으로 성향이 바뀌었다.

1894(고종 31)년 1월,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습격하며 발발한 동학농민운동은 그해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2차 갑오개혁이 단행되며 막을 내렸다.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조선에 갑오개혁과 일제의 본격적 침탈의 시작이라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적으로도 청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상반기의 고부 봉기와 하반기의 전주/광주 궐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³⁵⁶⁾

2. 제1차 동학농민운동

예로부터 고부를 위시한 전라도는 곡창 지대였는데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탐관오리로서, ‘만석보’라는 대형 저수지를 축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인근 태인 군수를 지냈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고 양민들로부터 각종 조세와 잡세를 걷고 양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역을 부여하는 등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전봉준은 1894년 2월 15일 동학교도 및 농민과 함께 고부에서 봉기했다. 관아를 습격하였으며 조병갑은 전주로 도주했다. 농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감옥을 부수어 그곳에 갇힌 죄수들과 동학교도들을 비롯한 농민들과 마을 사람들을 풀어 주었으며, 창고에 착복해 둔 곡식과 재물을 군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박원명을 후임 군수로 보냈다. 박원명이 온건한 조치를 취하자 농민들은 일단 해산하였으나 전봉준은 백산으로 옮겨 봉기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수습을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에 참여한 농민과 동학교도들을 체포하고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봉준은 각 지역 동학접주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는 통문을 돌렸고, 1894년 4월 25일 동학농민군이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백산에서 봉기했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을 농민군 지도부는 1만명까지 늘어난 농민군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로 진군하여 지역의 탐관오

35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학(東學)」.

356) 동학농민운동기념사업회, 『동학농민운동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문화사, 2002, 35~41쪽.

리만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한 중앙 척족까지 축출하는 개혁을 일으킬 것임을 천명했다.

농민군은 빠르게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으며,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하여 기세를 올렸다. 정부는 5월 6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서양식 무기를 장비하고 훈련을 받은 경군(京軍) 병력을 진압군으로 파견했다. 홍계훈 부대는 전주에 주둔하는 동안, 농민군은 병력을 분산하여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함평, 장성 일대를 장악하여 정부군을 압박했다. 이학승에게 일부 병력을 이끌고 장성으로 진출하게 하였으나, 황룡강 전투에서 농민군에게 패배했다. 농민군은 복진하여 5월 31일 전주성에 입성했으며 정부군은 완산으로 물러나서 전주성의 농민군과 대치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민영준 등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여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하였고, 청의 리홍장 정부는 청군 파견을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도 텐진 조약을 근거로 조선 파병을 결정했다.

청과 일본 군대가 모두 주둔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선 정부는 농민군을 급히 해산시켜야 했고, 농민군 역시 지구전이 불리하고 농번기가 시작되며, 외세가 개입할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6월 11일 '전주 화약'이 맺어졌다.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에는 탐관오리의 처벌, 잡세와 노비제도 폐지, 고른 인재의 등용, 과부 재가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농민군은 각 고을에 자치 행정 기구인 집강소를 세워 폐정 개혁안의 기치 아래 민생 안정에 들어갔다.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를 두고, 집강소에는 분장을 나누어 집강 밑에 서기·성찰·집사·동몽 등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한편, 조정과 농민군의 화약에 따라 관군은 전주에 남긴 몇몇 부대를 제외하고 모두 철군하였다. 청병 역시 철군하고자 하였으나 일본군은 철군을 거부하고 계속 한성에 진주하였고, 이에 조선의 안보가 더욱 위급해졌다.

3. 제2차 동학농민운동(9월 재봉기)

농민군이 해산했으나 청과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으며,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신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농민군 지도부는 일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전봉준은 9월 초부터 삼례에 대도소를 두고 병력, 무기, 보급 물자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삼례에 집결한 농민군은 10월 12일 전주성을 점령했다.

한편 최시형 등 온건파 지도자들이 주도하던 북접은 제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참여하지 않았으나, 10월 16일 최시형이 접주들에게 전봉준의 봉기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했다.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논산에서 합세하여 북상을 준비했다. 이에 정부군은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하여 농민군 진압을 준비했고, 일본은 병력을 전라도로 보내는 한편 19대대를 추가로 파견했다.

농민군은 우선 공주를 점령한 후 서울로 북상하는 계획을 세웠고, 11월 9일 진군을 시작했다. 정부과 일본군은 공주 일대에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11월 하순부터 이인, 효포, 우금치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12월 7일까지 계속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농민군 지도부는 해산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전봉준은 1894년 12월 28일 체포되었으며 다음해 4월 순화중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4. 동학농민운동의 평가와 의의

동학농민운동은 한국 사학계의 끼친 지대한 영향만큼 많은 관심과 그에 따른 다양한 평가를 해왔다. 일찍이 박은식은 『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양반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서 비롯된 낡은 관습을 타파하려 한 평민 혁명이라고 평가하였고, 김상기는 동학농민운동을 지도 원리, 조직 목표 확립 등을 갖춘 민중운동이라고 규정해 후에 계속될 연구의 틀을 확립하였다.³⁵⁷⁾ 이후 학계의 연구는 대체로 민란에서 혁명으로, 혁명에 운동으로, 다시 혁명운동으로 변화해왔다.

한편 그렇다면 동학농민운동혁명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첫째로, 동학농민운동혁명은 반봉건을 외치면 봉건제 타파에 기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농민군이 처음 봉기할 당시 창의문, 격문 등을 통해 봉기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아 ‘원정’, ‘통문’ 등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이는 일종의 사회 개혁안 혹은 폐정개혁안의 성격을 띠었다.³⁵⁸⁾ 특히 앞서 제시하였던 집강소 시기의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분석해보면 ‘차. 왜와 통한 자는 엄벌’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이 반봉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폐지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봉건적 신분제 타파 등 근대지향적인 혁명 요구가 관철됨을 알 수 있다.³⁵⁹⁾

다음으로는 동학농민운동혁명은 한국 근대 민족운동의 효시이다. 그 성격을 보면 단순히 방봉건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 민족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혁명이 실패한 이후에도 을미사변 이후 거병한 의병 대열에 합류거나 1900년대 일제에 맞서는 의병으로 다시 등장한다점을 고려해 볼 때, 농민운동 시기 일본 침략에 대한 반일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항일 의병운동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동학농민운동기념사업회, 『동학농민운동의 동아시아적 의미』, 서경문화사, 2002, 35~41쪽
-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시기의 집강소의 활동」, 『한국문화』 6호
- ❖ 韓基斗, 1993, 「19世紀 民族宗教運動研究 - 東學·天道教·圓佛敎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49집
- ❖ 金光載, 2002, 「東學農民運動의 歷史的 意義」, 『동학연구』 제11집
- ❖ 김창규, 2021, 「감성적 근대성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역사학연구』 81권

357) 김창규, 2021, 「감성적 근대성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역사학연구』 81권, 79쪽.

358) 金光載, 2002, 「東學農民運動의 歷史的 意義」, 『동학연구』 제11집, 103쪽

359) 金光載, 2002, 위의 논문, 110쪽

고부 지역 유적지

21 이지민, 정치외교 19 박소연

1. 고사부리성

정읍지역의 관방유적(關防遺蹟) 중 특히 고부 지역에는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과 두승산성 2개소가 있는데, 그중 고부구읍성인 고사부리성은 백제 사비 시기에 백제의 지방 통치체제인 오방(五方) 중에서 중방성(中方城)이다. 고사부리성은 백제가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온조 36년에 축조되었다. 해발 133m의 성황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남서쪽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한 모양으로 쌓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성을 테피식 산성이라 한다.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반월 형태이다. 성곽의 길이는 1,050m, 장축의 길이는 418m, 단축의 길이는 200m 내외이며 내부 면적은 63,484㎡이다.³⁶⁰⁾

백제의 산성들은 공통으로 수륙 교통의 편리함과 더불어 널리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축조되었다. 주변 지역 감시가 수월한 위치에 산성을 축조한 것을 통해 산성을 주된 방어시설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사부리성의 외벽은 틈새 없이 견고하게 축조되었다. 사각추형(四角錐形)으로 다듬은 성돌을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번갈아 품자형(品字形)으로 쌓은 것이 특징이다. 높은 지형 조건으로 인해 산성 내부는 단마다 3~5cm씩 안으로 쌓아 올렸다.³⁶¹⁾ 이러한 방식의 석재 가공과 철저한 축성법을 통해 고부 지역이 백제의 중요한 행정적, 군사적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조 41년에 지금의 고부 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였고, 현재 고부 초등학교에는 고부 관아 터가 남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고사부리성이 발굴될 때 함께 출토된 그릇 조각과 기마무사의 모습이 새겨진 백제 시대 기와 조각은 고사부리성이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따라서 중방성 위치에 대한 논쟁은 고사부리성이 중방성이라는 결론으로 정리되었다.³⁶²⁾

2. 용흥리해정사지석탑

높이 3.76m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용흥리해정사지석탑(龍興里海鼎寺址石塔)은 고사부리성이 있는 성황산 북쪽 기슭에 세워져 있다. 주변에서 ‘해정사’라고 새긴 기왓조각이 발견되어 해정사 옛 절터임을 알 수 있다. 석탑의 각 부분을 조각한 기술을 보아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전체의 무게를 받치는 기단을 2층으로 쌓은 이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塔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단의 하대석(下臺石)이 땅속에 묻혀 얼핏 단층 기단으로 생각되었으나 땅속의 기단이 최저부의 지대석(址臺石)까지 노출되면서 이중 기단으로 밝혀졌다. 탑신부 1층의 몸돌은 높이가 높고 2층부터는 갑자기 높이가 줄어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꼭대기 머리 장식은 후에 따

360) 김영심, 2019, 「백제 중방성(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제33집, 23쪽.

361) 김영심, 2019, 위의 논문, 23~24쪽.

362) 김영심, 2019, 위의 논문, 23쪽.



그림 37 정읍 용흥리 해정사지 석
탑 정측면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로 만들어 엮은 것이다. 각 기단의 네 면과 탑신부의 각 돌에는 우주(隅柱), 즉 모서리 기둥 모양의 조각이 있다. 지붕돌의 받침은 3단으로 구성했다.

고사부리성 주변의 석탑들은 모두 2층으로 쌓은 이중 기단 위로 5층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장문리 5층 석탑, 남북리 5층 석탑과 같이 용흥리해정사지석탑도 원래는 5층 석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은 3개 층만이 남아있으나 3층의 지붕돌 위에 우주를 본떠 새긴 탑신이 하나 올라가 있고, 가장 위에 상륜부의 돌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없어진 4층, 5층의 지붕돌과 5층의 탑신 몸돌의 원래 높이는 4.32m 정도로 추정된다.³⁶³⁾

3. 고부 향교

1403년(태종 3년)에 창건된 고부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597년(선조 30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한 것으로, 대성전, 명륜당, 양사재, 동재, 서재, 사마재, 전직사, 내삼문 등 향교 구성 시설이 대부분 현존하고 있으며, 향교 배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양식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이다.³⁶⁴⁾

향교 건축 배치 중 약 90%가 이 유형인데, 대부분이 야트막한 야산의 산록 경사지에 입지해 있으며, 위계성을 나타내는 공간 설정으로 여겨진다. 향교는 대개 면학 분위기를 위해 읍성 밖 한적한 곳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읍치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 세우지는 않았는데, 관학 시설로서 지방민의 교화사업에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보통 읍치에서 4리 이내에 배치했다.³⁶⁵⁾ 고부향교의 경우 고부 관아 터에 매우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고부 관아는 향교의 위치가 관아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운이 막힌다는 이유로 1765년(영조 41년)에 현재의 고부초등학교 자리로 옮겼다고 전해지는데,³⁶⁶⁾ 고부 봉기 때 농민군에 의해 점거되었던 역사적 현장이지만 현전하지 않고 있다.

관아 자리에 1906년 당시 고부군수 정용기가 출자하고 지역 유지들의 기부금을 모아 사립 광화학교를 설립했는데, 1911년 학제 개편으로 공립 보통학교로 변경된 이래로 줄곧 초등학교로 이용되고 있다. 광화학교 설립 당시에는 관아의 순교청(巡校廳)을 사용하다가 향교 명륜당으로 이전했는데, 재차

363) 전영래, 1995, 「용흥리해정사지석탑(龍興里海鼎寺址石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9768> (2022.09.17. 접속)

364) 이법직, 1995, 「고부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3617> (2022.09.17. 접속)

365) 김지민, 2011, 「4. 지배 정치 이념 구현 : 유교건축」, 『한국문화사 39: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문화』 245-250쪽.

366) 장현희, 「향운설화의 대표적인 정자, 정읍 군자정」,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pavilion/story/2329> (2022.09.17. 접속).

이전하여 관아의 객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⁶⁷⁾ 고부 관아가 완전히 철거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운봉현(현재의 남원시 운봉읍) 객사의 경우 1912년 무렵부터 운봉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다가 1925년 시설이 협착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교사(舊敎舍)를 헐고 신교사(新敎舍)를 신축했던 것으로 보아, 고부보통학교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³⁶⁸⁾

고부향교 건물 중 대성전(大成殿)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향교에서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5성(五聖), 10철(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교육 기능보다는 제향을 통한 교화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봄과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올렸다.³⁶⁹⁾



그림 38 보통학교로 이용된 고부 관아의 객사
(출처 : 부안독립신문)



그림 39 고부향교 대성전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고부 군자정(君子亭)

고부리 지방도로 남쪽 연못 가운데에 있는 연정(蓮亭)으로, 그 설립 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한때 고부군수들이 자주 좌천되거나 파직되고, 마을에서 과거급제자가 배출되지 않은 시기에 그 원인이 “연정이 황폐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1673년(현종 14년)에 군수 이후선이 연못을 파내고 정자를 개수했고, 이후 연꽃이 만발하고 진사가 배출되었다고 전해진다. 1764년(영조 40년) 군수 이세형이 정자를 중수했는데, 1900년에 군수 조규희가 연못을 파내고 고쳤으며, 1901년에는 군내 19명의 인사에게 받은 기부금으로 중건해 1905년에 완성했다.³⁷⁰⁾

군자정 경내에는 조선 시대 관찰사와 군수들의 선정비(善政碑) 10기가 모여있는데, 1993년에 고부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옮겨둔 것이라고 한다. 8기는 군수들의 선정비이고, 2기 중 1기는 ‘병마절도사 변국한 군민청간 선정비(兵馬節度使邊公國翰軍民淸簡善政碑)’로 1698년 2월에 건립, 다른 1기는 관찰사 서기순 청백혜덕 영세불망비(觀察使徐侯箕淸清白惠德永世不忘碑)’로 1843년에 건립된 것이다.³⁷¹⁾ 총 22기의 선정비 중 한두 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상 정도가 심한데, 고부민란 때 성난 민심

367) 최명국, 2013.6.26., 「4. 정읍 고부초 -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옛 고부관아에 터잡아」,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130625474548> (2022.09.17. 접속).

368) 오준영·김영모, 2015. 「근대기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연구」. 『문화재』 통권 67호, 30~32쪽.

369) 이범직, 앞의 자료.

370) 장현희, 앞의 자료.

371) 장현희, 앞의 자료.

에 휩쓸려 파손된 것으로 추측한다.³⁷²⁾



그림 40 고부 군자정과 고부 지역 선정비
(출처 : 국가유산포털)

참고문헌

- ❖ 전영래, 1995, 「용흥리해정사지석탑(龍興里海鼎寺址石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이범직, 1995. 「고부향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박완식, 1997. 「정읍 고부초등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김지민, 2011. 「4. 지배 정치 이념 구현 : 유교건축」, 『한국문화사 39: 삶의 공간과 흔적, 우리의 건축문화』, 국사편찬위원회, 245~250쪽.
- ❖ 최명국, 2013.06.26., 「4. 정읍 고부초 -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옛 고부관아에 터잡아」, 전북일보.
- ❖ 오준영, 김영모. 2015. 「근대기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연구」, 『문화재』 통권 67호, 24~43쪽.
- ❖ 이병학, 2016.10.20., 「반토막 난 선정비는 탐관오리 인증비」, 한겨레.
- ❖ 박대길, 2019.10.01. 「부안동학농민혁명사 9] 고부민란, 고부봉기, 고부농민봉기, 고부기포」. 부안독립신문.
- ❖ 김영심, 2019, 「백제 중방성(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마한백제문화』 제33집, 5~38쪽.
- ❖ 장현희, 「향운설화의 대표적인 정자, 정읍 군자정」, 『지역N문화』

372) 이병학, 2016.10.20., 「반토막 난 선정비는 탐관오리 인증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766541.html (2022.09.17. 접속).

2022학년도 2학기

연세대학교 사학과 추계 정기답사지

2022년 9월 28일 발행

발 행 연세대학교 사학과 답사준비위원회
편 집 손승우
작 성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문화유적답사 수강생